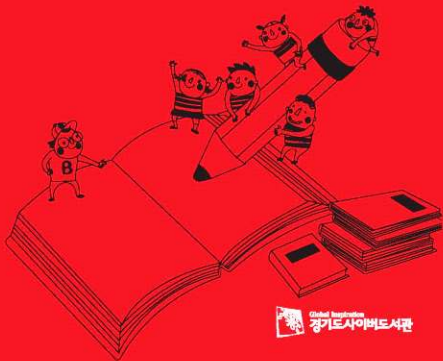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Global Association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3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3

2013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 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발행일	2014년 2월 10일 초판 발행
글쓴이	2013 경기도 사서서평단
기획및편집	정은영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 23번길 63
연락처	031) 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
인쇄	진디자인
I S B N	978-89-93395-41-9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3년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털 북매직(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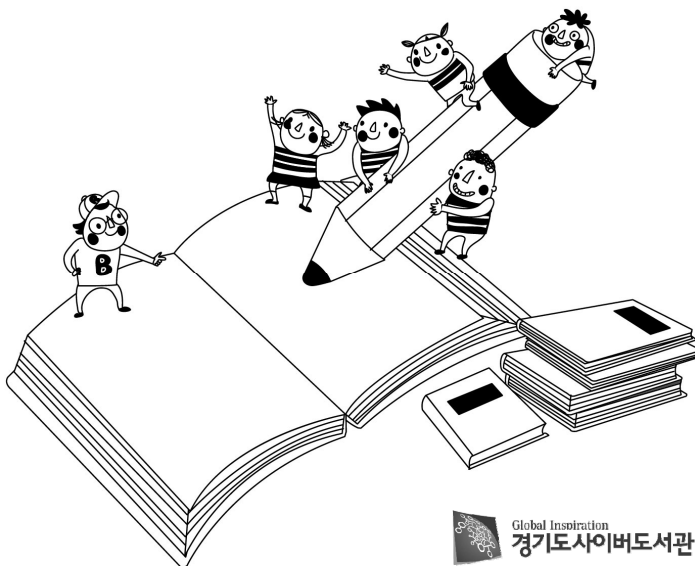
2013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www.library.kr
www.bookmagic.kr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여는 글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선 도서관에 책을 비롯한 소중한 자료들을 채워 넣어야겠습니다. 그것도 아무 책이나 마구잡이로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을 선정하고, 체계를 가지고 선정된 책을 분류하고, 그 책을 정해진 위치에 잘 가져다 뒤편하겠지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서’입니다. 즉, 사서는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서가 사서다운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책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지요? 도서관 체계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주제에 따라 책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류기호와 청구기호를 부여하고, 그 기호에 맞춰 잘 정리해 두는 일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서관에 대해 소개해 줘야겠습니다. 도서관의 구조, 위치, 이용시간 뿐 아니라 도서관의 역사, 역할, 의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 좋겠죠.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소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자료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이죠.

사서들의 서평쓰기는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사서가 사서답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사서들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는 어린이 책에 대한 사서들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고 싶은 마음. 도서관을 통해 좋은 책을 만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사서들의 서평쓰기는 ‘사서로서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도서관이 좋아서, 책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사서’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들이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을 기울여 온지 벌써 5년째입니다. 2013년 4월 경기도 공공도서관 사서들 서른 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 해 전 보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다른 마음이었지만 도서관다움, 사서다움의 길을 ‘어린이 책 서평’에서 찾고자 한 사서들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각자 책을 선정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일 년 동안의 수고의 결실이 이렇게 책으로 선보입니다.

이 책이 더 좋을까, 저 책이 더 좋을까하는 고민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글을 다듬고 싶은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의 생각이 너무 들어나 버리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아쉬운 마음속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책의 모습으로 선보이는 것은 이 길이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서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우리의 작은 노력이 도서관을 더욱 도서관답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믿음. 이용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랑(?). 그 마음들을 모아서 소중한 책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을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글 심는 순서

여는 글 _ 3

1부 서평, 어떻게 쓸 것인가 _ 9

서평의 이해 _ 11

한국아동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쟁점 _ 15

지난 10년, 우리 어린이 문학은 무엇을 이야기해 왔나? _ 22

2부 서평, 목소리가 들린다. _ 35

그림책 서평 _ 36

동화책(동시집) 서평 _ 141

지식정보책 서평 _ 187

3부 함께 나누는 서평 _ 229

4부 서평 쓰는 사서 _ 267

부록 추천도서 목록 _ 301

그림책 목록 _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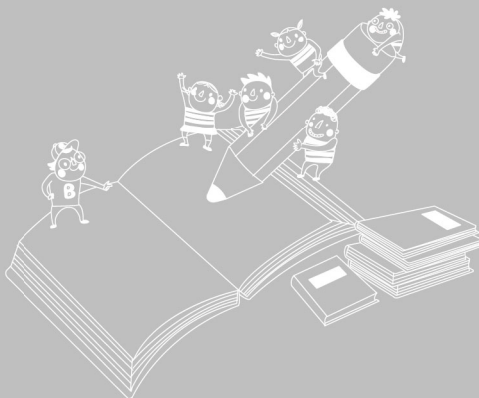
동화책 목록 _ 307

지식정보책 목록 _ 312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1부 서평, 어떻게 쓸 것인가

- 서평의 이해 / 원종찬
 - 한국아동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쟁점 / 원종찬
 - 지난 10년의 우리 어린이문학 / 조은숙
-



서평의 이해

원종찬

인하대학교 교수

1. 서평쓰기의 어려움

서평(book review)은 책에 대한 평을 가리키는 말로 비평(criticism)의 하나이다. 서평을 잘 하려면 비평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물론 문학 서적을 가지고 서평을 하려면 문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고, 아동문학 서적을 가지고 서평을 하려면 아동문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새로 나온 동화책이나 동시집을 소개하는 서평을 잡지에 실는다면, 누구에게 청탁을 하겠는가? 아동문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비평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서평은 원고지 5매에서 10매 사이, 대개 한 페이지 분량의 지면을 차지하는 짧은 글이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서평이란 형식을 주목해서 글쓰기를 안내해주는 책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서평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형식의 글이다. 거의 모든 일간지와 정기간행물들이 서평을 실고 있다. 신간소개, 신간서평, 문학칼럼, 문학에세이 등은 서평에 포함되거나 그 경계에 걸쳐있는 것들이다.

서평을 잘 쓰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짧을수록 촌철살인의 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평에 관한 이론서나 글쓰기에 관한 책자는 많다. 결국 비평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글쓰기의 요령을 익히는 것이 서평을 잘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서평에서 요구되는 필수항목을 갖춘다면 그밖에는 칼럼이나 에세이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글의 수준은 글쓴이의 내공이 좌우하게 마련이다.

2. 아동문학 서평의 중요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이 서평의 대상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린이 책 분야는 서평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아동문학은 책을 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르다. 어린이가 읽는 것이지만 어른이 사준다. 보통의 어른 구매자는 아동문학을 읽지 않고 아동문학을 지속적으로 읽는 특별한 어른에게서 정보를 구한다. 아동문학 서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신간에 대한 고급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도서관에서 일했던 릴리언. H. 스미스 여사는 그의 유명한 『아동문학론』의 서문에서 “아동문학의 더욱 좋은 작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도서 선택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이 책의 테마이다. 범작의 부류를 넘겨 버리고 봐 주는 일은 좋은 책을 선택하고 문학의 의의를 파악하는 목적을 그르치는 일이다.”라고 했다. 어린이책의 엄청난 수량을 생각하면 사안이 중대하다. 스미스 여사는 “범작과 졸작을 딱 잘라 거절”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훌륭한 책이 주의를 끌지 못한 채 간과되거나, 눈에 띄이지 않은 채 끝나버릴 가능성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라고도 했다.

아동문학 서평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짧은 형식 때문에 만만하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전공자도 현장 감각이 부족하면 낙제점수를 받기 일쑤인 것이 서평이다. 현장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일상적으로 어린이와 어린이 책을 대하는 사서, 교사, 독서지도사, 서점운영자 등이 서평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책임자다. 어린이와 함께 호흡하는 이들의 애정에서 나온 관심 표명이 아동문학 발전의 크나큰 밑거름이다.

3. 서평의 특성 : 독후감과의 차이에서

책을 읽고 나면 나름대로 소감을 말하고 싶어진다. ‘책을 읽은 감상’ 정도로 풀이

되는 독후감은 감상문의 하나이다. 이에 비해 ‘책에 대한 평가’로 풀이되는 서평은 비평에 속하는 글이다. 독후감이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개인적인 글이라면, 서평은 자신의 느낌을 다른 사람도 공명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론화하는 글이다. 서평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볼 만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 서평은 개인의 비망록이 아니라 널리 알려져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독후감이 필자 중심이라면 서평은 독자 중심의 글쓰기이다. 서평은 평가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가독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어느 책이 불만인 것인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데에서 출발한다. 취향과 상황의 변수가 거기에 맞물려 있다. 그러하기에 서평은 공정함과 설득력 있는 전개를 보여야 한다. “너무 치우쳤어!” “편협해!” “비약이 심해!”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효과를 이루지 못한다. 책과 만나는 길을 터주고, 생산적인 논의를 불러올 때 서평은 제 몫을 하는 것이다.

서평은 객관적인 도서정보와 비평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정보와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책을 읽고 나면 그것의 좋고 나쁨, 또는 감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일상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다. 여기에 지적인 노력을 보태서 적극적인 논평을 행하면 비평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문학에 관한 지식과 고전을 척도로 한다면 평가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4. 서평의 요건 : 평론과의 차이에서

서평은 비평이라는 점에서 평론과 성격이 비슷하다. 서평은 평론의 한 형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매슈 아놀드는 “비평이란 세계에서 알려지고 사색된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퍼뜨리려는 공평무사한 노력”이라고 했다. 비평은 감상과 평가를 거

쳐 가치판단에 도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서평은 평론과 구별되는 자기형식을 가지고 있다. 서평은 이런 책이 나왔다는 소개 부분과 그것이 읽어볼 만한 책인가를 식별해주는 부분을 포함한다. 곧 서평은 소개와 비평 사이에 존재하는 것, 또는 소개와 비평을 아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이겠지만 서평과 평론의 차이는 몇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서평은 책의 출간시기가 가까울수록 효력이 커진다. 서평은 대개 신간 위주로 이뤄진다. ‘현재’ 발행된 책과 관계된다. 그래서 아예 ‘신간서평’이란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이다. 또한 서평은 짧은 분량에 정보를 요약해야 한다. 원고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평론보다 훨씬 적게 주어진다. 결국 서평은 평론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서평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짧은 분량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다루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하고 평소 독서량도 풍부해야 한다.

서평이 하는 일은 ①책 고르기, ②분류하기, ③평가하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평가하기’는 바로 그 시점에서의 평가를 말한다. 평론은 훨씬 폭넓은 콘텍스트와 조망의 관점에서 대상을 다룬다. 평론도 서평과 비슷하게 문학적 분류, 비교, 평가의 형태로 되어 있다. 서평자의 사전지식은 책을 고르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층 용이하고 정확하게 해줄 것이다. “다른 책은 이것과 같지 않을까?” “만일 비슷하다면 그것과 어떻게 견줄 수 있을까?” “무엇이 이 책에 유일한 독자성을 제공해주는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고 거기에 얼른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아동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쟁점

- ‘일하는 아이들’과 그 이후의 문제

원종찬

인하대학교 교수

1. 아동문학의 성립과 소년운동

아동독자의 출현은 ‘아동이 발견’ 이후의 현상인바, 이는 근대적 가정과 교육 제도가 구획한 아동기(兒童期)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아동문학은 농촌인구가 대부분이고 아동의 취학률이 매우 낮은 식민지시대에 커다란 사회적 파장과 함께 시작했다. 근대적 기반이 매우 취약했음에도 민족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소년운동과 굳건히 결합해 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대의 아동은 엄마 품속이 아니라 공회당에 모여서 함께 노래(동요)를 부르고 이야기(동화)를 들었다. 이 시기의 아동문학은 개인창작집 형태가 아니라 아동잡지 형태로 독자와 직접 소통했다. 『어린이』는 천도교소년회의 기관지로 발행되었고, 『신소년』 『별나라』 『아희생활』 등도 소년회와 더불어 성장했다. 10대 중후반에 걸친 이들 아동잡지의 독자는 소년문예운동을 일으키며 동요를 지어 발표했다. 『어린이』의 방정환, 고한승, 마해송, 『신소년』의 신영철, 이주홍, 이동규, 『별나라』의 염근수, 송영, 박세영, 『아희생활』의 주요한, 전영택, 김태오 등은 모두 소년운동의 지도자였다. 윤석중, 이원수, 신고송, 송완순, 윤복진, 이정구, 소용수 등은 소년문예운동을 통해 소년문사로 활약한 동요시인들이다.

2. 일본어 창가와 조선어 동요의 대결 : 동요황금기

식민지시대의 동요는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국민가요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일본어 창가로 채워졌으며, 동요는 나약함과 병적 퇴폐성을 이유로 불온한 노래라고 배척되었다. 조선어 동요는 일본어 창가와 늘 긴장상태에 있었다. ‘동심주의’도 일본에서와는 성격이 달랐으니, 일본 동심주의의 근원인 ‘창가에서 동요로’라는 모토(motto)가 식민지조선으로 건너와서는 모종의 정치성을 띠었다. 창작동요는 폭발적인 전파력을 보이며 입에서 입으로 건네졌다. ‘동요황금기’는 애상적인 노래도 저항가요로 기능하는 식민지시대 특유의 동요 위상과 관련해서 내용이 주어지는 명칭이다. 방정환과 정지용에서 비롯된 눈으로 읽는 동요동시는 윤석중과 이원수 경향으로 분화해갔다. 윤석중이 도시감각에 바탕해서 놀이하는 유년기 아동의 유희적 세계를 노래했다면, 이원수는 농촌정서에 바탕해서 노동하는 소년기 아동의 고달픈 세계를 노래했다. 두 흐름은 아동문학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이루는 상보적 관계지만 투쟁적 가치를 앞세운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등장한 이래 양극단에서 충돌하는 양상이 자주 빚어졌다.

3. 인고와 헌신의 주인공 : 동화, 소년소설, 동극의 양상

식민지시대에는 전국각지에서 동화회(童話會)가 성황을 이루었다. 동화회는 동화구연자가 일인극처럼 행하는 무대공연의 성격을 띠었기에 스토리가 명확한 서구 메르헨과 전래동화가 더욱 적합했다. 번안물이 주종을 이룬 만큼 창작자보다는 구연자의 역할이 컸는데, 대부분 소년운동의 지도자였다. 이들이 아동잡지에 동화를 소개하면서 번안에서 창작으로 발전했다. 이 땅에 처음 동화의 씨를 뿌린 방정환, 고한승, 마해송 등의 창작동화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동화구연자 단독의 일인극을 벗어나 각자의 배역을 정해서 공연하게 되면 동화극이 되었다. 동화극은 동요

가창을 포함하는 종합예술이었다. 그 대본이 아동잡지에 소개되면서 동극 장르가 탄생했다. 방정환, 마해송, 송영, 신고송, 윤석중 등의 동극대본은 소년운동의 학예회에서 주요 공연되었다. 소년운동을 통해 구현된 동화, 동극에 비해 소년소설은 처음부터 독서행위를 통해 수용되었으므로 더 한층 작가적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방정환은 『동생을 찾으러』 『칠칠단의 모험』 등 장편 연재로 인기를 끌었으며, 이태준은 스토리보다 성격창조가 빛나는 소년소설들로 진가를 발휘했다. 한국아동문학은 자유분방한 주인공이 공상세계에서 모험을 즐기는 ‘피노키오 경향’보다는 현실적인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쿠오레 경향’이 압도했다. 고난극복형 서사는 어른의 기대가 앞서 투영된 결과지만, 식민지현실에 대한 자각을 주는 한편으로 사회적 보호망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았다.

4. ‘일하는 아이들’의 눈물과 주먹 : 계급주의 아동문학

식민지조선의 어린이는 온전히 어린이일 수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노동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나누어 맡았고, 근대국가를 완성할 주역으로서도 어른과 짐을 나눠야 했다. 이처럼 ‘일하는 아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식민지시대의 아동문학은 유년물보다 소년물이 더욱 발달했고 판타지보다 리얼리즘이 더욱 두드러졌다. 카프(KAPF)가 결성되고 사회주의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소년문예운동 쪽에서도 목적의식성과 계급성을 앞세웠다. 염군사 계열의 송영과 박세영이 『별나라』의 편집을 맡고, 카프작가 이주홍과 이동규가 『신소년』의 편집을 맡으면서 계급주의 아동문학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1920년대에는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 결말을 보이는 작품이 많았지만, 1930년을 고비로 탐욕스러운 지주와 공장주에 저항하면서 계급해방을 꿈꾸는 아동을 그린 작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투쟁을 앞세우다보니 ‘동심’과는 거리가 먼 증오의 표현을 남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것은 리얼리즘의 진전이

라 할 수 있겠으나, 어린이의 현실적인 욕망을 어른의 이념으로 대체한 계급주의 아동문학은 상투적인 도식에 빠져들었다.

5. 대중독자와 장르문학의 출현 : 문학주의, 전문화·세분화 경향

식민지공업화가 본격화된 1930년대는 도시화·산업화 양상이 이전 시기와는 달랐다. 감상주의와 편(偏)내용주의를 극복하려는 모더니즘의 출현도 이런 사회변동에 한 끝이 닿아 있다. 1935년 카프가 해체되고 식민당국에 의해 소년운동이 금지되자 아동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소년운동을 기반으로 해온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 등은 하루아침에 폐간되었다. 조직운동이 와해된 자리에서 개인적 교양과 입신출세주의가 고개를 들었다. 소년운동의 지도자와 아마추어 소년문사들은 뒤로 물러섰고, 숙련된 전문작가와 신춘문예를 거친 신진작가들이 앞으로 나왔다. 소년운동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잃은 아동문학은 한 손에는 ‘문학성’을 또 다른 손에는 ‘대중성’을 들고서 자력으로 아동독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조선일보사 간행의 『소년』 『소년조선일보』에는 장편판타지·역사소설·탐정소설·학생소설 등 장르문학과 연작단편이 줄을 이었다. 장편의 활동무대는 판타지공간, 과거역사, 만주와 러시아 등 해외로까지 확장되었고, 문체가 한층 세련되면서 현덕의 ‘노마 연작 동화’ 같은 명편도 나왔다.

6. 소국민문학의 굴욕시대 : 친일 아동문학

1940년대에 접어들자 태평양전쟁과 함께 전시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일본어 상용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관제 소년운동도 등장했다. 이를 배경으로 국가시책에 호응하는 ‘소국민문학’이 전개되었다. 조선일보사 발행의 『소년』은 후기로 갈수록 국책 홍보 지면과 일본어 사용이 잦아지다가 끝내 폐간되었고,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해서 일제말까지 나온 기독교 계통의 『아희생활』은 일본어를 쓰거나 노골적인 친일작품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자의든 타의든 이원수, 박태원, 김영일, 송창일, 양미림 등은 일제에 타협적인 소국민문학을 발표했다. 이 시기의 친일아동문학을 건너뛰게 되면 문학사의 연속성 문제도 가려지거니와, 문학의 정치성 문제에 대한 사려깊은 해명도 가로막힌다. 아동문학은 국가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전락하기 쉬웠는데, 이는 비단 일제 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분단시대에 더욱 극심했다. 북한의 반미주의 아동문학이나 남한의 반공주의 아동문학은 일제 말 소국민문학의 분단 버전(version)이 아닐 수 없다. 식민지 잔재의 청산은 저열한 정치성으로서의 국가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7. 새나라의 어린이 : 해방기의 아동문학운동

해방이 되고 나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동문학은 아동독자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일에도 직면했다. 해방 직후의 아동잡지는 한글교습을 병행했으며 교과서의 대용이었다. 그러한 역할의 선두는 윤석중이 주재한 『소학생』이었다. 1920년대의 『어린이』가 좌우파 모두에게 개방적이었듯이, 1930년대 후반의 『소년』도 신간회 이후 좌우합작 노선에 충실한 편이었고, 이는 해방 직후의 『소학생』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민족분단과 더불어 냉전적 질서에 편승하려는 집단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좌우합작노선은 결국 좌초했다. 제1회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카프의 적자(嫡子)임을 내세운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계열의 박세영은 조선문학건설본부 계열을 제치고 분단이데올로기에 바탕한 아동문학의 좌우파 도식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를 뒤에 송완순이 한층 정교하게 논리화하면서 분단이데올로기를 식민지시대에 소급 적용한 좌우파 도식이 고착되기에 이른다. 남북한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방정환 이래 아동문학의 중심이던 좌우합작 노선은 양쪽에서

배척되어 실상이 왜곡되거나 비주류로 가라앉는다

8. 분단시대의 주류와 비주류 : 한국문인협회와 자유문인실천협회의 대립

분단시대의 아동문학은 초등교과서와 연계되어 국민교육의 일환이자 체제동원의 도구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잘못된 지배조류를 비판하면서 민족현실과 서민 어린이에게 다가서려는 아동문학운동이 이원수와 이오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정권의 탄압과도 맞서야 했던 분단시대의 비제도권 아동문학은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민족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 서민아동에게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현실주의 색채를 이어나갔다. 이재철의 『한국현대아동문학사』(1978)는 일제시대를 ‘아동문화운동시대’로, 분단시대를 ‘아동문학운동시대’로 구분했는데, 이는 우리 아동문학의 현실주의 성격을 ‘문학 이전’의 문화인양 바라보는 순수주의 문학이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오덕은 현실비판적 아동문학의 전통을 복원하고자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맥락에서 치열한 비평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른바 ‘순수파’와 ‘사회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동시대의 작품경향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붙곤 했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론과 역사현실에 직립한 실천적인 이론 사이에 일정한 간극이 발생했다. ‘일하는 아이들’과 마주한 상황에서는 유희성이라든지 환상성의 요소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왜곡되기도 쉬웠다. 우리 아동문학의 전개를 역사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유희성과 진정성, 현실성과 환상성으로 상호대립 개념으로 파악할 위험이 있다.

9. 아이가 된 아이들 : 아동관의 근대와 근대 극복의 과제

1990년대 이후 아동문학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후퇴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도시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발달은 아동기의 삶을 새롭게 규정했다. 그에 따라 어린이책 출판시장이 폭발적으로 증대했으며, 장르와 스타일 면에서 불균등성을 노정해온 아동문학도 변화를 요구받았다. 근대성이 취약했던 탓에 온전히 발전할 수 없었던 유아유년 대상의 아동문학이 급속히 떠올랐다. 낮은 연령으로 내려갈수록 유희성과 환상성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오늘의 아동문학은 예전 같으면 절박하게 느끼지 않았을 게 분명한 근대의 새로운 억압기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붕과 가족해체 등의 문제현상은 근대의 가치관으로 해결될 리 만무하다. 세대 간 소통을 둘러싼 문제 또한 가법지 아니하다. ‘즐거움’보다는 ‘현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먹이는 계몽의 발상에는 억압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 아동문학에 부족한 전복과 일탈의 상상력이라든지 판타지·난센스·패러디·유머 등 그동안 억제되었거나 주변부로 여겨졌던 요소들을 재발견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10년, 우리 어린이 문학은 무엇을 이야기해 왔나?¹⁾

조은숙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1. 지난 10년을 생각하다

‘10년’은 대개 어떤 변화를 점검해 보기에 적당한 시간 단위가 되는 듯하다. 십진법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10년은 손꼽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간이며, ‘한 10년쯤’이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흔히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최근 10년’의 변화는 우리 경험과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도리어 그 공과를 잘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갓 지난 10년은 아직 ‘역사’가 되기 전의 날 것으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의 자취를 되돌아보려는 것은 바로 “10년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되고, 20년을 꾸준히 하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꾸준히 하면 역사가 된다.”는 말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이 말에 기대어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어설픈 약도라도 그려보고자 하는 것은, 향후 20년, 30년 우리 아동문학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다.

이 발표에서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를 ‘지난 10년’의 범주에 넣어 우리 어린이문학의 변모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문학의 과제를 함

1) 본 원고는 2013년 6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한 “독서문화포럼 : 책, 어린이, 도서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임

께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2. 2000년 전후! 아동문학, 문턱을 넘다

흔히 역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비유되곤 하지만, 실상 역사에는 수많은 ‘끊임’이 존재한다.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새로운 사건들이란 오래 단절을 만들어 내게 마련인데 다만 우리는 그 불연속의 지점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함으로써 연속하는 일련의 시간을 가상할 따름인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 아동문학사를 돌아볼 때, 1990년대부터 2000년을 전후한 시기만큼 문학사적 전환이 크게 이루어진 때도 드물어 보인다. 앞당겨 말해 보자면, 지난 10년은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난 전에 없던 커다란 단절과 급격한 변환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대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영토를 풍요롭게 하고 확장시키는 소임을 맡은 때였다고 할 수 있다.

확실히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우리 아동문학의 변화는 격한 단절을 느끼게 할 만큼 비약적였다.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문턱’이 만들어진 기간이라고나 할까. 사회 전반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아동도서 출판은 전에 없던 호황을 누렸으며 기획력을 갖춘 어린이책 출판사들이 속속 등장하여 아동도서 출판의 봄을 이끌었다. 이전의 아동문학과 선을 긋는 도전적인 작가와 작품이 다수 출현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문학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는 비평 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린이도서연구회 등의 시민단체에서 독서와 아동문학에 관심을 갖는 어른들이 늘어나면서 아동문화 전반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역동적인 실천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각계의 실천은 소위 ‘한국 아동문학의 르네상스’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눈에 띄는 성과를 내었으며, 2000년대의 아동문학의 밑자리를 만들어 냈다.

2000년을 전후해서 문학사가 기억할 만한 굵직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략

꼭아 보더라도, 『내 짝꿍 최영대』(채인선, 재미마주 1997) 『나쁜 어린이표』(황선미, 사계절 1999), 『까막눈 삼디기』(원유순, 웅진주니어 2000), 『문제아』(박기범, 창비 1999), 『학교에 간 개돌이』(김옥, 창비 1999), 『너도 하늘말나리아』(이금이, 푸른책들 1999), 『깽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창비 2000),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사계절 2000), 『수일리와 수일이』(김우경, 우리교육 2001), 『고양이 학교』(김진경, 문학동네 2001-2007)와 같은 작품들을 떠올릴 수 있다. 200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최근 10년의 아동문학은 이들 작품이 열어 놓은 새로운 대지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3. 지난 10년의 주요 경향

따라서 지난 10년은,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 초를 전후하여 만들어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서 21세기 아동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받아 안은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의 궤적에서 눈에 띄는 경향은 크게 보아 ‘어린이의 현실에 대한 이해 변화’, ‘창작 경향의 다양화’, ‘그림책과 청소년소설의 부상’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어린이의 현실에 대한 이해 변화

2000년을 전후하여 가장 치열했던 논쟁 중 하나가 ‘아동관’에 관한 것이었다. 가라타니 고진이나 필립 아리에스의 이름이 거론되고 아동의 ‘탄생’ 혹은 ‘발견’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이어 우리 아동문학과 아동관의 근대적 기원을 묻는 탐문이 이어지면서 아동문학에 잠재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인식을 새삼스럽게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특히 2000년을 전후하여 김이구(「아동문학을 보는 시각: ‘일하는 아이들’ 이후의 길」, 『아침햇살』 1998 여름호), 원종찬(「한국 아동문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 어린이도서연구회 20주년 기념 세미나〉 2000.4) 등은 지난 우리 아동문학이 소위 가난하고 어려운 농촌 지역의 소위 ‘일하는 아이’들로 상징되는 아이들을 향한 현실주의 문학에 편중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그것은 전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의의가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아이들의 현실 상황이 지난 시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므로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기존 아동문학의 문법을 갱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반박과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 대응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아동문학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제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 공유되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즉 이때

나온 동심주의, 교훈주의, 감상주의, 소위 속류사회학주의 등을 극복해야 한다든지, 아동문학 작가들이 타성에 젖지 말고 지금의 아이들의 현실과 감수성을 살피기에 부응하는 창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유효해 보인다.

황선미, 박기범, 김중미, 채인선, 김옥과 같은 작가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서 부각되었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황선미 『나쁜 어린이표』의 ‘건우’는 일상 속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통해 교실 내 권력 문제를, 박기범 『문제아』의 ‘나’처럼 문제아로 낙인 찍힘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을 폭로하는 인물들로 2000년대 아동 캐릭터의 한 모델을 제시한 작품들이었다. 김중미의 『팽이부리말 아이들』은 모 방송 독서 권장 프로그램에서 홍보됨으로써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그 자체 아이들의 경험을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주의 작품이 지향해야 할 바를 보여준 작품이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최나미, 이현, 유은실 등은 우리 시대 아동 캐릭터에 대해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작가들이다. 최나미는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사계절 2005)에서 지금까지 우리 아동문학에서 희생과 배려의 캐릭터로만 등장하던 ‘엄마’의 도발적인 자기 찾기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진취 바이러스』(우리교육 2005), 『걱정쟁이 열세 살』(사계절 2006)에서 까칠하고 쿨한 신세대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점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작품에는 유독 13살의 6학년 아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계에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들 ‘사춘기 초딩’들은 2000년대 아동문학에서 계속 호출되었으며, 이들은 혼돈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권위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현의 단편 「움직이는 성」(『짜장면 불어요』, 창비 2006)에는 사춘기 아이들의 달콤하고도 알싸한 첫 사랑의 느낌이 잘 포착되어 있으며, 유은실의 단편 「내 이름은 백석」, 「만국기 소년」(『만국기 소년』, 창비 2007)에는 삶의 아이러니를 목도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서사 전체를 고민하게 만들었으며,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는 그 이후 동화의 색깔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동화에서 아이들의 주체화 문제와 관련한 작가들의 해결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문제 해결의 중심에 어린이를 놓는 방법이다. 성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화제가 되었던 이금이의 청소년소설 『유진와 유진』(푸른책들 2004)의 경우 어른들의 성인 독자의 의식을 반성하게 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은정의 『안녕, 그림자』(창비 2011)에 이르면 이제 피해자인 아이들 스스로를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로 내세우고 있어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 추이를 엿보게 한다. 둘째, 아이와 어른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방식이다. 2000년대 아동문학 작가들에게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었던 말 중 하나는 예컨대 “내 안에 아이 있다.” 정도가 아닐까. 아동문학이 아동을 ‘위한’ 것이고, 아동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르치고 이끌려고 하는 어른들의 노파심을 경계하면서, 성장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역설되었다. 예컨대 유은실의 단편 「할아버지 숙제」나 「새우가 없는 마을」(이상 『만국기 소년』), 장편 『마지막 이벤트』(바람의 아이들 2010)에 그려지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훌륭하거나 자랑스럽지 않다.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등장하곤 했던 이전 동화의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다. 그 대신 주정뱅이이거나 바람둥이였을, 과장된 허풍과 순진하리만치 물질에 어두운 결점 많은 이 할아버지들은 보다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용포의 『태진아 팬클럽 회장』(푸른책들 2007), 강정연의 『심예분 여사』(시공주니어 2008)도 열정적이며 발랄한(?) 할머니들을 등장시킨 바 있다.

둘째, 창작 경향의 다양화

2000년대에는 출판사마다 공모전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고 원고를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공모전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더 차분히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일단 신인들이 문학활동을 시작하거나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는 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문학 활황기에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들 일군의 작가들은 이전 선배 작가들에 비해 동화를 창작하는 일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아동문학의 ‘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무엇을 쓰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들 작가는 이전의 동화에 비해 세련된 문체와 다양하고도 섬세한 현실 포착 능력, 밀도 있는 서사적 짜임 등을 보여주면서 동심주의나 교훈주의를 극복하고 동화의 새로운 문법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은 동화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흔들어 놓기도 하였고, 아동문학의 독자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2000년대 중반 소위 ‘동화의 소설화 경향’이라는 표현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엇갈리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안미란의 『너만의 냄새』(사계절 2005), 이현의 『삼일 간』(『짜장면 불어요』), 김남중의 『자존심』(창비 2006), 박관희의 『힘을, 보여주마!』(창비 2006), 유은실의 『만국기 소년』(창비 2007) 등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타겟독자로 하여 출판된 동화(아동소설)들이 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작품은 인물들의 교차 시점, 세련되고 밀도 있는 문장, 아이러니한 상황과 표현과 같은 서술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두운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준대거나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독자들을 배반하고 아이러니나 환멸을 느끼게 하는 결말을 보여주었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동화의 소설화 경향’ 논쟁은 현상적으로는 아동소설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과 같은 서사문법과 현실에 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독자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동화의 정체성과 동화는 어떠한가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새로운 작가와 작품으로 인해 위협받게 된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무의식적 반감이 징후적으로 표

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아동문학의 기대 지평은 현저하게 이동하게 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장편 판타지, 옛이야기를 활용한 창작동화, 추리, 에스에프, 호러, 역사동화 등 현실동화 주변에 머물러 있던 장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시대 아동들의 환경과 감수성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모방 재현의 현실동화만으로는 독자와의 소통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판타지는 2000년을 전후하여 ‘환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힘입어 이론적 담론이 가속화되었고, 판타지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부작 11권으로 출간된 김진경의 『고양이 학교』(문학동네)는 국내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린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김진경은 서구의 판타지를 맹목적으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아시아 신화를 바탕으로 ‘한국형 판타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김우경의 『수일리와 수일이』(2001), 공지희의 『영모가 사라졌다』(비룡소 2003)는 우리 아동의 현실을 비추는 환상의 모티프와 공간을 창출한 의의가 있다. 최근까지도 『지구에 없는 마을』(최양선, 창비 2012), 『황금 깃털』(정설아, 문학과학지성사 2012), 『시간 가게』(이나영, 문학동네 2013)와 같은 판타지 작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의 동화가 판타지의 시공간을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는 알레고리나 상징의 공간으로만 붙들고 있는 점은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로 여겨진다. 판타지란 현실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현실 너머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질서를 상상하게 하는 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창작 경향은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전래하는 옛이야기의 세계에 오늘의 창작 동화를 잇대고자 하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임정자(『물이, 길 떠나는 아이』, 문학동네 2005), 임어진(『이야기 도둑』, 문학동네 2006) 등은 옛이야기 서사를 토대로 현대적 주제를

담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샘마을 몽당 깨비』(창비 1999), 『수일리와 수일이』로부터 이성숙의 『달이, 구만리 저승길 가다』(한겨레아이들 2009), 보린의 『귀서각』(문학동네 2011)처럼 도깨비나 귀신, 사람으로 둔갑한 쥐, 이무기, 마고할미 등 우리 옛이야기의 캐릭터나 모티프를 활용한 작품들도 우리 동화가 꺼내 쓸 수 있는 넉넉한 환상의 공간인 옛이야기의 힘을 보여준 작품들이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추리 탐정물이나 과학소설 등 장르서사의 문법을 활용한 작품들도 많이 눈에 띈다. 한정기의 『플루토 비밀결사대』(비룡소 2005)를 비롯하여, 정은숙의 『봉봉 초콜렛의 비밀』(푸른책들 2008), 고재현의 『귀신잡는 방구탐정』(창비 2009), 김선정의 『최기봉을 찾아라』(푸른책들 2011) 등은 추리적 서사 기법을 동화에 접목시킴으로써 방정환, 김래성 등 일제강점기의 몇몇 작품 이후 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탐정동화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최근 이현의 『로봇의 별』(푸른숲주니어 2010)은 SF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럽게 환기시킨 작품이다. SF의 상상력은 어린이 환상 서사의 영역을 다채롭게 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00년대의 역사동화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상력의 폭을 확장시켜, 창작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상상력은 언제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를 살아갔을 어린이들을 상상력으로 불러내는 이러한 역사동화의 변신은 일단 우리 시대 독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 같다. 특히 배우안의 『초정리 편지』(창비 2006), 김소연의 『꽃신』(주니어파랑새 2008), 이영서의 『책과 노니는 집』(문학동네 2009), 한운섭의 『서찰을 전하는 아이』(푸른숲주니어, 2011)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은 추후 역사동화의 향방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만한 하다.

한편 이러한 동화의 역동적인 변모에 비한다면, 동시의 갱신을 위한 활력은 한

걸음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최승호, 신현림, 최명란, 안도현, 도종환, 김용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를 쓰던 작가들이 대거 동시집을 출판하게 된다. 이에 자극받으면서 이러한 추세에 대한 찬반의 태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시인이냐 동시인이냐 하는 구분은 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다. 오히려 새로운 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동시 창작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안, 김제곤, 김찬곤, 김환영이 동인이 되어 발간한 격월간 동시잡지 『동시마중』(2010.5)은 동시쓰기의 고민을 집약하여 창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고 있다. 2010년대 동시 비평의 초점은 동시와 어린이시의 구분(김찬곤, 「동시는 왜 있나」, 『동시마중』 1호)이나 어린이화자를 선택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이지호, 「동시를 버려야 동시가 산다」, 『동시마중』 3호)를 제기한 비평들처럼 동시의 근본적인 성격과 창작의 방식에 대한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셋째, 그림책과 청소년소설의 부상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분야는 그림책과 청소년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림책 단행본 시대가 열렸고, 김재홍, 권윤덕, 이억배, 정승각, 이호백, 이영경, 이태수, 김환영과 같은 작가들이 그림책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바야흐로 창작 그림책 작가와 작품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높게 평가받게 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그림책이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의 라가치상, 브라티슬라바 국제원화전회회가 주관하는 BIB(Biennial of Illustrations Bratislava) 황금사과상 등과 같은 국제적인 큰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이호백의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재미마주 2000), 류재수의 『노란 우산』

(재미마주 2001), 한병호의 『새가 되고 싶어』(시공주니어 2004), 김재홍 『영이의 비닐우산』(윤동재 글, 창비 2005) 이수지의 『파도야 놀자』(비룡소 2009, *미국 출판사 'Chronicle Books'에서 2008년에 영어로 먼저 출판됨), 유주연의 『어느 날』(보림 2010), 조은영의 『달려 토토』(보림 2011), 폴란드 작가인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가 그림을 그리고 김희경 글을 쓴 『마음의 집』(창비 2011) 등은 해외에서 인정받은 그림책들이다. 2000년대 우리 그림책의 비약적인 성장은 세계와 동시적으로 소통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와 함께 하는 것은 단지 국제적인 상을 수상한다거나, 외국에 판권 수출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며, 상호 이해 속에서 공존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세계와 함께 호흡한다는 말이 실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그림책'을 기획하여 세 나라에서 함께 출판해 나고 있는 점은 매우 유의미한 연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그림책 작가 중에서는 권윤희, 이억배, 김환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 권윤희의 『꽃할머니』(사계절 2010), 이억배의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사계절 2010)이 나왔으며, 중국 작가 야오홍의 『경극이 사라지면』(사계절 2011), 일본 작가 하마다 게이코의 『평화란 어떤 것일까?』(사계절 2011), 다시마 세이조의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사계절 2012)가 번역되었다. 이제 우리 아동문학은 세계아동문학의 보편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제 몫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2000년대의 특기할 사항으로 청소년소설의 붐을 중요한 현상으로 꼽을 수 있다. 청소년소설은 1990년대 후반 사계절 1318문고의 박상물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이 물꼬를 트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경혜의 『어느 날 내가 죽었습니다』(바람의 아이들 2004), 신여랑의 『몽구스 크루』(사계절 2006), 정유희의 『내 인생의 스프링캠프』(비룡소 2007), 이현의 『우리들의 스캔들』(창비

2007), 『열일곱 살의 털』(사계절 2008), 『위저드 베이커리』(창비 2009) 등의 작품이 나옴으로써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소설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 준 것은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완득이』(김려령, 창비 2008)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완득이』로 대표되는 청소년소설의 약진은 비단 아동청소년문학장에서만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 지형의 변동의 징후처럼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청소년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이 각계에서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청소년문학의 정체성을 미심쩍은 눈길로 바라보기도 했다. 청소년소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동소설(소년소설)’의 계보에 닿아 있으며, 서사구조 상으로는 ‘성장소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청소년소설이 기존의 명명을 따르지 않고, 새로 ‘청소년소설’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여 자리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 시대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미성년 독자들의 문화적 공백을 절감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입시에 쪼들고 미성년의 굴레 속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문화적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청소년소설’이라는 명칭에는 깃들여 있다. 청소년소설의 장르적 성격의 규명은 미리 선형적으로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다. 명칭 자체의 함의는 아직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수많은 작가들이 청소년소설들로 가는 길을 밟아 나가는 실천 속에서 한국 청소년소설로 향한 경로가 뚜렷하게 밝혀질 따름일 것이다.

4. 다음 10년을 기대하며

거칠게나마 10년을 돌아보니 2000년을 전후하여 만들어 진 아동문학의 새로운 영토를 풍요롭게 하고 확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느껴진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동문학의 문학적 수준의 문제가 거론되곤 했지만, 10년을 거치는 동

안에 작가들의 역량은 크게 향상되어 안정적인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또한 비록 성과는 미약했는지라도 판타지 장르를 실험하거나, 옛이야기의 전통을 우리 창작동화의 비옥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 추리나 SF, 역사소설의 문법들을 동화에 적용시키며 다채로운 형식의 작품을 창작하고자 시도했으며, 무엇보다 작가들은 이 시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현실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림책이나 청소년소설과 같이 주변부에 밀려 있었던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낸 것도 지난 10년의 빠뜨릴 수 없는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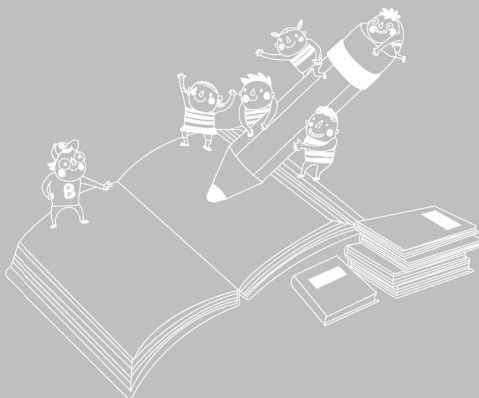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 하기는 했으나 충분치 못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마침 바로 몇 달 전, 우리 아동문학의 미래를 말해보는 자리가 있었다.(<특집: 한국 아동문학의 미래를 상상한다> 『창비어린이』 2013 여름호) 그 자리에서 나온 제안들은 하나로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했다. 그 중 몇을 옮겨 보자면, 혹자는 “공포와 절망으로부터 상상을 지켜줄 수 있는 탄력적인 인물”을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어린이가 있는 시간이 언제나 동화의 배경”으로 가져올 것을 비롯해서, 성과 사랑, 자본에 포섭될 수 없는 삶의 가치, 어린이들의 고립감 등에 관심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김지은)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아동문학이 “점차 가볍고, 얇고, 짧고, 자잘해져” 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박한 공동체의 삶과 아동문학의 본질적인 이야기성을 회복할 것을 요청했다.(박숙경) 여기에 나 또한 지구화 시대에 어린이편에서의 연대와 실천으로 세계문학의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자, 미래의 우리 아동문학에 또 어떤 희망과 전망을 보낼 수 있을까. 지난 10년을 돌아보아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들은 없었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아쉬움에 잇대어 아동문학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자.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2부 서평, 목소리가 들린다.

- 그림책 서평
 - 동화책(동시집) 서평
 - 지식정보책 서평
-



그림책 서평

구름빵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떨떨선생여행기	박규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꿈꾸는 꼬마건축가	양유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나는 농부란다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나는 누구일까?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나는 뽀글머리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나무친구 이야기	손셋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나의 엉뚱한 머리카락 연구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내 뽀스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눈	손셋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다복이	최미화	(하남시 나눌도서관)
더 놀고 싶은데	김윤진	(하남시립도서관)
떼루떼루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	맹진아	(안성시 중앙도서관)
라두아저씨가 남긴 선물	이지연	(안성시 중앙도서관)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	박지예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박부자네 가훈은 대단해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방귀쟁이 며느리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새콤달콤 색깔들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섬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세계와 만나는 그림책	조수연	(수원시 영통도서관)
숨어 산 아이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신기한 목탁 소리	한선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심술쟁이 니나가 달라졌어요	홍미정	(화성시 동탄문화복합센터)
아빠에게 가는 길	이지연	(안성시 중앙도서관)
안녕 나마스테!	양유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앗, 깜깜해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엄마 꿈속에서	김윤진	(하남시립도서관)
여우 제삿날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여우 제삿날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워거즐튼무아	신정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 작은 책을 펼쳐봐	양유진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이야기 기차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작은새	조수연	(수원시 영통도서관)
쪽매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찰리가 엄마에게 혼날 땐?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책보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책보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천년을 산 상수리 나무	김미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손셋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파란 물고기	박지예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파란 물고기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허허 할아버지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화가 나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동실 동실 구름빵 먹고 떠볼까?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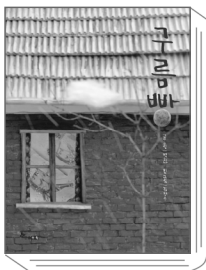
구름빵.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큰 감동은 아니었다. 한참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이 떠서 다양한 매체로 나올 때 있었는데, 그냥 전성으로 봤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구름빵 시리즈부터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로 열풍을 일으킨 구름빵의 원전을 보았다. 2007년에 출판된 것으로 일러스트가 약간 색달랐다. 대부분이 삽화로 그렸는데 이 책은 종이 인형을 잘라 삽화에 삽입해 사진을 찍은 독특한 기법이었다.

‘비바람이 치는 밤에 잠 못드는 우리 주인공 양이는 동생을 깨워 산책을 나갔다가 가지에 걸린 구름을 건어와 엄마에게 구름빵을 만들어 달란다. 엄마는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여 구름빵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둥 둥 떠다닐 수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난 이 장면이 백미인 것 같다. 천정에서 바라본 떠있는 듯 한 구도는 우리가 아플 때 꿈속에서 봤을 법한 상상의 장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어질한 느낌이 바로 책 속에 빠지게 하는 상상의 마법이 있는 그림이었다.

비오는 날은 날이 어두워 지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잘 잡아 표현하고 있다. 아빠의 지각!.. 아침식사를 거르고 가족을 위해



구름빵
백희나 글, 그림,
한솔수북, 2007

허겁을 하고 뛰어나가는 모습은 안쓰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다. 아빠가 식사를 못하고 가신게 걱정이 되어 아빠에게 구름빵을 건네주고 복잡한 차안을 빠져나와 무사히 회사에 들어가시는 모습에 독자에게도 안도감을 주며 동실 동실 떠다니는 것의 효과를 극대화 해 주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새삼 행복을 느낀다.

그림책을 채 몇 장 넘기지 않았음에도 내용에 빠져 들게 만드는 작가가 궁금해졌다. 백희나 작가는 이화여대 사범대 교육공학과 졸업하시고 CAL Arts 캐릭터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실력으로 팔죽할멈과 호랑이, 비오는 날은 정말 좋아, 장수탕 선녀님 등 다수가 있으며, 2005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에서 구름빵으로 수상을 했다.

저력 있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나 재미있고, 궁금하고, 신기했을까?

박규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사서

결결선생이 누구일까?

이 책의 주인공 결결선생은 ‘열하일기’로 유명한 박지원이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누구든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열하일기’가 무엇이기에 그리도 유명한 것일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 열하(현재 중국의 하북성 승덕)라는 지역에 다녀온 일종의 기행문이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지만 ‘열하일기’가 나왔을 때의 조선에서는 국외를 나가보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이었다. 현재의 중국도 엄청 넓고 인구도 세계 1위인 대국이지만 200년 전의 중국(청나라)은 자칭 세계의 중심이었으며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보고 받들어 모시는 그런 나라였다. 따라서 그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 수도 북경이며 중국황제의 여름 휴양지라는 열하를 다녀온 기행문이 얼마나 재미있고, 궁금하고, 신기했을까?

그 당시에는 열하일기를 붓으로 베낀 필사본이 넘쳐났으며, 그 책을 읽고 싶어 서 안달이 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금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마찬가지로 대단하다. 허나 이 책을 제대로 읽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두껍고 어린이들이 읽기에 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그래서 작가가 열하일기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결선생 여행기이다.



결결선생 여행기
김기정 글, 최미란 그림.
해그림

열하일기 속에서 박지원은 국경인 압록강을 넘으려다가 붙어난 강물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기도 한다. 밤에는 사신 일행에서 몰래 빠져나가 중국인들과 글을 써가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북경의 책방이 모여 있는 상가에서는 그 규모에 놀라서 기겁하기도 한다. 하인과 말잡이와 생이별을 하기도 하고 만리장성을 마주하고는 성벽에다가 ‘조선선비 박지원 여기를 지나가다.’라고 낙서를 하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과 재미난 이야기 거리가 넘쳐난다.

원문으로 읽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열하일기’와 박지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게 해주는 책이다. 박지원을 읽고 비로소 글 쓰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는 작가 김기정이 쓰고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등으로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 온 최미란이 그렸다.

박지원은 1737년 한양의 이름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고, 16세에 결혼한 이후 좋은 스승을 만나 학업에 전념하였다. 18세 때 ‘광문자전’을 썼고, 20대 초반부터 ‘양반전’, ‘민옹전’, ‘예덕 선생전’, ‘김신선전’ 등 여러 단편 소설을 썼다. 박지원의 뛰어난 글재주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30대 초반에 백담 근처로 이사하여 홍대용, 정철조, 이서구,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등과 가까이 지냈다. 이들은 자나 깨나 백성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실학자들이다. 박지원은 북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이끌며 선비들에게 영향을 끼

쳤다. 1780년 팔촌형 박명원이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이 되어 청나라를 방문하게 되었고, 박지원은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돌아와서 3년쯤 뒤에 [열하일기]를 완성했다.

200년전 조선시대 우리 조상이 본 중국은 어떠했는지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다.

아이와 함께 미술관 나들이

양유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사서

아이들은 만들기를 좋아한다. 휴지심, 박스, 포장지, 끈 등 생활에서 발견하는 재료들을 발견하면 어느새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 가끔 어른들은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어른들의 사고와 잣대로 평가하고, 아이들의 세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평가보다는 함께 즐기고, 아이들의 유연한 사고를 키워줄 수 없을까.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은 건축, 디자인, 회화, 조각 등 15만 점 이상의 근현대 예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뉴욕커의 표지를 10번이나 그린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프랭크 비바는 그림책 〈꿈꾸는 꼬마 건축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가 볼 만 한 장소로 MoMA를 추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손자와 할아버지, 그리고 개 한 마리가 꼭대기 층에서 함께 살고 있다. 할아버지는 건축가였고, 손자는 만들기를 좋아하는 자칭 꼬마건축가다. 이름은 둘 다 프랭크다.

손자 프랭크는 휴지심, 책, 강아지 등 온갖 재료로 만들기를 한다. 손자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축이념으로 아이의 작품을 평가한다. “애야, 건물은 반듯해야지. 비틀어지거나 구불거리면 안 돼.” 매번 잔소리하는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손자는 선언한다. “할아버지, 저 이제 건축가 안 할래요.” 상심한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미술관에 가서 건축 작품을 함께 보자고 제안한다. 미술관에서 구불구불한 의자, 비틀린 모양의 고층 건물 등을 보면서 프랭크보다 할아버지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꿈꾸는 꼬마건축가

프랭크 비바 글, 그림, 장미란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3

이 책은 미술관의 존재이유를 재미있게 전달해주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기성세대들에게는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전환을 일으키는 전환점을 제시한다. 또한 세대 간의 소통을 이어주고, 함께 더 큰 꿈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미술관 관람을 권유한다. 더불어 뉴욕현대미술관을 소개하며, 그림책에서 프랭크와 할아버지가 본 작품들과 작가들을 소개하며 웹사이트 “www.MoMA.org” 방문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그림책을 읽고 나면 현대미술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끔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볼거리 가득한 미술관 나들이를 하면 어떨까? 뉴욕현대미술관은 멀지만 과천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 멋진 자연 속에 위치한 이 미술관에는 어린이 미술관도 있다. 이 책과 미술관 덕에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아이와 함께 즐기며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보자.

때를 아는 사람, 농부 그리고 일과 사람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도로시 버틀러는 「쿠솔라와 그림책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림책은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였다. 그림책은 어른들이 들려주는 글과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을 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사계절 출판사가 「일과 사람」시리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그림책과 글 정보가 조화로운 시리즈물이다. 유아부터 초등 전 학년이 읽는 책인 경우 글 밥이 많으면 그림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과 사람」은 주제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그림과 정보가 잘 어우러진다.

시리즈 9편 「나는 농부란다」는 이러한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는 책이다.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윤엽 삼촌의 판화로 보는 세상’의 이윤엽이 쓰고 그린 책이다.

이 책은 선 굵은 판화로 농부들과 우리 들판의 사계절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생명을 기르는 땅으로 시작하여 ‘때를 아는’ 농부들의 고단함은 몸빼바지와 선그라스로 무장한 어르신의 모습에 웃음으로 녹아든다. 생명을 기르는 땅과 농부의 조근조근 이야기가 판화의 힘찬 들판과 어울려 묘하게 조화롭다. 2쪽 전면으로 보여주는 가을걷이 직전 타오르는 붉은 태양과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의 모습은 노동의 고단함이 삶의 에너지로 승화됨을 보여준다.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안성에 살면서 이웃 농부들에게 물어 스스로 먹을 것을 생산하는 작가의 진정성이



나는 농부란다

이운엽 글, 그림.

사계절. 2012. (일과사람 09.)

* 추천대상 : 6,7세부터 모든 연령

보인다. 특히 권말에 ‘농사일 더 알아보기’, ‘농사는 모든 일의 뿌리’등의 꼭지는 지식정보책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일과 사람」의 또 다른 장점은 특정 주제로 묶인 책들이 통일성을 넘어 획일화로 가 버리는 위험을 피해 각 책마다의 개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중국집 요리사가 나오는 1편 이혜란의 「짜장면 더 주세요」는 요리할 때 나는 소리를 읽는 재미와 동네의 재발견, 아버지의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발바닥은 「일과 사람」시리즈가 지향하는 노동과 삶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준다. 5편 어부 「영차 영차 그물을 올려라」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의 나누며 사는 모습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부들이 잡는 어종이 달라지는 모습을 섬세하게 포착하였다.

「일과 사람」의 세 번째 장점은 대부분의 직업 안내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할 때 현실 직업의 고단하지만 탄탄한 건강함을 펼쳐 보인다는 것이다. 동네 주민들의 주치의인 ‘의사’, ‘한의사’를 보여주며 ‘버스 기사’, ‘우편 배달부’, ‘목장 농부’, ‘채소 장수’, ‘환경운동가’를 비롯하여 ‘패션 디자이너’, ‘뮤지컬 배우’, ‘책 만드는 사람’ 등 현실의 여러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국회의원’, ‘기자’ 등도 함께 다루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린 책을 보며 아이들은 무엇이

될까와 더불어 ‘어떤 내용으로 일상을 꾸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과 사람」시리즈에는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중국집 요리사가 나왔던 동네를 채소 장수가 다니는 등 동네 가게와 상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우린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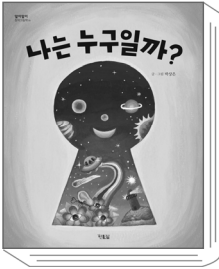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 헤매던 고양이 “까망이”가 가슴에 보물을 가득 품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과정을 열쇠구멍을 소재로 전개한 발상이 기발한 그림책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펼쳐놓은 이야기 장면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의 무궁무진함을, 밝고 화려한 색채의 그림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까망이는 고양이의 폭신평신했 발바닥, 얼룩말의 줄무늬, 별새의 아름다운 깃털이 부러운데 비해 자신의 좋은 점은 알 수가 없어 ‘볼 수 있는 나무’, ‘들을 수 있는 나비’, ‘말할 수 있는 파도’를 만나 물어보지만 모두 묵묵부답이다. 실망한 채로 되돌아온 까망이에게 답을 준 것은 바로 황금열쇠를 물고 온 새 한 마리, 그 새가 까망이에게 열쇠를 갖다 대자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가 열린다. 까망이는 바로 보물 상자의 열쇠 구멍이었던 것이다.

백사장 곳곳에 있는 물음표, 심지어 까망이의 눈동자에도 물음표가 그려져 있어 궁금증이 얼마나 절실한 지 알 수 있다. 고양이 발바닥에서 푸근함을 느끼는 까망이의 모습,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얼룩말의 줄무늬를 그려보는 까망이의 표정 등 까망이가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까망이 눈동자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나는 누구일까?

박상은 글, 그림.

현복스. 12,000원. 2013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펼쳐지는 대담한 색채가 그림책을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환하게 한다. 또한 눈이 그려져 있는 나무, 귀모양의 나비, 입술이 그려져 있는 파도 등은 우리 아이들이 상상의 나라를 펴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해서 상처받고 길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되어 자존심이 꺾이는 현실에서 자존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야기는 전개되지만 어른이 보아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부모가 아이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좋은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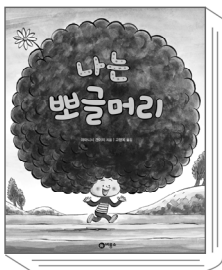
더럽고 불편해 보이나요? 내 머리카락 속 나라가 얼마나 멋있다구요.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주인공 코모리는 아기였을 때부터 목욕하는 것도, 머리 깎는 것도 무지무시 싫어한다. 코모리는 머리를 깎지 않았을 때 좋은 점을 열거한다. 작은 새가 앞기도 하고 겨울엔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쓰고, 간식을 먹다 던져두었다. 배고플 때 꺼내 먹기도 하는 등 여러 가치를 나열한다. 솔직히 여기까지 읽었을 땐 어린이가 아닌 어른 잣대로 봐서인지 얹히고 썩킨 코모리 머리 상태에 더럽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아, 어른의 눈으로 책을 보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다.

나또한 어릴 때 머리 깎는 것이 무지무시 싫었다.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미용실에 가면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난다. 코모리와 달리 내가 머리 깎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 머리를 깎을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간지럽고 따갑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머리 자를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어린 나에겐 고역이었다. 머리 자른 후의 내 모습은 더더욱 싫었다. 당시 엄마는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 때문인지, 머리를 이쁘게 묶어주는 것이 힘들어서 인지 여자아이인 내 머리카락을 사내아이들처럼 짧게 깎아줬었다. 내가 엄마가 되어 내 아이들도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던 것을 생각해보면 세대가 변하여도 어린이들에게 머리 깎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뽀글머리

야마니시 겐이치 글, 그림.
비룡소

이 책은 그런 어린이들의 심리를 포착하여 쓴 것이다. 코모리가 머리를 깎지 않아 머리가 너무 커져버려서 맞는 모자도 없고, 무거운 머리때문에 아침에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도망가다 넘어지기까지 했다. 넘어져 머리가 거꾸로 서버린 코모리는 머리카락 속에 처박히고, 머리카락 속에는 쥐들은 코모리의 머리카락을 나라로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코모리가 버린 간식과 장난감으로 쥐들이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걸 보니 코모리는 더욱 즐거웠다. 머리카락나라에서 쥐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며 보냈다. 어느 날 코모리의 지독한 방귀로 숨이 막힌 쥐들은 코모리의 머리카락을 갇아 코모리를 쫓아내었다. 머리카락이 짧아진 머리로 쫓겨난 코모리는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고 부모님은 짧아진 코모리 머리에 반기고 코모리도 달라진 모습에 만족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잠시나마 어릴 적 감정을 되살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 경험을 작가가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려낸 것으로도 상상력이 기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본 전국의 국제 학교 학생들이 뽑은 벚꽃 메달을 수상한 작품이 되었나보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손셋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세상에 모든 나무들은 우리 눈에 휴식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일 것이다. 그렇다면 두 팔 벌려 가득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한 아름의 나무는 어떨까? 아마도 이런 나무를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어린이는 분명 나무만큼 커다란 꿈을 꿀 것만 같다. 여기 한 아이와 나무의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을 통해 우정, 슬픔, 그리움, 삶의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었대. 내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부터”

주인공인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있던 나무를 친구라고 소개한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일 것처럼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변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 아이는 행복하다.

“나무와 함께라면 난 모두 찾을 수 있어.”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동산에 모여 있는 친구도, 빨래터의 엄마도 한 눈에 훤히 그리고 멀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단다. 아이의 시선을 통해 본 마을은 오밀조밀 모여 있다. 작아진 사람들과 저 멀리 커다란 세상을 마주한 아이는 멀리 보는 만큼 커다란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도 사람을 좋아하는 듯 우리 가족이 장을 보러 갈 때면 멀리까지 배웅도 해준다. 여름이면 나무 아래서 소나기를 피하고, 햇볕 쨍쨍



나무친구 이야기

강경선 글, 그림.

길벗 어린이. 2012.

무더운 날에는 나무 그늘 아래 낮잠도 자고, 가을이 되면 우수수 떨어진 낙엽을 모아 태우는데 그 냄새가 참 좋아,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나무와의 헤어짐에 맞닥뜨리게 된다. 아빠 친구가 나무를 자르러 오셨단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다가온 이별에 아이는 멍하니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독자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하는 장면, 아이의 상실감이 그대로 전해오는 듯 내 마음도 아팠다.

흔적만 남아 있는 나무 밑동 위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아이는 나무의 마음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다.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이 책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 아이는 이별의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멋진 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인사하자. 고마웠어. 나무 친구. 잘 가. 내 친구.”

여기서 또 한번 눈물이 핑.

작가는 글의 마지막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사라진 것들은 함께했던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머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누구나 살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그런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간직된 아름다운 기억들은 두고두고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내는 힘이 될 것이다. 도심 속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촌 풍경을 솔직 담백하게 담은 그림들이 참 순수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다.

관찰을 통한 머리카락 재미있게 알아보기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나의 엉뚱한 머리카락 연구」에서 작가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관찰하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머리카락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행복한 관찰 그림책”이라는 부제처럼 작가는 작가 자신, 작가의 부모님,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관찰한 머리카락 모양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한다. 또한 수녀와 같이 머리카락을 가린 직업과 종교, 나이가 들었을 때의 머리카락의 모양뿐만 아니라 미용실 안에서 파마할 때의 장면들을 그림을 통해 사실적으로 설명한다.

작가가 관찰한 머리카락의 다양한 모양과 특징을 통해 평상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시에 다양한 머리카락 모양에 공감이가 가고, 시청 앞에서 남자의 짧은 머리를 관찰하며 상상으로 그려 본 다른 머리 모양은 특히 웃음을 자아낸다.

그림책의 앞 표지를 보면 조금 색다르다. 그림의 얼굴에 눈, 코, 입 대신 제목이 들어 있고, 머리카락을 돋보이게 하는 그림이다. 책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독특하다. 또한 앞 표지의 인물들은 앞을 바라보며, 뒷 표지에는 뒤에서 바라본 머리 모양의 표지가 있어 책 한권이 앞, 뒷 표지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책 자체가 앞모습과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엉뚱한 머리카락 연구

이고은 글·그림,

웅진주니어, 2012. 11,000원

* 추천대상 : 초등 1~2학년부터

누구나 관심이 있고 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나와 너, 우리의 머리카락을 작가가 세밀하게 관찰하여 독자로 하여금 새롭게 머리카락을 볼 수 있게 한 작가의 신선한 관점이 새롭다.

철수에게 새 뽀스를!!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사서

신간도서 코너를 돌다가 재미있는 그림책을 발견했다. 제목은 『내 뽀스』.

책 표지에는 빨간 망토를 두르고 슈퍼맨이 된 남자아이가 파란 하늘을 날고 있다. 표지를 넘기면 삼각 뽀스, 사각 뽀스, 줄무늬 뽀스 등 온갖 종류의 남자 뽀스가 그려져 있다. 몇 종류의 뽀스가 그려져 있는지 맞추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칠남매 중 막내인 철수는 책과 학용품, 옷 등 모든 물건들을 형들과 누나들에게 물려받는다. 엄마는 그런 철수를 위해 재봉틀로 마술처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 그런데 신체검사 날 친구들에게 팬티에 빨간 나비 리본이 달린 것을 들켜 창피를 당하고 만다. 철수는 험 뽀스를 입고 싶지 않다며 엄마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다가 혼이 나고, 그날 밤 새 뽀스와 난닝구를 차려 입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 뽀스와 난닝구를 차려입고 하늘 높이 나는 꿈이었어요.”

7~8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부모들은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속옷을 물려 입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슬픈 추억이 있다. 엄마는 명절이나 신체검사일 전날이면 가마솥에 물을 데워 커다란 대야에 물을 한가득 넣고 동생들부터 씻기셨다. 나는 때가 많이 나온다고, 동생들을 씻긴 물에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어 맨



내 뽀스

박종채 글·그림.

키다리, 11000원.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나중에 씻기셨는데 더럽다고 반항하던 일이 생각난다. 네 명을 씻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책의 특이한 점은 페이지가 없다. 작가의 숨은 뜻이 궁금하다.

이야기가 끝나고 뒷부분에는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이라는 제목으로 ‘신체검사 하는 날의 풍경’, ‘재봉틀’, ‘교복, 교모, 가방 물려주기’, ‘다라이’, ‘뽀스와 난닝구’ 사진과 자세한 설명이 담겨져 있다. 다라이는 ‘대야’, 뽀스와 난닝구는 ‘팬티, 러닝셔츠’라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갖고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전해주며, 가족 간의 사랑과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 주며, 온가족이 함께 읽으면 더욱 좋은 책이다.

작가 박종채씨는 시각디자이너를 공부하고 디자인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2003년부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의 첫 창작그림책으로 앞으로 세상에 나올 작품들이 기대된다.

눈을 감아요

손셋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평소 아무런 고마움도 없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그것은 아마 어린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책에는 두 개의 구멍 뚫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 때마다 새로운 내용과 그림이 펼쳐진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눈’을 통해 ‘본다’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반전이 숨어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일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는 시각장애인에게 편견을 가진 어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준다.

작가는 이 책에서 ‘본다’라는 개념의 한계를 신체의 일부분인 눈에 제한하지 않는다. 선인장과 장갑과 토끼털의 촉감, 쿠키의 맛, 꽃과 커피의 향기, 새들의 우는 소리는 오히려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의 패턴은 ‘본다’는 것과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넘기는 것만큼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제목이 <눈>인 것 또한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설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 글 · 그림, 이지원 옮김.
창비, 2012.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어린왕자의 말이 더욱 진실하게 다가온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기를 소망하여 본다.

폴란드 출신의 작가이지만 색연필로 그린 듯 편안한 색감이 한국인의 정서에도 어색하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이 될 듯싶다.

글씨는 많지 않지만 철학적 내용으로 정교한 그림만큼이나 깊은 생각을 이끌어 내는 이보나 호미엘레프스카의 작품답다. 글씨와 내용이 많아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작가의 다른 작품 〈마음의 집〉, 〈블룸카의 일기〉와 비교하면 이 책은 유아를 대상으로 어른이 함께 보아도 충분히 좋을만한 그림책일 것 같다.

아름다운 책 표지에 끌려 펼쳤다가, 마지막장을 넘긴 후 다시 표지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잔잔한 감동을 아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많을 다(多), 복 복(福), 다복이

최미화

하남시 나루도서관 사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다복이’보다 ‘윤구병’이란 글자가 눈에 먼저 들어왔다. 이전 작 〈우리 순이 어디 가니〉, 〈심심해서 그랬어〉, 〈바빠요 바빠〉 등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며 망설임 없이 책을 펼쳐 들게 하는 이름이다. 언제나 따스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윤구병 작가의 그림책을 만난 것이 반갑다. 과연 표지 속에서 밝게 웃으며 뛰어가는 ‘다복이’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다복이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던 아이다. 이 험한 세상에 아이를 혼자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거냐는 주변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엄마는 혼자서 다복이를 낳았다.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는 한 해 가까이 어린 다복이를 혼자 집에 두고 일을 다녔다. 세 살이 되도록 제대로 걷지도 못 하는 다복이를 껴안고 슬퍼하는 엄마. 어느 날, 엄마는 직장 교육에서 공동체 마을 이야기를 듣고 다복이와 함께 그 마을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된다. 그곳에서 다복이는 점차 마음의 치유를 받고 밝은 아이로 자라게 된다.

이 책은 내용과 더불어 삽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물감을 칠한 종이 위에 왁스 페인트를 입힌 뒤 긁어내는 기법으로 그려졌다는 삽화는 사실적인 묘사로 이야기의 현실감을 극대화한다. 특히, 커다란 자물쇠가 달린 문 너머로 젖병을 든 아기가 우두커니 앉아 있는 장면은 아이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하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이 하나 떠올랐다. 대형 할인점에 갓 태어난 아기를



다복이

윤구병 글, 이담 그림.
휴먼어린이. 2013

버리고 간 미혼모가 있었다. 아기를 버린 미혼모를 찾기 위해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다. 그러던 중 발견한 버스 CCTV에 비친 그녀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TV 속에서 흐느끼는 미혼모의 모습과 앞서 말한 삽화 장면이 눈앞에 겹쳐진다. 비록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미혼모의 흐느낌이 가슴을 파고들어 눈시울을 붉히며 TV를 바라봤다. 그때의 느낌이 삽화에서도 느껴진다.

작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어른들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짐승 만도 못한’ 어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책은 어른이 먼저 읽고, 아이들에게 조금 조금 읽어주면 좋겠다.

나도 더 놀고 싶어!

김윤진

하남시 신장도서관 사서

집 근처에 동물원이 있는 커다란 공원이 있다. 벚꽃축제 기간이 되면 동물원은 꽃향기, 동물 배설물 냄새, 흥겨운 음악, 미아 찾는 방송을 바람에 싣고 우리 집에 찾아온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어렸을 때에는 입장료를 안 내고 싶어서 오전 9시 이전에 동물원에 가기도 했다. 그 때는 가족과 함께 사이다와 김밥을 싸 들고 가서 여기저기 구경하러 가는 게 가장 재미있었다.

‘더 놀고 싶은데’는 4~8세 어린이와 부모님에게 동물원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채인선 작가의 신간 그림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제목과 즐겁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림에 폭 빠질 것이다.

알록달록한 색채가 들어간 표지 그림에는 저글링을 하는 광대, 북 치는 사람, 트럼펫을 부는 사람, 풍선을 든 사람, 동물 탈을 쓴 사람들, 커다란 자전거를 탄 사람의 퍼레이드 행렬 사이에 독자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호랑이가 있다. 표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야기는 호랑이의 관점에서 서술된다.

어느 동물원에 어린이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놀러 온다. 항상 그랬듯이 그 날도 동물원에서 퍼레이드를 한다. 예쁘게 단장한 언니가 풍선을 들고 동물 탈을 쓴



더 놀고 싶은데

채인선 글, 황보순희 그림.

한울림어린이, 2012년, 12,000원.

* 추천대상 : 4~8세 어린이 및 부모님

아저씨들과 함께 나타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호랑이는 사육사가 빗장을 잠그지 않은 채 황급히 나간 틈을 이용해 우리 밖으로 나간다. 동물원 안을 어슬렁거리다 콩지머리 아이가 놓친 풍선을 잡아주게 되고, 아이들은 진짜 호랑이를 호랑이 탈을 쓴 아저씨라고 생각하며 거리낌 없이 논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호랑이도 마냥 신이 난다. 언제 이런 날이 또 올까? 날이 저물고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호랑이도 헤어지는 게 무척 섭섭하다.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로 돌아왔고, 그 날 밤 잠꼬대 같은 소리가 들린다.

“더 놀고 싶은데…”

책을 읽으며 흥미로웠던 것은 호랑이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다.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과 노는 상상을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색칠 그림책으로 색칠 놀이를 한다면 최고의 독후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어른의 시선으로 읽었던 이 책을 마지막에는 아이의 시선으로 읽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글 속에서 느낀 아이들과 동물들의

순수함이야말로 이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작년 12월, 도서관에 채인선 작가를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개최했을 때 접한 책. 행사 시작 전, 아이들에게 미리 ‘더 놀고 싶은데’의 색칠 그림책을 나누어 주었더니 인기 폭발이었다. 거기에 작가가 직접 책을 읽어주자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부모님의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익숙하거나 새롭거나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익숙함은 우리 것에서 오는 편안함이고, 신선함은 구성과 이야기의 파격에서 비롯된 듯 싶다. 작가가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분들’에게 헌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고 있다. 작가가 1년여 동안이나 나무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는 목각인형은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던 탈이나, 전통가옥의 잡상, 토우들에서 한번쯤은 마주쳤음직한 익숙한 얼굴들이다. 직접 바느질로 만들어낸 의상 소품과 천연염색으로 표현한 오방색에 세월의 더께까지 표현해 사라져 가는 우리 것을 정감있게 살려냈다.

공들여 나무를 깎고, 바느질을 해서 탄생시킨 입체적인 장면들과 떼루떼루, 정가 정가 정저공, 우이여 우이여등 꼭두각시 놀음을 연상시키는 청각적 요소들이 결합해 책장을 넘기는 순간 한바탕 놀이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막이 열리면 산반이(인형과의 대화자)가 등장하여, 일각문 이골목 삼청동 사거리 오방골 육대손 칠삭둥 판꾼이 구하다 십년감수한 박첨지 일가와 대화를 주고받는데, 해학과 익살이 넘치는 입담들로 들을수록 즐겁히고 재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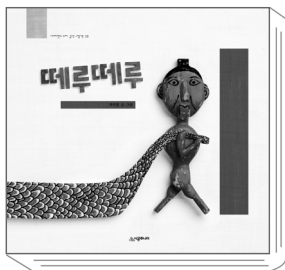
그게 영감입으로 할 소리요?

그럼 너는 풍구멍으로 말을 하나?

영감이 풍구멍으로 말한 줄 알았지.

그게 말이요? 막걸리오

손자는 못 보았고 손수레는 보았소.



테루테루
박연철 글 그림.
시공주니어. 2013

이야기의 흥을 돋구는 재담과 의성어, 옛이야기 특유의 반복되는 이야기 구조가 읽어주는 재미는 물론, 주거나 받거나 역할극에도 좋다.

여기에 더해 ‘어처구니이야기’, ‘망태할아버지가 온다’ 등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도발적인 결말이 즐거움을 더한다. 영웅의 등장으로 죽었던 아들, 딸을 살려 낸다거나 착한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뻔한 결말 같은 건 없다. 이시미로 부터 박첨지를 구해낸 딴둥이조차도 인간본능에 충실할 뿐 영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교훈이나 권선징악적 가르침이 끼어들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작가가 곳곳에 숨겨놓은 해학과 속내를 들춰 보아도 좋겠지만, 그저 한바탕 웃고 즐거우면 그 뿐!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이야기의 여운을 채 다스리지 못하고 책장을 덮으려는 순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작가 소개가 또 한번 시선을 잡아끈다. 작가는 ‘아이들을 요리하는 커다란 솥을 가지고 작은 문에서 아이들을 꺼낸 다음 솥에 풍덩 집어넣고 국자로 떠올려서 뼈를 오도둑 오도둑 씹어 먹는다’고 한다. 으메 놀래라. 그래도 뭐 이 책을 읽는 아이는 잡아먹지 않는다니, 일찌감치 책을 읽어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작가는 영리하게도 ‘다음 작’을 기대하게 하는 한 문장을 마지막에 슬쩍 끼워 놓았다.

잠들지 않는 거위를 안고 한 소녀가 나를 찾아 왔어요.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하는 작가다.

사랑하는 고객님, 오늘도 충동구매 하러 오셨나요?

맹진아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또 마트에 간 게 실수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지닌 이 책. 무수히 많은 신착도서 중에서 나도 모르게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책 표지 뒷면으로 이어지는 그림에는 주전자, 오븐, 헤어드라이기, 어항 등 각종 물건이 즐비하다. 그렇게 이 책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주인공 봄은 귀여운 분홍 토끼이다. 이 토끼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 봄은 여느 토끼와는 다르게 안경도 끼고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자전거까지 타고 있다. 아마 물건을 참 좋아하나 보다 싶다. 그리고 귀가 항상 쫓긋하면서도 앞으로 숙여져 있다. 마치 누구의 말이든 잘 들을 것처럼 말이다.

봄은 자전거가 고장 나는 바람에 멍키 스페너를 찾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멍키 스페너는 보이지 않는다. 멍키스페너를 사기 위하여 봄이 간 곳은 “몽땅 마트!!” 마트 이름이 몽땅 마트라니..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우리들이 필요한 그 무엇이 없을 때 가는 다이*깁지 않은가?

몽땅마트 안, “오늘만 이 가격, 하나 사면, 하나 더, 단돈 990원 등!” 우리에게 익숙한 마트 홍보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 “오늘만 이 가격”이라고 하지만 내일도 이 가격이라는 것. “하나 사면, 하나 더”지만 원래 구입목록에 없던 충동구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알고도 우리는 카트 안에 물건을 담고 있다. 봄도 마찬가지다. 그가 원래 사고자 했던 멍키 스페너는 기억 저편 정리장에 꼭꼭 숨겨 놓았나



또 마트에 간게 실수야

엘리즈 그라벨 글·그림; 정미애 옮김.

토토북. 2013

보다. 갈 때 마다 얼음땡 모자, 랄랄라 잠옷, 우르릉 확장기를 사는 탓에 본인이 사고자 했던 멍키 스페너는 결국 사오지 못한다. 멍키스페너는 밥의 짝 찬 정리장에서 발견된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이 다 있을 것이다. 코믹한 설정과 그림을 통해 짧지만 강하게 올바른 소비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어린이들의 소비 습관만을 길러주기 위한 책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을 보며 우리가 웃게 되는 것은 이 속에서 어른들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이다. 무조건적으로 아끼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며,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지구인 전체가 먹고 지낼 수 있음에도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는 적절한 소비가 아닌 무절제한 낭비임을 알 수 있다.

“충동구매”는 소비 습관에 만 영향을 끼치는 행동은 아니다. 무엇이든 쉽게 사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비에 대한 결정권이 부모에게 상당부분 치우쳐지는 것을 고려할 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짧은 내용의 그림책. 어른이 함께 보면 더 좋을 책. 배경색의 생략으로 그려진 사물에 대한 집중력을 높였고, 파스텔 느낌의 원색들의 조화가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들어 읽고 싶게 만드는 그림책이다. 오늘 한번 아이와 함께 이 책을 읽고 명키스패너만 사오는 연습을 해보자! 아니, 집 안 어딘가에 있을 명키스패너를 먼저 찾아보는 연습을 하자!

라두 아저씨가 남긴 선물

이지연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어린이 되어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은 쉬이 가시지 않는다. 하물며 가족이 전부이던 어린 시절에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더 강할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진실하고 따뜻한 깨달음이 잘 드러난 책이 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림책 <라두 아저씨가 남긴 선물>이다.

주인공 조는 건축기사인 라두 아저씨가 오면 건축에 관하여 이것저것 물어볼게 참 많았는데 라두 아저씨는 루마니아에서 온 이민자로 불어를 할 줄 몰라 크게 실망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루마니아에서 이민 온 건축기사 라두 아저씨는 조가 웃어주면 마주 웃어주고, 조가 자기 안경을 가리키면 자기 안경을 가리키고, 조가 손가락으로 자기를 향하며 자기 이름을 부르면 라두 아저씨도 이름을 불러준다. 신기한 일 투성이인 건축일을 조는 라두 아저씨 옆에서 도우며 배운다. 조가 갑자기 수두에 걸려 누워 있게 되자 착한 라두 아저씨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에게 사과를 준다. 병이 낫자마자 조는 라두 아저씨께 간단한 말을 가르쳐 주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눠먹으며 건축을 완성해 간다. 점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올 것을 예상치 못한 조는 멋진 방이 완성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기는 커녕, 울음을 터뜨린다. 라두 아저씨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한 후, 조는 라두 아저씨와 추억이 담긴 줄자를 가지고 학교에 간다. 에스토니아 나라에서 온 새로운 친구와 학교 벽, 학교



라두 아저씨가 남긴 선물

피터 프렌더캐스트 글, 로스 스튜어트 그림, 김루시아 역.
초록개구리. 2013

기둥, 교실 문, 창문, 교문을 줄자로 재며, 함께 다닌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조에게 어디서 에스토니아 말을 배웠냐고 묻는다. 조는 루마니아 말과 비슷한 거라 생각했다고 답한다.

라두 아저씨의 고향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서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이주했다고 한다. 서유럽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였을 때 고민들이 이 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우리 현실에도 피부색이 다르고 말과 억양이 달라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귀여운 조가 펼치는 감쪽한 행동들은 그림책을 보는 내내 웃음 짓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루마니아 말 한마디 못하는 조가 선생님께 한 대답은 정말 감동을 자아냈다. 말이 유일한 소통이 아니라는 깨달음 말이다. 불어를 못하는 라두 아저씨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조의 변화는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열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정을 나누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 모두 것처럼 마음을 크게 열고 세상을 크게 보면 살맛나는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 우리 모두 라두 아저씨가 남긴 선물의 의미를 되새길 시간이다!

로드킬, 야생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해요.

박지예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사서

로.드.킬. 섬뜩한 단어가 어린이 책 제목에 쓰였다. ‘로드킬’이라는 글자는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라는 제목보다 훨씬 작은 포인트로 책표지에 쓰여져 있지만, 어쩐지 보다 더 눈길이 간다. road kill이라는 단어는 도로에서 자동차로 동물을 치어 죽이는 것, 또는 자동차에 치어 죽은 동물을 말한다. 그렇다! 이 책은 도로 위에서 죽음 당하는 야생 동물을 다룬 작품이다.

표지의 개와 너구리의 슬픈 표정과 먹구름 낀 하늘색은 이 동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닮았다. 표지를 넘기자 주인공 강아지의 친구쯤으로 보이는 다른 강아지가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죽어가는 장면이 어둡하게 표현되어 있어 더욱 쓸쓸함을 자아낸다.

이 책의 주요 장면은 도로 위이다. 한적한 시골 길이 아닌 차가 뽕뽕 다니는 도로. 떠돌이 강아지가 길 위에서 친구를 잃고 서성이다가 다리를 저는 너구리 한 마리를 만나, 함께 안전한 너구리의 옛 집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이다. 강아지와 너구리는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다. 산등성이 가운데 길게 펼쳐져있는 도로, 그리고 한쪽 풀숲에 우두커니 서있는 강아지와 너구리의 모습은 푸른 자연 속에 조화롭지 못한 삭막함과 갈 길을 잃은 막막함을 보여준다.

큰 도로에서 차들이 뽕뽕 달리는 속도감 있는 모습과 그 곳에서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강아지와 너구리를 보고 있노라니 저절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



로드킬, 우리 길이 없어졌어요

김재홍 글, 그림.
스폰북. 2013.

길가 도랑에는 차를 피해 갓길로 걷다가 빠져 위험에 처한 많은 동물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 큰길을 벗어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이다. 끝도 없이, 정처도 없이 걷고 있노라니 길에 널브러진 동물의 주검들도 마주친다. 어둑한 밤 물가로 돌아가기 위해 아스팔트 길 위를 횡단하는 두꺼비 떼도 만난다. 그들의 운명을 알 것만 같아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들은 이내 커다란 불빛 아래 속수무책 당하고 만다. 고생 끝에 도착한 너구리의 옛 집이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책은 강아지에게 시련을 준다. 너구리의 옛 동네도 이미 모두 파헤쳐지고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강아지와 너구리의 우여곡절이 읽는 이까지 지치게 만든다. 이 들에게 안락한 휴식은 언제쯤 찾아올까?

이 책의 꽤나 사실적인 그림체는 동화의 엄숙하고 강력한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강아지의 동선에 따라 만나게 되는 고통 받는 동물들의 현실은 읽는 사람도 함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두운 동화이지만, 초등 고학년의 아이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 속에 파괴되는 자연과 그 안에서 고통 받는 동물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법을 생각해보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박부자네 가혼은 대단해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책의 표지 그림을 보면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혼을 써놓는 현판을 모두 들고 있는데 현판 위에는 양반 한명이 앉아있다. 그런데 현판을 들고 있는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입이 뿔루통하다. 마치 벌을 서는 것처럼 현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불만에 가득차고 힘겨워 보인다. 표지의 그림과 책제목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옛날 한양에 박씨 성을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있었는데 양반 되는 게 소원이었다. 박부자는 어느 날 남산 밑 가난한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는 양반 족보를 사왔다. 양반인 된 부자는 양반처럼 살기위해 김선비를 불러 어떻게 하면 양반처럼 살 수 있냐고 물었고, 김선비는 가혼을 정해 놓고 그에 맞춰 행동하라고 했다. 박부자는 김선비가 알려준 대로 이름난 집안의 가혼이란 가혼을 모조리 따라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양반답게 예를 갖추 시묘살이 3년을 시작했다. 시묘살이란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실패! 박부자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결국 양반처럼 사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에고! 양반이고 뭐고 다 싫다. 제 그릇에 맞게 사는 게 편하지. 분수껏 사는 게 최고야!”

박부자와 가족들이 훌륭한 가혼들을 따라 사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가혼과 살아



박부자네 가훈은 대단해

이훈 글, 이종옥 그림.

웅진주니어, 2012

가는 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다. 결국 박부자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라는 가훈을 나무판에 새겨 걸고 자손들이 잊지 않길 부탁했다. 박부자가 만든 마지막 이 가훈을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책을 다 읽고 나면 표지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마치 옛날이야기 들려주듯 표현되어있고 그림 또한 전래 동화를 보는 듯하다. 이 책의 좋은 점은 어린이들에게 가훈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책 뒷편에 조선 명문가의 가훈도 함께 보며 자녀에게 우리 집 가훈이 무엇인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적합하다.

방! 똥! 똥! 행복을 꺾는 방귀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방귀쟁이 며느리’책은 읽다보면 그냥 씩~ 웃음을 자아내는 책이다. 우리나라 옛날이야기 중 있을 법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지 그림은 한국화의 특징을 가졌으며 글을 읽을 때 또한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읽게 되어있다.

한국화의 특징은 가느다란 선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게끔 선명한 채색이 되어있다. 게다가 유아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방귀, 똥, 이런 것들인데 방귀를 통해 유머와 해학을 가미하여 읽는 동안 재미와 집중을 더해 주고 있다.

삼일에 한 번씩 방귀를 꺾야 하는 아씨가 시집을 가서 시집어른들과 서방님이 어려워 방귀를 꺾지 못하니 얼굴이 노랗게 변해간다. 며느리가 걱정된 시아버지가 방귀를 꺾라고 허락해 주니, 방귀쟁이 며느리가 방귀를 꺾다. 똥~웅~ 이런, 집체가 날아가 버렸다. 시아버지까지 날아가 5일 만에 솔단지 들고 들어오는 대목에서는 정말 웃음이 터진다. 결국 풍비박산이 난 시대에서는 며느리를 친절으로 돌려보낸다. 그래도 소박 맞은 며느리를 그냥 매물차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딱 한광주리와 시아버지가 앞장서 친절집에 같이 간다. 소박이라는 것이 대단한 수치였을 시대였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준것 같아서 시대 사람들이 그리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친절으로 가는 중에 매끈한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따지 못하고 침만



방귀쟁이 며느리

신제정 글, 그림.

사계절, 2008.

꿀꺽이던 늦 장사와 비단장수를 만난다. 늦 장사와 비단장수는 높이 달린 배를 먹을 수 만 있다면 늦그릇 반을 주고, 비단장수도 비단 반을 주어서라도 먹고 싶은 말을 들은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통해 협상을 한다. 그리고 다시 뿌~웅~, 며느리의 방귀에 배나무에 단단히 달려있던 배들이 수두룩 떨어진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약속대로 늦그릇과 비단을 한가득 싣고 친정집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오고, 늦그릇과 비단을 팔아 다시 부자가 되어 모두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다.

한국적 해학과 유머, 그리고 전통과 현대적 방식으로 도서를 편찬한 유익한 도서라고 본다. 일반 책들과는 다르게 오른쪽으로 책을 펼치게 구성되어 있어 옛날 책들을 보는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사투리로 쓰여 진 글은 입말이 살아 있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좋다. 구수하고 유쾌한 책이다.

색을 본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야

공정자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사서

밤에는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없지만, 낮에는 빛을 통하여 보는 색이 다양하고, 계절마다 다르다. 이 책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 접하는 색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 <밀라 보탕>은 프랑스의 어린이 미술 교육 전문가로 그에 대한 평을 보면 ‘아이들 스스로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며, 세부 묘사와 전체 형태를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 색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책은 ‘색’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접근한 것이 놀랍다. 파랑, 빨강, 노랑 등의 삼원색, 파랑과 노랑이 섞이면 녹색이 되는 이차색,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 서로의 색을 강조하는 보색과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지개 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빛이 없다면 다양한 색을 볼 수 없다는 것까지 알려준다.

이 책의 특징은 장정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으며, 종이 외에 중간에 투명필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노란 색의 여러 종류를 설명하기 위하여 종이에 그린 그림으로 색깔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투명 필름을 중간에 삽입하여 다양한 종류의 색을 비교해가며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새콤달콤 색깔들

밀라 보탕 글 · 그림, 신성림 옮김,

비룡소, 2011. 15,000원

* 추천대상 : 초등 1~2학년부터

눈으로 다양한 색깔을 보고 경험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신비하고 놀라운 일임을 알려주는 책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색’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다리 위에서 사는 사람들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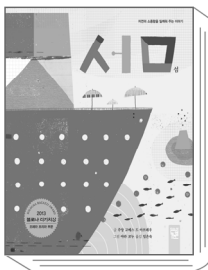
1. 베키오 다리

이탈리아 피렌체에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라서 예약을 안 하면 줄을 엄청나게 길게, 오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우피치미술관에서 나오는 길에 창문을 통해 보이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르노강 위에 가장 오래된 다리인 ‘베키오 다리’입니다.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처음 만난 장소로 유명하지요. 그 다리 위에는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 액세서리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리는 일반적인 다리와 다르게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에 상가도 있고, 사람들도 살고 있지요.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오가면서 물건도 사고, 사람들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리가 서로를 이어주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다리’는 ‘다리’일까요? ‘섬’일까요?

2. 섬에서의 새로운 삶이 되도록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섬으로 낙향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밟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섬’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그 ‘섬’으로 피서를 가려고 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그 좋다는 바다와



섬(A Ilha)

주앙 고메스 드 아브레우 글, 아라 코누 그림, 임은숙 옮김.
키즈엠, 2013.

하늘과 산과 들을 보고 오려고요. 책을 참 좋아하는 친구라서 선물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아이에게도 한권 사주고 싶어서 보는 중에 ‘섬’이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섬’으로 이사 간 아이에게 ‘섬’에 대한 이야기를 선물해 준다니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줄 수는 없고, 먼저 읽어봤습니다. 읽고 나니 마음이 아련해 집니다. 조금은 답답해집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읽어 봤습니다.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막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더 읽어 봤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그림도 그렇고 섬 사람들의 표정도 재미가 있고, 깊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림책 ‘섬’

그림책 ‘섬’은 육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한 섬 사람들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아주 긴~ 다리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려니 돌도 나무도 모래도 아주, 아주 많이 필요했지요. 섬에 있는 나무, 모래, 돌을 가져다 다리를 만들다보니 산도, 숲도, 해변도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육지 사람처럼 되고 싶던 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에 돌이 없어질수록 새 다리는 생겨났고, 산이 점점 낮아질수록 다리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잘려진 나무가 많아질수록 다리는 점점 새로워졌습니다. 해변의 모

래까지 모두 사용한 후에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섬에 있는 수많은 자연과 자원을 다리를 만드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렸더니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섬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섬 사람들은 육지로 가기로 했지요. 줄줄이, 줄줄이 줄에 맞춰 다리를 건너 갔는데... 이런! 마지막에 다리를 연결한 모래 독이 파도에 쓸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섬 사람들은 없어져 버린 섬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육지로 옮겨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 위의 사람들이 되어 버렸지요.

4. 어울림이 있는 아름다움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

‘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육지’ 사람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처음에 ‘섬’은 무척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산과 해변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으니깐요. 바다와 육지가 어우러져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섬’이었습니다. 자연 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잘 어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키가 크던 작던, 뚱뚱하던 말랐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섬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육지에서 온 커다란 배가 너무 멋져보였고, 육지 사람들의 옷차림, 머리모양,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모두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각이 주는 효과에 너무 쉽게 속아버립니다. 정말 멋진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인지 보다 멋져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가끔은 눈을 감고, 깊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5. 욕심

섬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도지사에게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도지사’가 될 것 같은 허황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생기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중요한 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보다는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욕심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 텐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부도, 농부도, 경찰관도, 선생님도, 소방관도, 모두에게 ‘다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 되었죠. 물고기 잡는 일 보다는, 논일이나 밭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불을 끄는 일 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거죠.

6. 다리 위에서 사는 사람들

더 풍족해 지고,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한 일이었는데, 더 부족해지고, 볼품없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린 다리 위에서 ‘섬’ 사람들은 더 이상 섬사람도 아니고, 육지 사람도 아닌 채로 남아버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처음 그림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화를 돋구는 것도 아니고 ‘불꽃’이라니 이걸 또 웬 말입니까? 막막한 상황에서 축포가 터진다니요, 작가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째 읽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처한 현실에서 그에 맞춰 또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 째 읽었을 때는 육지로 가서 사는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오히려 다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새로운 어울림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읽을 때마다 생각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 책을 옆에 끼고, 읽고 또 읽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 질량보존의 법칙

무엇을 누리는 것에는 그에 마땅한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그에 맞는 값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값을 치루고 물건을 사지요. 그런데 그 값은 우리가 시장에서, 가게에서 사는 물건에 만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그냥

나뭇구는 돌, 나무, 물, 해변, 산 등 우리 주변의 자연에도 그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리가 생기기 위해서 돌이 없어져야 했고, 그 다리가 더 길어지기 위해서 나무가 베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나무, 집, 오늘 먹은 아침 밥...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무엇인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섬으로도 육지로도 움직일 수 없는, 오도가도 못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더 자연에 관심을 갖고, 그 자연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온 세계를 만나러 가요

조수연

수원시 영통도서관 사서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쉽게 외국인들과 마주치곤 한다. 10년 전만해도 쉽게 마주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일까?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지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는 낯설다. 또 몇 년을 영어를 배웠어도 외국인이 건네는 말 한마디에 도망가고 만다.

이 책은 우리아이들이 그러한 낯섬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채 타 문화를 접하고 우리와 다른 문화를 배타적인 자세가 아닌,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존의 다문화관련 책들은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거나, 여러 나라의 지도나 국기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문학적인 작품에서는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었다.

이 책은 주제에 따라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한 페이지에 나누고 컬러풀한 색채의 그림들로 표현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게 눈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느껴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림 속에 함께 그려져 있는 우리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보면서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옆에는 그림에 대한 설명도 같이 되어있어 따로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옆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 표시된 숫자는 표지를 넘기면 바로 보이는 면지 부분에 그려진 세계지도를 통해 이러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세기와 만나는 그림책

무라타 히로코 지음, 테즈카 아케미 그림, 강인 옮김.

사계절. 48쪽. 2013.08.22. 12,000원

* 추천대상 : 낮은 학년

수업시간에 활용한다면 세계의 문화를 요리, 종교, 놀이 등으로 주제를 정하고 관련 페이지와 지도를 함께 펼쳐두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문화권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문화권의 위치를 함께 비교하며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지리까지 다각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읽혀야 하는 이유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숨어 산 아이』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해진 홀로 코스트를 그린 작품이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소녀 두니아가 겪어야 했던 극한의 공포와 절망이 세월을 거슬러 독자의 마음을 흔든다.

당시의 참혹했던 기억들은 훗날 두니아가 할머니가 되어 손녀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로 재현된다. 낯설고 무서운 군인들에게 엄마 아빠가 끌려갔을 때의 두려움과 암담함이 장면 장면마다 절절이 담겨 있다.

‘내가 뭘 잘못 했을까?’

어린 소녀 두니아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 유대인을 표시하는 노란별을 달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과 교사들의 가혹행위가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무리다. 이야기를 듣던 손녀가 현실의 할머니 두니아에게 묻는다.

“학교에선 왜 못되게들 굴었죠?”

“자기들이 무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

인간은 때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른 채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어리석고 미욱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런가하면, 목숨을 걸고 이웃을 도운 의로운 사람



숨어 산 아이

로익 도빌리에 글, 마르크 리자노 그림, 그레그 살세도 채색, 이효숙 옮김.
도서출판산하. 2013.

들도 있었다. 홀로 남겨진 두니아를 돌보아준 이웃 페리카르 부부가 그렇다.

그 일이 있는 지 70년이 지난 2012년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자신의 조국이 저지른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시 위협을 무릎 쓰고 많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프랑스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또한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적어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일 것이다.

유대인의 수난사를 대하며 일제 치하 우리의 고통이 자주 오버랩 되곤 했다. 잘못된 과거를 솔직하게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잘못된 과거를 솔직하게 반성하는 것은 함께 마음을 모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함께 책을 읽은 초등생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어렵고 재미없으면 아이들이 안 읽잖아요!” (어린이 책 만드시는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역사책을 열망하는 초등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어느덧 약자의 처지에서 강자로 변한 ‘팔레스타인가자지구’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진다. 역사의 순환은 결코 단선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예이다. 완성도 높은 역사동화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까닭이다. 완성도에 더해 이 책의 다른 미덕은 그래픽 노블, 즉 만화의 장점이 잘 살아 있다는 점이다. 쉽게 잘 읽히고, 글이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림이 훌륭하게 대체한다. 수용소에서 돌아온 엄마의 그 초췌하고 쾅한 시선은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충격을 던진다.

두니아가 차마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사연을 힘겹게 풀어 놓았다.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다. 마음 아프지만 귀 기울여 듣고, 한번쯤은 되새겨 볼 일이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¹⁾라 하지 않았던가!

1) 폴란드 아우슈비츠 박물관 전시장에 기록된 글

목탁 소리처럼 신기한 그림책

한선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사서

표지 가운데에는 얼굴 곳곳에 주름이 움푹 파인 노스님이 정성스레 목탁을 닦고 있다. 알록달록하고 환한 표지가 내용을 궁금하게 하는 책, 「신기한 목탁 소리」. 이 책은 그림책의 시적 문학성에 동의하는 시인과 작가들이 그림책 글쓰기에 참여한 보림 시 그림책 시리즈로 출간된 첫 책이다.

한승원 작가는 「원효」, 「다산」,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의 작품을 펴낸 일흔을 넘긴 노작가로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 주다 그림책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그림을 그린 김성희 작가는 이번 그림으로 남이섬이 제정한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공모전 ‘나미 쿡쿠르 2013’의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어느 큰절에 귀가 어두운 늙은 스님이 언제나 묵묵히 목탁을 깎는다. 스님이 만든 목탁이 신통스럽다는 소문이 퍼져서 목탁 주문이 밀려들자 재무 스님은 한 달에 세 개씩 만들라고 재촉한다. 노스님은 빙긋 웃음으로 답하고 한결 같이 목탁을 깎는다. 한 작가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 대한 삶의 자세와 지혜에 관해 이야기한다. 소설가라는 직업답게 갖은 미사여구와 아름다운 문장의 화려한 이야기도 가능했지만 정직하고 쉬운 표현으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썼다. 이는 손자 같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었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다. 아이들은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잘 듣지 못하는 노스님이 불쌍하다고 여기지만 여러 가지 주위의 변화에도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노스님의 모습에서 자신도 노스님처럼 한



신기한 목탁 소리

한승원 글, 김성희 그림.
보림, 2013.

결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을 갖게 된다. 절, 노스님, 목탁, 불상 등의 불교적 소재가 아이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아이들이기에 종교적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김성희 작가는 노스님이 목탁을 짚는 마음으로 목판을 짚었다. 그림은 목판화가 주는 따뜻함과 네 가지 색이 겹치며 이룬 조화가 밝고 평온하다. 특히 4색의 점들로 표현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는 재치 있고 신비롭다.

주름진 얼굴의 노스님과 해맑은 모습의 동자승은 대조적이지만 조화를 이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목탁을 짚을 때의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얼굴은 한다. 동자승이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이 퍼져 나가게 표현하였고 평온한 모습으로 목탁을 짚는 스님은 연 꽃밭 위의 부처이다. 개구리들도 목탁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밝고 행복한 모습이 펼쳐진다.

대화 한마디 없지만 쉬운 글과 따뜻한 그림이 만나 작품이 되었다. 창작동화를 읽히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듯이 이 책을 읽고 보며 아이가 부처의 온화함을 느낀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어른 또한 욕심 없고 한결같은 노스님의 모습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가 된다. 부처를 모르는 어린이도, 같이 읽는 부모도 읽고 나서 기쁘게 덮을 수 있는 책. 다시 한 번 그림을 찬찬히 살피게 되는 책, 목탁소리만큼 신기한 이 책을 읽어보기를!

니나의 공손나라 여행기

홍미정

화성시 동탄문화복합센터 사서

이 그림책 제목을 대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프로그램이 연상되어 나도 모르게 빙긋 웃음이 지어졌다.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육아법을 제시한 그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처방을 통해 차츰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한동안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다. 그렇다면 이 책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니나는 과연 어떤 아이일까?

니나는 갈래머리를 한 여섯 살 아이로, 입버릇이 매우 고약하며 짜증과 생트집 그리고 고함을 일삼는다. 어느 날 올바른 예절을 가르치려는 엄마의 타이름에 심술을 부리고 앞뜰로 나간 니나는 우연히 서커스단을 만나게 된다.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작나무 구멍을 통해 파란 코끼리를 만나고 파란 코끼리는 니나를 ‘공손’ 단장님께 소개한다.

공손 단장님을 따라 ‘예의바른 서커스단’을 경험하면서 니나는 차츰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무조건 생떼를 쓰고, 혹여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과 고함으로 일관하던 심술쟁이 니나가 공손나라 여행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피에로들의 공손한 인사법, 솜사탕 가게 앞에서의 차례 지키기, 곡예사들의 도움으로 갖게 된 진정한 감사의 마음 등 여섯 살 니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었다. 혼자만의 흥미진진한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니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



심술쟁이 니나가 달라졌어요

피에르 빈터르스 글, 바바라 오르텔리 그림.

다림. 2013. 세계작가그림책 4.

“거기 진짜 최고였어요!”

이 책은 버릇없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더욱 권장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돼!”라는 말로 행동을 제약하기보다 이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공손한 인사와 감사의 표현이 왜 필요한지, 고마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크리라 생각된다. 분명 우리의 아이들은 나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칫 지루하고 딱딱해 질 수 있는 교육적인 이야기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서커스단을 등장시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 작가의 역량이 놀랍다. 또한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의 삽화는 이야기를 더 풍부하고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훈적 이야기임에도 거부감 없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니나가 여행 속에서 만난,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유쾌하고도 발랄한 캐릭터들이 한동안 그리울 것 같다.

언제나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지연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해가 짙짙한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에도 아빠가 보고 싶어요.”

어릴 적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빠에게 가는 길> 그림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따뜻한 도시 “통영”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원으로 이사를 왔다. 아버지 직장,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한 부모님은 고향에서 멀리 멀리 수원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셨다. 이사 가기까지 1년여 수원에서 홀로 직장 생활 하고 계신 아버지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 못했기에 한 달에 한번 집에 오셨다. 한 달에 한번 아버지가 오시는 그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 모두가 대청소를 하고, 어머니가 해주신 푸짐하고 맛있는 요리를 맘껏 먹을 수 있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무척 낯설었지만,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신 젊은 아버지를 보면 항상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것 같다. 그 시절 일기장엔 온통 아버지에게 잘못과 자랑을 고백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 남동생을 더 잘 돌보겠다는 이른 철들이 반듯한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그 시절의 나를 보는 듯,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린 소녀는 잠도 안 올 정도로 아빠가 보고 싶어, 자신을 선물 포장해서 아빠한테 선물하는 계획을 구상한다. 포장지에 알록달록 예쁜 그림을 그리고, 보라색 끈으로 리본도 묶고, 직접 그린 우표를 붙여 친구한테 우체국에서 접수를 부탁한다. 아버지가 포장지를 풀면 소녀가



아빠에게 가는 길

심스 태백 저, 김정희 역.
베틀북, 2008

“짜잔~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하고 나타난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것 같다는 소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아빠가 보내주신 편지, 사진이 붙여져 있다. 소녀가 바라는 행복한 꿈을 꾸는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마무리 된다.

지금의 아버지는 예전보다 키도 작아지셨고, 주름도 많아지시고, 흰머리도 많아 지셨다. 내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키도 크시고, 깔끔한 양복에 멋진 모습이었지! 하고 생각하니, 세월이란 늙이 아버지를 늙게 만든 것 같아 가슴 속 먹먹함이 밀려 온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느껴 볼 수 있는 <아빠에게 가는 길>은 어린 독자부터 어른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책인 것 같다. 칼데콧 상을 두 번이나 받은 ‘심스 태백’의 기발하고도 코끝 찡한 가족 사랑이야기 지금 만나러 가보자.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요가

양유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사서

아이들은 변신놀이를 좋아한다. 가면이나 의상이 필요 없이 몸동작으로 변신놀이를 해보면 어떨까.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훈련 방법의 하나인 요가에는 동물이름을 붙인 자세들이 있다. 그에 주목하여 어린이들에게 요가를 재미와 즐거운 상상놀이를 전해주는 그림책 〈안녕! 나마스테!〉는 〈작고 빨간 물고기〉로 도서관의 환상놀이를 선사했던 유테은의 신작이다. 이 그림책에 나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는 그녀가 실제로 공부하면서 만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친구들이다.

머리와 피부색이 각기 다른 여섯 명의 아이들이 숲 속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따스한 햇살에게 인도말로 인사한다. 안녕 나마스테! 그리고 한 명씩 요가의 동작을 따라 하며 동물이 되어보는 환상놀이가 시작된다.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은 무릎 위, 혀를 내밀면 밀림 속의 씩씩한 사자가 되고, 발바닥을 모아서 발끝을 꼭 잡고 무릎을 펴놓으면 우아한 나비가 될 수도 있다. 책을 따라 자세를 하나씩 하다 보면 야무진 개구리, 도도한 고양이, 높다 높은산 등으로 변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요가의 자세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내용 구성이 책장을 넘기는 호기심을 유도한다. 먼저 배경이 없이 자세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고, 바로 뒷장에서는 정글, 숲 속, 연못 등의 자연에서 실제 동물과 함께 요가를 하고 있다. 노랑, 연두, 초록, 주황의 따뜻한 색상과



안녕 나마스테!
유태은 지음.
이야기꽃, 2013

더불어 리놀륨 블록 판화로 그린 그림들은 선명하여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변신놀이
가 더욱 생생하게 그려지는 효과가 있다.

책 날개 뒷면을 펼치면 요가동작을 자세히 설명한 요가포스터가 된다. 아이 방
에 붙여 놓고 자주 따라한다면 유연해지는 신체발달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책의 마지막 자세 높이높은 산처럼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굳세고 용
감하게 자라길 희망하는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반가운 책이다. 4세 이상의 유아부
터 부모님까지 이 책을 읽고 함께 요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바쁘면 잠시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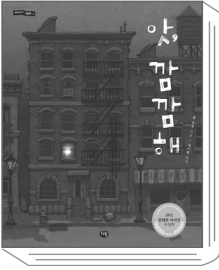
‘앗, 깜깜해’라는 책은 존 로코 선생님이 2012년에 쓰고 그해 칼데콧 아너상을 받은 책이다. 칼데콧 아너상이란 미국 도서관 협회가 매해 전년도에 미국에서 출간된 그림책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의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칼데콧 상은 최우수상, 칼데콧 아너상은 우수상이다.

존 로코 선생님은 뉴욕 브루클린에 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의 불편한 생활을 어린이의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엄마는 컴퓨터에 매달리고, 아빠는 음식 만드는 일에, 언니는 친구들과 전화 수다를 하느라 각자가 바빠 우리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놀아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던 어둠도 우리 가족은 즐거운 가족모임으로 만들고 있다. 그림자놀이를 하고 후덥지근한 도시의 열기도 식힐 겸 옥상에 올라가 본다. 거기에는 다른 가족들도 올라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잠시 여유와 가족 간의 대화와 놀이 시간으로 보낸다.

옥상만이 아니고 거리로 나가자 지상소화전을 열어주는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아이들은 풀장처럼 물놀이를 하고 연인은 노래를 부른다. 삭막하던 도시는 어느새 정전으로 가족이 모이고, 연인이 노래하며, 어린이가 뛰노는 해방구로 변해있다. 그러나 곧 도시에 다시 전기가 돌아오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잠시의 정전은 우리 주인공 아기씨의 가족에 조그만 변화를 주었다. 이제 집에



아, 깜깜해

존 로코 글, 그림, 김서정 옮김.
다림. 2012.

잠시 전기를 끄고 가족이 모여 대화하고 실내 놀이를 하며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다.

바쁜 도시에 삶이란 어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각박하게 만들지만 그 각박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의도적 노력으로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처음은 만화같이 두 컷, 네 컷으로 시작하여 한다. 그림책과 만화책의 모호함과 그림자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와 배경그림은 색다른 감상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세상을 환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2013 칼데콧 명예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이끌림, 어떤 책이길래 수상을 한 것 일까? 칼데콧상은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 우는 나뭇잎 검증받은 그림 책에게 주는 상이란단. 그 명성에 기대를 걸며 책을 열어본다.

까만 검댕 밖에 보이지 않는 작고 추운 마을에 사는 애너벨이 갖가지 색깔의 털 실이 들어있는 조그만 상자를 발견한다. 애너벨은 집으로 가서 자신과 자신의 강아 지, 친구, 친구 강아지를 위해서 스웨터를 뜬다. 학교에 간 애너벨은 친구들이 애 너벨의 스웨터를 보고 수군거리자 수업분위기를 망친다고 선생님께 야단을 맞게 된다. 애너벨은 학교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스웨터를 한 벌씩 떠주면 자신을 쳐다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위해 스웨터를 떠준다. 스웨터를 뜰 때마다 실 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실은 계속 남게 되고, 남은 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스웨터를 만들게 된다. 절대로 스웨터나 긴바지를 안 입 는 아저씨를 위한 털모자까지... 그래도 실이 남아서 동물들과 물건들에게 까지 스 웨터를 떠주었다.

애너벨의 뜬게질이 계속 될수록 조그맣고 검댕이 밖에 보이지 않던 칙칙한 마을 에서 알록달록 풍성한 색깔의 생기 있는 마을로 탈바꿈하게 된다.

계속 떠도 떨어지지 않는 털실을 가진 놀라운 아이의 이야기가 펼쳐나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너벨과 스웨터를 보러오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옷을 무척이나



애너벨과 신기한 털실

맥 바넷 글, 존 클라센 그림.
길벗어린이. 2013.

좋아하는 귀족이 애너벨의 털실 상자를 높은 금액을 주고 사려했지만 애너벨은 팔지 않았다. 귀족은 도둑을 시켜 털실 상자를 훔쳐오게 하고 털실 상자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도망을 갔다.

귀족이 뿌듯한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는 아무것도 없었고 화가 난 귀족은 상자를 창밖으로 던지고 애너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던져진 상자는 강물에 흘러 애너벨에게 다시 오게 되었다. 털실이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주는 따뜻함을 주는 스웨터로 변하지만, 욕심 많은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애너벨이 털실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에게, 동물에게, 그리고 마을전체를 생기 있고 따뜻하게 만든 것이다.

그림책의 첫 장이 무채색이었다가 애너벨이 누군가를 위해 스웨터를 떠서 입힐 때마다 크리스마스의 전등이 하나씩 켜지는 것처럼 밝아져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첫 장과 기막힌 대조를 이룬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존 클라센은 2011년 <내 모자 어디 갔을까?>로 2012년 닥터 수스 명예상을 받았다고 한다. 사물을 표현하는 간결한 선과 부드러운 색감이 칼데콧 명예상 수상작답게 글도 그림도 겨울에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엄마 꿈속이 궁금해!

김윤진

하남시립도서관 사서

“엄마, 잠이 안 와. 한 개도 안 와.”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는 아이 재우기. 항우 장사도 졸린 눈꺼풀은 들기 어렵다는데 아이들은 어찌나 기운이 넘치던지... 부모님들이여, 아이를 얼른 재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언급하는 그림책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그림책 ‘엄마 꿈속에서’는 야구에 얽힌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그린 ‘마이 볼’에 이어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내고 있는 유준재 작가의 신간이다. 눈이 내리고 있는 하늘색 배경에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여자 아이와 요리사 옷을 입은 엄마가 함께 우산을 들고 두둥실 떠다니는 표지 그림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어느 날, 지수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엄마는 어떻게든 지수를 재우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지수의 눈은 더 반짝거린다. 고개를 돌아보니 엄마는 잠이 들어 버렸다. 엄마는 꿈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

책 속 이야기는 지수가 엄마의 꿈속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된다. 딸의 말투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할 정도로 글과 그림을 통해 아이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어 매우 신기했다. 무엇보다도 작가의 딸이 그린 그림과 ‘마이 볼’에 이어 이 책에서도 활용한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해 부녀가 담은 꿈속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다.



엄마 꿈속에서

유준재 글, 그림.

문학동네, 2013년, 12,000원

* 추천대상 : 5세 이상 어린이 및 부모님

지수는 엄마 꿈속에서 치즈랑 딸기잼을 듬뿍 발라서 만든 샌드위치를 먹고 분홍 하트 뿔을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엄마가 바다에 가서 생선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보기도 하고, 엄마랑 말을 타고 할머니 집에 달려가기도 하며, 분홍 드레스를 입고 뽀족구두를 신은 채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초콜릿 과자, 하트 사탕을 준비해 놓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도 하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기도 한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피에로처럼 빨간 립스틱을 질게 칠하고, 피노키오처럼 길어진 코에 어쩔 줄 모르는 지수의 모습과 서슬 퍼런 눈매를 한 엄마의 모습이 그림 자처럼 나타나며 대조되는 부분이었다. 장난삼아 엄마 립스틱을 바르다가 엄마에게 혼날까봐 걱정하는 여느 여자아이들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어서 재미있었다.

화가 난 엄마 몰래 장난감인 척 숨기도 하고, 동물원에서 탈출한 사자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해 꼬리를 붙잡기도 한다. 그러다가 엄마랑 같이 별나라에 하트를 그리고 있는 아빠(작가)를 찾으러 간다. 아빠를 만났더니 어느새 온 세상에 눈이 내리고 있다. 우리 집이 없어지면 어찌지? 그렇지만 가족이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아침이 되는 장면을 통해 이런 걱정이 사라진다.

이 책은 지수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 줄 그림책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 주는 부모님들에게는 잠시나

마 어지러운 세상을 잊고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꿈속 여행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예쁜 글과 그림을 보면서 꿈에 대하여 상상의 나라를 펼쳐 보고, 주인공 지수와 공감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독후활동으로 ‘나의 꿈’,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꿈’을 그려보거나 이야기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서 부모와 아이가 소통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여우 제삿날 제목.....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학교재 출판사에서 펴내는 대대손손시리즈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연속 기획물로 먼저 세상에 선을 보인 책은 『네가 세상에 처음 왔을 때』, 『어른이 되는 날』, 『육십 고개 넘으셨다. 우리 할머니!』, 『나는 뭐 잡았어?』, 『책 씻는 날』 등이 있다. 8권으로 나온 책이 오늘 소개할 『여우 제삿날』이다.

한 눈에 쓱쓱 들어오는 그림이 저자에 대한 궁금증을 부른다. 그림을 그린 이지선 작가는 2006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고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뉴탈런트 상, CJ그림책 축제 100인의 그림책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야기 저자는 한미경 선생님께서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 『둥글둥글 지구촌 문화유산 이야기』 등의 책을 썼다.

『여우 제삿날』은 우화 형식을 빌어 제사 지내는 방법과 마음가짐 등을 풀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책의 전반에 걸쳐 아름답고 특색 있는 그림이 한 편의 이야기가 되어 글의 흐름을 끌어가는 힘이 있다.

백년은 넘게 산 여우가 얼마나 콧대 높고 잘난 체를 하는지 친구하나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으슬으슬 춥기 시작한 몸이 낯지를 앓아 신령님을 찾아가 물으니 외로움이 깊어서 생긴 병이니 누군가를 기억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일러준다. 여우는 신령님이 일러 준 대로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관찰하며 제사 지내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여우 제삿날

한미경 글, 이지선 그림.
학교재, 2013.

이 책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그림을 읽는 재미에 있다. 제를 지내는 모습 (“대추 옆에 밤, 밤 옆에 배, 배 옆에는 감을 놓게나” 혹은 “생선은 동쪽으로, 고기는 서쪽으로 놓게나”, “축문 다 쓰셨으면 향을 피우시게나”)을 묘사해 놓고 맞은편에 관련 그림을 배치하였는데 그림을 가만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꼬리를 무는 식으로 생겨나 주거나 받거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게 해준다.

그래 제사를 지낼 때는 향 냄새가 나고 적, 찜, 과일 등의 음식을 준비하고 축문을 쓰며 조상을 기억하는 과정임을 상상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상다리 부러질 만큼 그득그득 음식이 쌓여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진심을 다하는데 제사의 참뜻이 있음을 여우의 감정변화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오래도록 여운을 남겨준다.

인상 깊었던 것은 어머니를 비롯해 수문대장, 조왕할머니 상을 차려놓고 기원을 드리는 장면이었다. “하나는 대문을 지켜주시는 수문대장 상이고, 하나는 부엌을 지켜 주시는 조왕 할머니 상이고, 하나는 떡 좋아하시던 우리 어머님 상이니 아가야 우리는 좀 참자꾸나.” 우리 조상님들은 대문, 부엌, 장독대, 심지어 뒷간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피하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빼놓지 않고 치성을 드렸다. 옛 신앙을 언급함으로써 잊고 있던 기억을 살려주니 이 또한 이 책의 미덕이다.

한 때 남의 손을 빌어 제사를 지내고 휴가를 떠난다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등장했었다. 변화에 맞춰 편하게 지내도 된다는 생각과 그래도 어떻게 제사가 뒷전일 수 있느냐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책 속 주인공들이 튀어나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슬며시 웃음이 난다.

누군가 그리움에 대해 묻거든 백년 묵은 여우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여우가 알아냈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가 닿고 정성을 다하면 누군가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도 전해줘야지. 제사라는 전통의례의 의미를 훌륭하게 표현해 낸 책으로 손색이 없다.

여우 제삿날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얼마 전 친구들 모임에서 명절 빼고 제사만 1년에 네 번 모시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 친구에게 대단하다고 놀라니, 그 친구가 말하길 “난 제사가 무슨 소꿉장난 같아”라고 한다. 아니 이런 조상님이 들으시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란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하고 되물으니 “음식 이거저저 조금씩 해놓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조상님께 한껏 엄숙한 척(?) 절하고 한참 서로 기도하듯이 조용히 있다가 모두 모여 먹고 이야기하다 헤어지고... 마치 예전에 소꿉장난할 때 연극하듯이 하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제사라는 의식이 허례처럼 흘러간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전에는 제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네 가지(관혼상제)로 꼽힐 만큼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다. 옛 조선시대에는 제사 모시는 것이 정치 문제까지 파급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데, 핵가족화 된 현대 사회에서는 번거로운 형식으로 치부되어 제사의 참 의미를 되물게 될 지경까지 된 것이다.

어른인 우리들도 제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인 어린이들에게 제사의 형식, 절차, 방법 그리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점점 사라져가는 제사, 그래서 보기 어렵고, 보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제사의 형식과, 제사 음식, 제사 지내는 모습



여우 제삿날

한미경 글, 이지선 그림.
학교재, 2013.

등을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주인공 여우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미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해 준다.

또한 이 책에 흥미로운 점은 통상 여우하면 떠오르는 선입관을 잠시나마 지울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옛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해치는 간교한 동물로 묘사되는 여우를, 사람의 도리와 조상을 모시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현명한 여우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다른 동물을 곤란에 빠트리는 여우를 맹수 호랑이에게서 아기를 구하는 용기 있는 여우로 그려진 점도 이 책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여우, 잘난 척하는 백년 묵은 여우가 병이 깊어서 병을 고칠 목적으로 제사 지내는 집을 전전하며 마침내 정성어린 제사가 어떤 모습이라는 알게 된다는 교훈적인 내용과 함께 인간이나 여우나 누군가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없이 고고함 만 지킨다면 마음의 병이 생기니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라는 다소 심리 치료 같은 느낌의 내용도 전해준다.

이 책을 그린 이지선은 2006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되었고, 그 밖에도 영국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빌토리아 앨버트 미술관 일러스트레이션 상등을 다수 수상한 작가인 만큼 파스텔과 색연필을 사용한 듯 한 느낌의 가볍지만 따뜻한 느낌의 그림으로 표현한 점도 특징이라 하겠다.

놀아야 삶이 즐겁다

신정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

예전에 한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 중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평가한 후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었다. 인기 프로그램은 구성도, 준비도 아주 단순하였다. 널찍한 실내공간에 맛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해두고, 아이들만 그 공간에 넣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동안 알아서 놀아보라고 했단다. 처음엔 서먹하고 쭈뼛거리며 서로 어울리지 못하던 아이들이 점차로 그룹을 만들고 제각기 놀이를 만들어 아주 뜨겁게 놀더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쩔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아래 이미 틀에 박힌 지식 외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배우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부모 세대들은 아마 봄이면 꽃향기를 맡고, 여름에는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날리며, 겨울에는 눈썰매를 탔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연과 친구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교과서 속의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하릴없이 쏘다니면서 공상하는 즐거움을 한껏 경험한다면 그 추억을 자양분삼아 어른으로 커가는 성장통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위거즐튼무아

마츠오카 쿄오코 글, 오오코소 레이코 그림, 송영숙 역.
바람의 아이들, 2013.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과 부모님

이 책은 아무튼 아이가 읽기를 좋아할 동화책이며, 부모도 함께 하면 즐거운 것이다. 그나저나 제목 ‘위거즐튼무아’는 무슨 뜻일까? 궁금하다면 책을 읽어보시길.

책을 펼치고, 덮고, 또 다른 책을 만나는 즐거움.

양유진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사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가로 210mm, 세로 288mm의 이 그림책은 결코 ‘작은 책’이 아니다. 더욱이 표지에 그려진 수많은 책 중에서 과연 어떤 책이 작은 책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정말 작은 책이 펼쳐진다. 그리고 겹겹이 펼쳐지는 책들을 보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펼쳐봐… 조그만 빨간 그림책. 그리고 무당벌레 이야기를 읽어 봐.
무당벌레가 보는 책은… 조그만 초록 그림책”.

펼쳐지는 그림책은 여섯 권이고, 그림책의 색깔과 배경그림은 다음 등장인물을 추측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다. 무당벌레에서 개구리, 토끼, 곰, 그리고 마지막 인물까지 주인공들은 점점 커지는데 책은 작아진다. 제일 작은 책은 과연 누가 읽을까? 반복적인 구조를 통한 상상의 재미와 더불어 색과 형태의 조화는 아름다움을 제공한다.

짧은 그림책이지만, 책과 독서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책이다. 책을 펼치고 덮는 것의 의미를 책의 판형, 색깔, 크기, 등장인물 등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이야기를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을 만나는 설렘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앞 뒤 면지까지 눈여겨 볼만하다. 앞면지에는 회색 물방울이 가득 채우고 있다. 뒷면지에는 다양한 색의 물방울들이 같은 형태로 채워졌다.



이 작은 책을 펼쳐봐

제시 클라우스마이어 지음, 이수지 그림, 이상희 옮김.

비룡소, 2013.

* 추천대상 : 4세부터 성인

많은 책을 읽고 나면 우리의 정신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앞 면지와 뒷면지의 변화는 책 내용을 극대화시키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책을 보는 것과 책을 펼쳐 보는 것은 분명 다르다. 펼쳐봄은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며 만남이다.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한 권의 책은 또 다른 책에 대한 관심이고 또 다른 만남이다.

이 그림책은 어린 시절 작은 책들을 펼쳤던 즐거움을 간직한 미국의 작가 제시 클라우스마이어의 첫 작품이지만, 그림을 그린 이는 <거울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등으로 책의 외형, 형태적인 면까지 이야기 속으로 끌어당겼던 이수지다. 영화 속 카메오처럼 마지막 장면에 그려진 그녀의 책 <파도야 놀자>와 주인공 여자아이의 등장은 이수지의 그림책을 즐겨보는 독자에게는 반가운 인사다.

책을 넘길 수 있는 4세의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권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직접 작은 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수많은 이야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야기 속 이야기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기차모양으로 길게 만들어진 책은 구미도서관 ‘5월의 추천도서’이기도 하지만 책의 모양새 때문에 읽어 보고 싶어진 책이었다.

기차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 심하게 떠들고, 어수선했던 아이들 셋과 통제할 의지도, 달래지도 못하는 엄마와 함께 목적지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건 참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아저씨는 기본 포용력과 아량이 넓으신 신사분인 것 같다. 더구나 아이들 심리도 잘 알고 있고, 타고난 이야기꾼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마는 객실 손님들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이야기 한 편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아이들도 예측 가능한 뻔한 이야기였다. ‘착한아이가 있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웃사람들이 도와주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밖에 없던 앞자리 신사분은 결국 참견하게 되었고, 아저씨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

아저씨 이야기의 도입은 아이들 엄마와 같이 착한아이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단순히 착한애가 아니라 ‘베르타’라는 이름까지 가졌다. 여기까지는 착한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배고픈 늑대가 살기어린 눈빛을 번득이며 베르타를 먹이감으로 추격하다가 베르타가 숨어버려 포기하려는 순간, 너무나 떠는 바람에 메달이 흔들리는 소리로 들통이 나서 늑대는 착한소녀를 먹어버렸다’란 말로 이야기가 끝났을 땐 읽는 독자도, 이야기 속 아이들도, 엄마도 모두 황당했다.



이야기 기차

사키 글, 알바 마리나 리베라 그림, 김미선 옮김.
뜨인돌어린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또 다른 교훈적 내용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전화위복’, ‘새옹지마’의 이야기 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삶의 현상적 내용 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 속 이야기의 결론을 갖고 독서토론을 해도 풍부한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며, 이야기 속 이야기라는 프레임을 갖고 구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도 좋은 도서가 될 것 같다.

또한 2009년 볼로냐 국제 어린이도서전에 라가치상을 수상한 만큼(문학성이 풍부한 도서에 주는 상)내용도 상당히 좋아서 알고 보면 더욱 재미있는 책이 되리라 본다.

작을수록 기다려주세요.

조수연

수원시 영통도서관 사서

빨간 트럭 위에 노란색 사막과 대조를 이루는 파란 하늘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는 한 남자가 서 있다. 굉장히 흐뭇해 보이는 그의 표정이 표지에서부터 책의 내용을 궁금하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은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것들이 주는 행복을 표지와 같이 아주 간결한 그림과 단순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다. 책장을 넘기면 보이는 장면은 언 듯 보기엔 한 가득 심플한 색채의 그림만 눈에 보이고 글자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읽기 편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더욱 그림에 집중하여 하나하나 더 곱씹어 봐야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읽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책이다. 글이 아닌 그림에 의지하여 트럭기사 아저씨와 트럭 속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작은 새의 이야기를 상상해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이가 혼자 읽기 보다는 아이와 엄마, 또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책을 펼쳐두고 대화를 나누며 읽는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단순히 트럭기사 아저씨가 트럭 속에 숨어 있던 작은 새를 발견하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을 아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 아니라 아저씨와 작은 새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책이기 때문이다.



작은 새

제르마노 질로 지음, 알베르틴 그림, 이준경 옮김.
리젼, 2013, 68쪽.

* 추천대상 : 낮은 학년

함께 책을 읽으며 아이의 경험과 부모님 또는 선생님의 경험을 서로 털어놓으며 이야기 한다면 생활에서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지부터 책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 황량한 노란 사막을 혼자 외롭게 달리던 트럭 운전사가 그와 대비되는 파란 하늘을 수많은 새들과 함께 어울려 날아가는 모습은 책을 덮기 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최고의 장면이며 깊은 여운을 남기게 한다.

인류최고의 과학기술, 바느질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안정된 교수직을 박차고 나가 자연과 공동체 삶을 실천한 윤구병 선생님은 저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에서 인류가 빚어낸 가장 놀라운 과학 기술을 들라면 망설이지 않고 바늘을 꼽겠다고 하셨다. 생체 에너지를 써서 제 삶에도 이웃의 삶에도 또 더 넓게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길이 있을까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바늘과 실’ 이라고 한다.

쪽매를 처음 읽었을 때 ‘바늘과 실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어린이를 위한 따뜻한 글과 아름다운 그림으로 풀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한 아이의 성장기이자 삶의 앞가림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전통가치에 대한 소회이기도 하다. 오갈 데 없는 쪽매가 제 앞가림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자 이웃을 돌보는 힘이 다름 아닌 바느질인 것이다. 우리 의식주를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하던 시절에는 바느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자 예술의 영역이었을 터다.

쪽매의 인생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바늘부인은 일견 날카롭고 무정해 보이지만, (쪽매는)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냄으로써 바늘부인을 통해 훌륭한 바느질 솜씨를 얻게 된다. 명주부인은 쪽매를 보드랍게 감싸주고 꿈을 지켜보아준 인물이자, 쪽매의 바느질 작품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알아봐 준 인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솜씨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쪽매의 마음이 쪽매의 성장을 도운



쪽매

이가을 글, 신세정 그림.
한림출판사, 2013

가장 귀한 밑천이다. 비록 쪽매 자신은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었을망정, 자투리 천 조각들을 모아 이웃들의 시린 어깨를 감싸주고 무릎을 덮어주는 귀한 조각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삶의 가치가 잘 표현되어 있다. 쓸모없는 자투리 조각들이 모여 색색의 조각보가 만들어지듯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과 전통의 가치가 그림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간 풍경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느질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익숙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엄마 밥’에 대한 그리움 못지않게, 바느질 하던 엄마의 모습이 간혹 생각한다. 자다가 깨어났을 때 윗목에서 흐릿한 불빛을 뿜 삼아 양말과 내복을 꿰매고 계시던 엄마의 모습은 애뜻함과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어찌면 그 시간 또한 끝없는 가사노동의 연장이었을 법하지만, 다른 때와 다른 특별한 ‘고요’ 같은 게 느껴졌던 것도 같다. 이런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도 이 책은 바느질과 조각보를 통해 우리 옛것의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책의 말미에는 쪽매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과 바느질에 쓰이는 낱말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야기를 통해 갖게 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지식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배려이자 바느질에 대한 작가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글과 잘 어우러지는 신세정 작가의 그림도 인상적이다. 여러 가지 옷감과 자수로 책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워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중앙도서관에 갔는데 추천도서로 올라온 책이었다. 12월은 한창 바쁜 때라 책을 읽어도 선정이 잘못 되었는지 감동이 없다. 내게 감동이 없는 책은 어린이에게도 감동이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지나치게 교육을 강조하는 의도가 역력한 책도 있고,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책도 있다.

시간에 쫓기고, 책은 잘 읽히지는 않고, 도서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난 그림이 예쁜 책을 고른다. 내용이 별루면 그림에서 전달되는 것으로도 감동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 유아 책은 글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한다.

주인공은 찰리가 아니고 찰리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토끼 인형 '바니'이다. 바니는 찰리의 친구이며, 찰리의 곁을 지키는 인형으로 찰리의 기분을 모두 이해하고 함께하는 사이이다.

찰리가 음악을 한다고 악기를 마구 불을 때면 '아이 시끄러워'를 배우고, 음식을 먹을 때는 '아유 지저분해'를, 병원놀이를 할 때면 '아이 아파'를 배운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혼나며 "네 방에 가 있어!"라고 할 때는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을 찰리와 함께 배운다.

아직 표현도 서툴고, 관계형성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나이, 하는 일 마다 사고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이는 그런 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 '3~4세'의



찰리가 엄마에게 혼날 때

해리엇 지퍼트 글, 바루 그림, 홍연미 옮김.

키움. 2012.

* 추천대상 : 3~5세 유아와 부모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엄마들도 모르고 있을 우리아이들의 심리와 열심히 좌충우돌 배워가는 하루가 눈에 그려지는 그림책이었다. 이 책으로 초보엄마들도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려고 하며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려는 몸짓임을 조금씩 이해하고 배워나가길 바란다.

느낌 아니까~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본 느낌이 이럴까. 아련하고 애뜻하고 그립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록새록 어린 시절 일들이 떠오른다.

사실 난 많은 형제의 꼬트머리에 태어난 덕에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책보가 아닌 가방을 매고 입학 해 언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몸이다. 아직도 그 가방이 또렷이 기억나는 것 보면 다희 만큼이나 내게 그 빨간 고무가방이 자랑거리였음에 틀림없다. 그 때까지도 책보를 들고 다니던 아이들이 더 많았던 산골 학교에서 어쩌면 내가 다른 옥이들 앞에서 은근히 으스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내게 책보가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왁자지껄 아침상에서 물러난 언니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책보를 메고 서둘러 빠져나간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져 하루치의 심심함을 견디고 있노라면, 언니들의 반가운 귀환을 맨 먼저 알려준 것이 다름 아닌 책보 속 빈 도시락 소리였다. 그 시절 골목어귀에서부터 들려오던 ‘찰그락 찰그락’ 소리는 심심한 하루에 대한 보상이자, 언니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온 온갖 이야기들의 시작을 알렸다. 태어나 처음 보았던 그래서 더 눈부시게 예뻐던 노란 은행잎을 쏟아 낸 것도 언니의 책보였다. 그 시절 책보는 내게 뭔가 대단하고 은밀한 언니들 세계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갈등의 최고조, 싸움 장면에서는 인물들에게 묘한 동질감마저 느끼게 된다. 요즘



책보

이춘희 글, 김동성 그림.
사파리. 2013.

아이들이 서로 머리채 잡고 싸우는 장면은 못 본 것 같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진짜 그렇게들 싸웠다. 초등학교 시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학년 위 언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기억이 난다. 겁도 없이 저지른 하극상 때문에 그 후 한동안은 쉬는 시간 교실 밖을 나서기가 두려웠다. 선배언니들이 나만 보면 “재야 재. 못된 계집애...” 하고 수군거리던 통에... 그런데 이제는 그 공포의 순간조차 그림다. 그 때 나랑 싸웠던 그 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까지 날 미워하고 있진 않겠지.

이 책은 『똥 떡』을 시작으로 우리의 소소한 옛 모습들을 살려 내며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으로 자리 잡은 【국시꼬랭이】 시리즈의 19권 째 도서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 또한, 역사의 뒀안길에서 잊혀져간 우리 옛 것들을 건져 올린다. 엄마의 어린 시절이 궁금한 아이들 뿐 만 아니라 지난 시절을 아이로 살았던 부모 세대에게도 추억을 함께 나눈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움을 선사한다. 김동성 작가의 사랑스럽고 잔잔한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덧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만났던 논둑길과 개울가에 가만히 이르게 된다.

그림책은 내게 여전히 위로이자 치유의 공간이다.

자투리로 만든 일상의 아름다움, 조각보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똥벼락」의 이춘희가 쓰고, 「엄마마중」의 김동성이 그림을 그린 「책보」는 표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자아이의 막 조각보로 만든 책보를 허리에 묶으려 하고 있다. 속표지에 봄날 아침의 농촌 전경이 초록빛으로 펼쳐진다. 벌써 논일을 하거나 밭으로 나가는 사람들로 동네 어귀는 북다들다. 표지에 나온 아이의 이름은 옥이다. 옥이는 아침부터 골이 잔뜩 나 있다. 친구 다희가 책가방을 자랑하는데 엄마는 가을걷이가 끝나야만 사줄 수 있단다. 골이 난 옥이는 가방을 자랑하는 다희에게 예쁘다는 말조차 건넬 수 없다. 가방을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는 다희와 옥이는 머리 꼬맹이를 붙잡고 싸운다. 화가 나 연필로 보자기를 박박 긁다 할머니 노래가 생각난다.

“보자기 우리 보자기 / 쌀을 싸면 쌀보자기 / 떡을 싸면 떡보자기 / 돈을 싸면 돈보자기. (중략) 조각조각 모여 조각보 되고 / 한 땀 한 땀 모여 책보 되지 / 북아 북아 오너라 / 이 책보에 오너라.”

할머니가 오랜 시간 모은 예쁜 자투리 천으로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든 책보를 다시 둘러매고 옥이는 집으로 향한다. 다희와 다시 친해지는 데도 책보가 훌륭한 역할을 한다. 책보를 둘러싸고 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면 펼쳐보기!

보자기(조각보)는 서민의 일상부터 궁궐까지 다양한 쓰임새를 가졌다. 자투리를



책보

이춘희 글, 김동성 그림, 임재해 감수.
사파리. 2013. 잃어버린 자투리 문화를 찾아서.
국시교래이 동네 19.

모아 정성으로 만든 조각보는 정성껏 만든 아름다운 생활 용품이다. 우리 문화의 기원과 원형을 설명해주는 이 책은 부록으로 보자기와 책보의 쓰임새에 대한 설명, 책보 싸기와 책보를 활용한 놀이에 대한 안내를 곁들였다.

무엇보다 이 책은 김동성의 그림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난다. 1960년대 우리네 언니 같은 옥이의 생김새와 일하는 농촌의 들녘, 저녁 무렵 고요함에 잠겨있는 들녘 풍경, 옥이와 다희가 학교를 오가는 길 가 전경, 둘이 드잡이 하는 장면의 현실감까지 촘촘하고 초췌하지만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권에 담았다. 자투리 천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면 복이 온다며 작은 천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은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지혜는 김동성의 그림으로 피었다. 그림책 앞표지가 부지런한 농촌의 아침 풍경이 있다면 뒤 속표지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간 들녘 풍경이 고즈넉이 펼쳐져 있다. 옥이와 다희도 책보와 가방 때문에 소란스러운 하루를 마감하고 숙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절로 생각한다.

별도로 플래시 DVD가 있어 움직이는 그림과 목소리로 책 전체를 감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책보를 만든 할머니는 또 다른 조각보 그림책 「쪽매」(한림출판사, 2013)가 생각한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 바느질을 배웠다면 쪽매 같지 않을까 한다. 「쪽매」의 권말에는 주인공이 만든 조각보들을 한데 모아 보여주고 바느질을 위한 옛 물건들의 이름을 설명해놓았다.

나무, 조용한 위대함

김미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사서

여기에 천년을 산 상수리나무의 일생이 있다.

어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도토리는 처음으로 세상에 홀로 섰다. 그 도토리는 자리를 잡아 싹을 틔우고 숲의 일부로서 제대로 한 몫을 해내는 늙은 나무로 성장해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 자리를 지키는 나무. 동물들의 집이 되어주기도, 도둑들의 창고가 되어주기도 하며, ‘언제나 내게 오면 누구든 내 품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듯 두 팔 활짝 벌려 맞아주는 나무. 자신의 몸통과 가지는 원래부터 사람들의 집과 배를 만드는데 필요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몸을 내어주는 나무. 그런 나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눈에는 평화롭게만 보이는 나무이지만, 나무의 삶은 사실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않다. 갑작스레 홀로 세상에 떨어졌을 때, 간신히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싹을 틔웠을 때, 힘들게 틔운 싹이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인간의 발에 무참히 짓밟혀질 때. 그리고 자리를 잡은 순간 영원히 자유를 포기해야만 했을 때.

〈천년을 산 상수리나무〉(이하 상수리나무)는 우리에게 한없이 주는 자연의 사랑과 그 자연의 ‘살 떨리는 삶의 현장’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내용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그림으로는 그들의 역동적인 삶이 표현된다.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숲에는 올빼미의 위협적인 날갯짓이 있고, 나무 밑을 헤집고 있는 멧돼지의 가쁜



천년을 산 상수리 나무

엘리자베스 로즈 글, 제럴드 로즈 그림, 강도는 역.
내인생의책, 2013

숨소리가 존재한다. 야생의 거침과 자연의 매서움이 그림을 통해 전해지기에, 나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도 우린 어렴풋이 자연의 희생과 위대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상수리나무〉를 읽으며, 예전에 읽었던 〈신갈나무 투쟁기〉(이하 신갈나무)라는 책을 다시 펼쳐 보았다. 〈신갈나무〉는 식물의 관점으로 책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식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상수리나무〉에서 느꼈던 자연의 혹독함과 식물의 어려움을 〈신갈나무〉에서 사실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이 두 권의 책이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알게 해주는 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동시에 두 권의 책을 읽고 있어도 함께 어우러지듯 어색함이 없다.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는 그림책과 에세이의 옷을 입은 과학책으로 다른 형식의 길을 시작했지만 이 책들이 도달하고 싶은 길의 도착점은 결국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과 〈상수리나무〉를 읽은 후, 〈신갈나무〉를 천천히 읽어나간다면, 아이들에게 식물의 생태와 생활에 대해 알 수 있고 식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주리라 믿어본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곁을 지킨 식물들에게 끊임없이 바라기만 할 뿐, 고

마음도 미안함도 갖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식물을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는 물 건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이 든다. 나무 또한, 인간이나 동물과 다름 없는 생물인데, 식물은 어쩐지 그에 마땅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 조용하지만, 위대한 나무가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신갈나무 투쟁기〉 속 한 구절을 인용해본다.

“사람들은 나무에게서 일어나는 살 떨리는 삶의 현장들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한다. 나무로부터 받는 위안은 도피적 위안이 아니라 지구상 생물들의 숙명적 삶을 이해함으로써 얻는 공감적 위안이어야 한다.”

왓지 모르게 익숙한 코끼리 아저씨

손셋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말 그대로 그림책인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은 글자라고는 의성어, 의태어만이 두 세 번 나올 뿐이라서 이 책을 보는 부모님과 어린이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화려한 색깔도, 꼼꼼한 뒷 배경도 없지만 어린이가 속속 그린 것 같은 그림에도 코끼리 아저씨의 표정이 살아있어 더 재미있는 그림책이다.

첫 번째 장면에서 코끼리 아저씨는 물방울이 가득 들어있는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어디론가 향한다. 왜냐하면 근처 오아시스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이 물방울을 이고 어서 빨리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지. 우리의 코끼리 아저씨는 과연 무사히 물방울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여름날.

울퉁불퉁한 자갈밭 길을 가려하니 기다란 코가 덜덜덜 떨리기도 하면서 물방울은 하나둘 날아가 버린다. 으스스스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을 지나는 건 아무리 코끼리 아저씨라도 무서운가 보다.

동굴을 빠져나오니 이게 웬걸~ 천 길 낭떠러지가 코끼리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인장 밭에 떨어졌지만, 우리의 용감한 코끼리 아저씨는 그래도 소중한 물동이를 네 발로, 코로 지켜냈다.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고 맛있는 과일나무 열매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노인경 글, 그림.
문학동네, 2012.

양동이에에는 이제 물방울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코끼리 아저씨는 개미화산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방울을 뿌려주는 착한 마음씨도 가졌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기운을 내서 출발하려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물방울을 새가 모두 가져가버린다.

이제는 물방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양동이.

코끼리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다. 그런데 이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썩아아! 하늘에서 내리는 물방울로 온 세상이 파란색이다. 코끼리 아저씨는 툴루랄라 자전거 바퀴를 굴린다. 이렇게 양동이에 물방울을 가득 담아 아기 코끼리가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코끼리 아저씨! 아기 코끼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가 가져온 물을 맛있게 먹고 있다.

주인공인 코끼리 아저씨의 힘든 여행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아마도 아빠를 생각할 것 같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빠’라고 불리지 않는 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까? 생각한다면 착하지만 어리숙한 코끼리 아저씨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용기 있게 잘 견뎌내는 멋진 아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안녕! 나도 바다 친구야

박지예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사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소통의 부재라고 한다. 요즘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소통의 문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 될 만큼 사람들 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있는 것 같다.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도, 심지어 일행이 있어 보이는 카페의 사람들도 주변사람보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몰입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소통의 매체가 늘어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화하고 싶은 상대는 가상 안에 살고 있다.

자기와 같은 몸 색깔을 가진 물고기 친구를 찾고 있는 파란 물고기. 웃고 있지만 혼자여서 왠지 외로워 보이는 파란물고기는 여러 바다생물들에게 자기와 똑같은 물고기를 보았느냐고 묻고 있다. 드디어 자기와 같은 파란 물고기를 찾는 순간, 무늬가 파란색인 하얀 물고기를 마주하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이는 비단 파란물고기가 또 다른 파란물고기를 찾지 못한 것만이 아쉬운 것이 아니다. 친구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바다친구들을 만났 으면서도, 자기와 같은 모양새의 물고기만을 찾기에 더 외로워 보이는 파란물고기가 아쉽다. 노란 물고기도, 불가사리도, 조개달팽이도, 문어도 함께하면 행복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찬찬히 내용이 지닌 상징을 더듬다보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닮아있다. 외롭지만



파란 물고기

차인우 글, 김릴리 그림.

걸음동무. 2013.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상의 모르는 사람에게 위안을 얻는 우리. 가상의 누군가의 일상생활을 시시각각 들여다보면서 내 옆의 숨 쉬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우리. 그래서인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만 혼자인 것은 아니다. 이 그림책에서 새로이 발견한 것은, 파란물고기가 만난 모든 바다생물들도 다 다른 색과 모양새를 지닌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파란 물고기만 혼자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바다 속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점만 깨닫는다면 파란물고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친구 많은 물고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치료사인 동시에 이 책의 저자인 ‘차인우’ 작가는 상징이 치유에 많은 도움을 주기에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통해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화를 썼다고 한다. 많은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 현대인 모두에게도 이시대의 차가움을 깨트리라 이 책의 상징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다.

너의 친구는 어디에 있니?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책 표지 첫인상은 바닷 속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은 그림책이다. 두꺼운 책표지 한 장을 넘기면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심이 되는 그림이 있다. 왼쪽 상단으로 파란색 물고기들이 떼 지어 가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파란색 물고기 하나가 반대방향을 가고 있는 그림이다. 파란색 물고기야 어디 가니?

무리를 벗어나 혼자 반대방향으로 떠나는 파란 물고기는 처음만난 초록 거북이에게 나랑 똑같은 물고기를 보았느냐고 묻는다. 초록물고기는 웃는 표정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못 봤으니 검정 아귀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검정아귀를 찾아 물으니 검정아귀는 초록 게에게 물어보라한다. 초록 게는 파란 가오리에게, 파란 가오리는 하얀 오징어에게, 하얀 오징어는 갈색 해면에게, 갈색 해면은 검정 불가사리에게, 검정불가사리는 주황 조개 달팽이에게, 다시 파란 문어에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주인공 파란 물고기가 찾는 똑같은 물고기를 찾을 수 없어 실망스런 마음이 생긴다. 만나는 바다 속 생물들은 모두 물음에 대한 간단한 답만 하며 왜 찾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관심도 없다. 마지막에 파란 문어가 똑같은 물고기를 봤다며 알려준 곳에 가보니 똑같은 파란 물고기가 아니라, 파란 무늬의 하얀 물고기였다.

파란 물고기는 왜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똑같은 파란 물고기를 찾는 걸까? 가까운 곳에서 먼저 친구들을 찾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파란 물고기는 따돌림을



파란물고기

차인우 글쓰, 릴리 그림.

책내음. 2013

* 추천대상 : 5~6세 유아부터 부모

당했을까?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무관심은 또 어떠했을까?

작가는 파란 물고기가 애를 쓰다 결국 외로운 처지가 되는 현실을 동화에 담았다고 한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 세상에서도 겪는 무관심, 아웃사이터의 외로움 등의 상처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도 번번이 실패한 아픈 경험을 치유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의도를 밝힌다. 또한 다리가 많아 능력 있어 보이지만 정보의 허실을 가려내지 못하는 인터넷 속 세상과 같은 문어의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말라는 암시도 주고 있다.

저자 차인우는 서울에서 태어나 송파구 풍납동에서 심리상담소를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작가다. 그래서 이 책 표지 상단에 <마음을 보듬어 주는 그림동화>라고 쓰여있는 것 같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 그림책 작가가 된 김릴리의 마블링이 곁들여진 그림은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준다.

5~6세의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쉽게 넘길 수 있으나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책이다. 소통과 대화로 함께 하는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는 간단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전해주는 책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진실 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르쿠스 피스터의 「무지개 물고기」를 권한다.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활활 간다』 이야기 속 할아버지가 살짝 연상되는 또 한명의 할아버지가 짝하고 나타났으니 바로 이 책의 주인공 허허 할아버지다. 온 몸이 웃는 듯 착각을 부르는 『허허 할아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래도, 저래도 허허 웃는 허허 할아버지와 후우 한숨을 달고 사는 한숨 임금님이 주인공이다. 운율을 살린 리듬감 있는 언어가 두 사람을 재미나게 대비시키고 있다. 우리의 주인공 허허할아버지는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법도 없고 성급하게 생각하는 일도 없이 매사 느긋하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주변 인물들도 싱글벙글이다. 똥을 밟고도 거름하면 되겠다며 아이들과 함께 코를 잡고 웃는 할아버지와 어린이들의 표정이 허허 할아버지의 성품을 말해준다. 좋은 기운이 여기까지 스미는 듯하다

또 다른 주인공 한숨 임금님은 또 어떨까?

예상대로 심술궂게 살짝 올라간 입 꼬리와 꼭 다문 입술이 한눈에 보아도 불만 투성이다. 곁에서 보필하는 신하들의 표정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 영락없이 임금님을 닮았다. 한숨만 쉬는 임금님을 위해 신하들은 허허 할아버지를 만나 보도록 권유한다.

임금님은 이래저래 할아버지의 화를 돋우려 보려 노력하지만 재물이 많냐는 물음에는 “입에 풀칠은 하고 삽니다. 허허”, 자식들이 효도하냐는 물음에도 “자식은



허허 할아버지
전지은 글·그림.
사계절출판사. 2013

없지만 할멈하고 둘이서 재미나게 삽니다. 허허” 하고 마니 도무지 싸움이 되질 않는다.

이에 한숨 임금님은 허허 할아버지에게 걱정거리를 던져주기로 마음먹고 황금빛 금가락지를 쥐어주며 보름 후에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만 사공의 실수로 임금님의 금가락지를 강물에 떨어뜨리고 만다. 임금님의 금가락지를 잃어버렸으니 근심으로 가득하려만 허허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속 편하게 군다. 할아버지 대신 근심을 떠안고 앓아누운 할머니에게 주려고 잡은 잉어 뱃속에서 임금님의 금가락지를 다시 찾게 되고 이것은 모두 임금님이 신하를 시켜 할아버지를 시험한 일 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 뒤로 한 숨 임금님은 껄껄 임금님이 되어 웃으며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다. 옛날이야기 형식을 차용하여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우리네 속담에 웃는 낮에 침 못 뺏는다더니 할아버지의 행운은 여기서 시작되었나 보다. 그런데 허허 할아버지처럼 사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아마도 속없이 허허 거렸다가는 그 저의를 의심받고 이용당하거나 자칫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살살이 따져 계산하고 손아귀에 움켜쥐어야 다소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작은 세상도 어른들의 축소판과 같아서 그네들을 목표 지향적으로 끊임없이 선동하는 책들과 친구들과 경쟁하도록 다그치는 어른들에게 둘러 쌓여 있음을 알고 있다.

허허 할아버지의 주름살 웃음이 무척이나 정겹다. 더불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잠시 내버려두는 태도가 지혜롭다. 만약 할아버지가 금가락지를 잃어버리고 앉아눕기라도 했다면? 그래서 그 좋은 허허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니 그 전에 사공을 책망하여 시비를 가리는데 급급했다면? 할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모조리 비껴갔을 것 같다.

어쩌면 행운이란 무작정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가기에서가 아니라 잠시잠깐 걱정을 내려놓고 웃어보는데서 싹트는 것이라 할아버지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 책을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믿을 수 없는 작은 변화가 기적처럼 슬며시 찾아온다. 근육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허허 웃음이 스미고 이윽고 작은 평안에 이르게 된다.

허허, 꺄꺄, 허허, 꺄꺄.

그렇지 않은가? 존재만으로 어여쁜 많은 어린이와 조급함에 신음하는 어른들 모두가 허허 할아버지를 찾길 바란다.

누구든지 화는 날 수 있어요!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일그러진 아이 얼굴 주위로 삼색 불꽃이 활활 피어오르는 표지그림에 이끌려 그림책을 펼쳐보게 되었다. 화는 어른도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인데 어린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로 화가 많이 났을까?

개구쟁이 솔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피에로인형을 명훈이가 먼저 가지고 놀자 빼앗아버리고, 민호의 뒤편으로 남아있는 소시지를 빼앗아 먹는가 하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순심이의 팔을 물어버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타이르지만 화가 난다고 오히려 큰 소리로 말대꾸를 한다. 결국 선생님은 솔이 엄마와 상담을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 나온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지만 엄마가 거절하자 길 위에 드러누워 버린다. 평소와 달리 엄마는 솔이를 달래지 않고 울고 싶을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울음이 그치고 화가 가라앉은 솔이에게 다가가 화가 난 이유를 들어보고 솔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앞으로는 친구들과 어떻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아이들이 또래집단과 어울리고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일로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이야기를 소재로 재미있게 엮어냈다. 이야기 장면들이 만화처럼 구성되어 만화책을 보는 느낌이 든다.

피에로 인형을 뺏고, 친구의 팔을 무는 장면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으며 바닥에



화가 나!

강경수 글, 그림.

소담주니어. 2013. 9,800원.

누워 우는 모습, 특히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솔이와 엄마의 모습을 대비하는 등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그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주인공 솔이의 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표정과 화가 풀렸을 때의 얼굴 표정을 대조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아이들의 감정, 특히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하는지 아이와 같이 그림책을 펼쳐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감정 상태에 따라 변하는 주인공의 표정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또한 부모입장에서도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바로 지적하기 보다는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의사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린이부터 보아도 좋은 그림책이지만 부모가 함께 보기를 권해본다.

동화책(동시집) 서평

개성빵
검은 점
국경을 넘는 아이들
기차 할머니
나는 어린이입니다
다 아는데 자꾸 말한다
드레스 입은 남자 친구
똥낭구 엄마
무지개 안경
방학탐구생활
빨간 목도리
뼈빠야 미안해
시간가게
이런아빠 저런아빠 우리아빠
이혼 대비 비밀노트
일수의 탄생
한 사람 부족해!
할머니, 어디가요? 밤 주우러 간다!
호랑이 눈썹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최미화 (하남시 나물도서관)
이시영 (군포시중앙도서관)
이시영 (군포시중앙도서관)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이시영 (군포시중앙도서관)
이연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공정자 (안성시립중앙도서관)
이시영 (군포시중앙도서관)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한선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자유와 희망을 찾아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사서

“개성빵” 책의 제목만으로는 내용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고려의 수도 개성, 아니면 개인의 고유한 성격처럼 독특한 맛을 지닌 개성 넘치는 빵인가? 힌트를 얻는다면 책 제목의 디자인이다. 빵 봉지 그림과 더불어 철책 디자인의 글씨와 ‘빵’ 위의 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남한에서는 너무나 흔한 간식거리인 초코파이가 북한에서는 ‘개성빵’이라 불리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아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주민들에게 간식으로 주는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팔아 살림에 보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개성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 아닐까?

며칠 전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북으로 압송된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었다. 기사만 봤을 때는 북한과 관련된 단순한 기사에 불과했지만, 책을 읽고 나니 그 탈북 청소년들이 겪었을 고생과 불안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책 속의 기태와 기옥이처럼 그들도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텐데 끝내 북으로 강제 압송되었다.

배고픔과 힘겨운 생활에 기태의 엄마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위해 남한으로 넘어온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모은다. 그리하여 기태 남매는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 중국의 조선족, 텐진, 상하이, 광저우, 쿤밍, 태국의 방콕을 거쳐 남한에 먼저 와있는 엄마와 만나 살게 된다. 처음엔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남한의 생활이 힘들었지만 차차 적응해가기 위해 노력해



개성빵

문영숙 지음.
아이앤크. 2013.

나가고, 언젠가는 아직 북한에 남아 있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날 날을 꿈꾼다.

책에는 기태 가족 외에도 북한주민들의 힘든 현실이 곳곳에 그려져 있다. 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들은 식량 살 돈을 구하기 위해, 내다 팔 거리를 주우러 다닌다. 구걸하는 꽃제비, 배고픔에 힘들어 하는 모습 등등 현재 북한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 탈북을 감행하는지, 또 탈북 중에 겪게 되는 사고, 공포, 불안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태의 남한 생활 적응에서 새터민 사람들의 어려움도 엿볼 수 있다.

우린 분명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휴전 중이다. 그러나 그 잠시의 휴전은 시간이 흘러 남과 북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현재도 남북한은 소통의 부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 속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아니 그 이전이라도 북한에서도 먹고 싶을 때 누구나 맘껏 먹을 수 있는 ‘개성빵’이 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글쓴이 문영숙은 단편동화 ‘엄마의 날개’로 2004년 제2회 푸른문학상을, 장편동화 <무덤 속의 그림>으로 2005년 제6회 문학동네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작품으로는 장편동화 <아기가 된 할아버지> <무덤 속의 그림> <궁녀 학이> <검은 바다> <색동 저고리> 등이 있고, 청소년 소설 <에 네겐 아이들> <까레이스키, 끝없는 방랑> 등이 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아랍권 동화라 다소 생소했으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 같다는 정서를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어느 날 놀이터에 커다란 검은 점 하나가 떨어졌다. 넓었던 놀이터는 좁아졌고, 검은 점의 그림자로 매일 밤 같이 어두웠다. 아이들은 처음엔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고 나니 궁금증도 이제는 궁금하지 않고 익숙해져 졌다. 이번엔 불편해서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방법이 없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 검은 점을 활용해서 노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 방법은 술래잡기 밖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척 불편해 하면서 처음엔 해결방법을 모색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에 적응해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화를 통해 어른의 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르완은 계속 고민했다. 문제를 안고 가는 것도, 적응해 가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가나 발로 차며 "없어져!, 없어져" 하는데 약간의 부스러기를 발견하고는 부셔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도 돕지 않고 미련한 짓이라고 외면했지만 아르완은 한 달, 두 달 같은 일을 반복하며 조금씩 부셔갔다. 그렇게



검은 점

알리드 따하르 지음, 공지현 옮김.
여유당. 2012.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 나가는 데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 함께 부셔갔다. 오마르, 하산, 지야드, 알리 등..

방법을 찾았을 때 같이 하면 좋지만 외면하면, 방법을 찾은 사람이 먼저 해가는 것이 맞는 이치인 것 같다. 나는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내 방법을 폐기하고 같이 불편한 방법을 택한 적도 있는데 아르완을 보며 부끄러워 졌다.

아르완은 “해결책이 쉽냐, 어렵냐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건 방법을 찾는 거야” 라고 말함으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을 준다. “모두가 안한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선구적 행동을 해나가다 보면 알아 줄때도 있어” 라고 말이다.

이 책은 2010년 메티 살라트 아랍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이다. 재미와 교훈, 감동까지 주는 책으로 수상 작품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국경을 넘어 꿈 꿀 수 있는 나라로

최미화

하남시 나루도서관 사서

얼마 전, 9명의 북한청소년이 탈북을 감행하여 라오스에 도착하였으나 결국 북송되고 말았던 뉴스로 떠들썩했다. 뉴스가 방영될 당시 이 책 “국경을 넘는 아이들”을 읽은 지 얼마 안 되었던 티라 아이들이 겪었을 두려움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한숨지었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 덕분에 이들이 처벌은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 다행이다 싶었으나, 대신에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마음이 먹먹해졌다.

이 책은 앞서 말한 9명의 청소년처럼 강일이라는 작은 소년이 북한을 탈출, 목숨을 건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의 탈북과정 그려냈다. 탈북한 외삼촌 때문에 의심을 받던 강일이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탈북을 결심한다. 강일리와 엄마의 탈북 계획을 알고 동네에서 꽃제비 노릇을 하던 순종이도 함께 따라나선다. 탈북 여정 중에 엄마와의 헤어짐, 수용소에서의 강제 노동과 탈출, 중국 공안의 잡혀간 탈북 일행 등의 온갖 위기가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진다. 북한에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강일리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던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책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현실 속의 탈북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강일리는 “뭐가 되고 싶냐, 꿈이 뭐냐”라고 묻는 아버지의 물음에 뭐라고 답해야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글, 한수진 그림.
살림출판사, 2013.

할지 몰랐다. 강일이가 “꿈? 꿈이 뭘니까? 잘 때 꾸는 꿈 말입니까? 저도 꿈 자주 꿈니다. 꿈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부분은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는 아이들의 꿈에 대한 작품을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뒤적이던 책에서 발견한 “꿈을 꿀 수 없는 곳”이라는 글을 보고 이 책을 쓰고자 마음먹었다고 한다. 작가는 꿈 꿀 수 있는 곳을 향해 목숨을 거는 북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을, 그곳에도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탈북이라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어른이 읽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탈북에 대해 그저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오는 정도로만 알고 있음직한 아이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과 더불어 비슷한 소재로 출판된 문영숙 작가의 “개성빵”이라는 책도 함께 읽어보기를 권하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은 정말 재미있어!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지금의 부모 중 초등 1,2학년 정도의 아이 혼자 기차를 타고 친척집에 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가다가 넘어지면? 혹여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 유괴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별별 걱정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여 결국 아이 혼자 집에 두거나 부모의 레이다망이 꽃히는 곳까지만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머칠 안 되는 짧은 방학을 맞은 올리. 어디든 가고 싶지만 부모님은 함께 갈 여건이 안 된다. 엄마는 뒀헨에 있는 헬가 이모댁에 올리를 혼자 보내기로 결정한다. 헬가 이모댁에 가는 날 엄마와 올리는 함께 기차에 올라타서 칸마다 어떤 사람 곁에 앉을지 고른다. 첫째 칸에는 할머니, 다음 칸에는 담배 피는 아저씨, 그 다음 칸에는 내리는 곳이 다른 젊은 여자와 남자, 다음 칸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머니와 아이들 세 명. 답답할 것 같아서 통과했던 맨 처음 칸의 할머니에게 다시 가서 행선지를 물으니 올리와 같은 뒀헨이다.

답답할 거 같아 뽀루통 해 진 올리는 할머니가 몇 마디 말에도 간단히 대답하고 창밖만 내다본다.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다 자기가 탄 기차가 비슷한 속도 자동차를 앞서서 기분이 좋아진다. 칸막이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차장이 기차표를 검사한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올리의 기차표는 아무데도 없는걸 알게 되어 당황한다. 기다리다 조바심이 난 차장이 기차표를 다시 사야 된다고 올리를 다그치자 할머니가 끼어들어 다그치지 말고 다른 칸 검사를 한 후에 나중에 오라고 보낸다. 할머니는 올리가



기차 할머니

파울 마르 저, 프란츠 비트캠프 그림, 유혜자 옮김.
책내음, 2013.

기차표를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도와주어 올리는 벗어 놓았던 외투주머니에서 기차표를 찾아낸다. 위기를 넘기니 올리는 할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할머니는 직접 만든 빵을 나누어 준다. 할머니는 어릴 적 장난친 이야기도 들려주고 말짓기 놀이도 하고, 동시 짓기, 이상한 거울 글씨 놀이도 함께 해주어 올리는 즐겁게 기차여행을 한다. 뮌헨 중앙역에 마중 나온 사촌 안네가 할머니가 옆에 앉아 심심했겠다고 걱정하자 올리는 큰소리로 정말 재미있었고 돌아갈 때도 그런 할머니와 앉고 싶다고 한다.

1937년 독일 슈바인푸르트에서 태어난 작가 파울 마르는 독일에서 많이 알려진 작가로 '독일 청소년 문학상', '오스트리아 국가상', '그림형제 상', '독일 청소년 문학 아카데미 대상', 독일 정부 문화 공로 훈장'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낯선 곳으로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책이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 무작정 어렵고 낯설다고 피한다면 세상은 더 많이 갑갑하다는 것과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행복제조기는 바로 너야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1972년 파리에서 태어난 저자 콜라스 귀트망은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2012년 창의성과 독창성이 높은 작품에게 수여되는 소시에르상을 수상했다.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자아 존중감을 도와주는 철학동화이다. 텔핀 페레의 삽화는 식물, 나무, 동물, 우산, 양말 컷을 모아놓은 듯 간결하면서도 재미와 호기심을 더해준다. 작가의 다른 작품으로 「슈퍼 영웅은 아무리 높이 날아도 절대 어지럽지 않아!」, 「내 앞의 인생」, 「난 그림 그릴 줄 몰라요」 등이 있다.

레오나르의 부모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와 조용하게 쉬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레오나르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시골생활을 싫어한다. 비가 개인 어느 주말 작은 오솔길을 산책간 레오나르에게 사건이 생긴다. 오솔길에서 양을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다. 양은 레오나르에게 어디에 쓰이는 아이냐고 묻는다. 레오나르는 병따개, 이불, 책상 등을 떠올리며 자신이 어디에 쓰이는지 생각해 보지만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암소와 암탉도 어린이가 어디에 쓰이는지 묻는데 레오나르는 마땅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화가 난다. 암소는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만들고 암탉은 신선한 알을 낳고 양은 털을 깎아 멋진 조끼를 만들 수 있는 쓸모있는 동물들이라고 자랑한다. 레오나르가 나는 어린이이고 엄마아빠에게 뽀뽀도 해드리고 심부름도 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동물들은 쓸모없는 아이라고 비웃는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콜라스 귀트망 글, 델핀 페레 그림.
베틀북, 46쪽, 2012.

그러더니 암탉은 늑대가 도와 줄 거라며 데려가서 늑대에게는 레오나르를 잡아 먹으라고 시킨다. 양은 늑대에게 좋아리가 제일 맛있어 보이니 얼른 먹으라고 암탉은 팔부터 먹으라고 암소는 엉덩이부터 먹으라고 부추기까지 한다.

겉이 나기 시작한 레오나르의 기분.

“거실에 강도가 들어온 것 같고, 내 침대 아래에 괴물이 있는 것 같고, 벽장에 귀신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저녁 식사 식탁 위에 온통 초록색 나물만 잔뜩 놓여 있을 때 같았죠.”

하지만 늑대는 상하고 오염된 도시아이라서 먹지 않겠다고 한다. 그 말에 레오나르는 자신이 쓸모없는 아이에 늑대조차 먹지 않는 아이라고 깨닫고 큰 충격을 받는다.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훌쩍이며 돌아가는 레오나르는 소방서 사이렌소리에 자신을 찾고 있다고 기뻐했으나 그 소리마저 자신을 찾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나무 발치에서 낮잠을 주무시느라 자신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엉엉 울어버린다. 레오나르는 쓸모없는 자신을 커다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라 믿고 엄마에게 어린이는 어디에 쓰냐고 묻는다.

“레오나르, 어린이는 뭔가에 쓰이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될 수 있거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멋진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도둑들을 잡는 경찰이나 불이 난 곳에 달려가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이 될수도 있지... 지금 이 순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단다. 그건 바로 네가 엄마 아빠의 행복제조기라는 거야. 네가 있어서 엄마아빠는 매일 웃고 매일 행복하거든.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예비초등학생이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이다. 또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표현이 어려운 부모님이 아이에게 읽어주면 작은 가슴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겠다

이 책이 2012년 소시에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린이의 의미를 재치와 익살로 그려 낸 마법 같은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린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철학동화로 총 46쪽의 가벼운 두께와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책이다.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힘, 아이들의 글

이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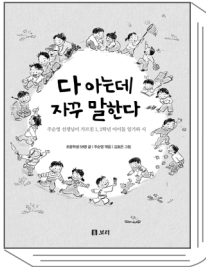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아이들의 시와 일기를 엮은 책들은 무척 많다. 솔직하고 정직한 글쓰기가 주는 쾌감은 어른들의 잘 쓴 글을 읽는 재미를 넘어선다. 얼마 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6개월간 진행한 ‘나만의 책 만들기’ 수업에서 아이들이 쓴 시와 생활 글을 모아 문집으로 만들었다.

자신들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는 아이들에게 가능하다. 문법이나 띄어쓰기도 틀려도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낸 아이들의 글에서 삶을 지탱하는 힘과 재미를 느꼈다.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도 솔직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은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읽는 이들은 재미있다. 그저 다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친구 담그는데 동참하지 못한 속상함도, 엄마 나이를 알아내기 위한 대화도 어쩔 일인지 만담이 된다.

글을 쓸 때 누군가를 의식했다면 이런 솔직한 기운과 재미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서문에서 주순영 선생님의 말처럼 다른 아이들의 솔직한 글은 아이들이 글쓰기가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쉽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의 솔직한 글은 어른들이 읽으며 다른 이의 시선에 사로잡힌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좋은 매개가 된다.



다 아는데 자꾸 말한다 : 주순영 선생님이 가르친 1, 2학년 아이들 일기와 시
초등학생 58명 글, 주순영 엮음, 김효은 그림.
보리. 2013.

드러내기도 응원하기도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몽구스 크루」, 「이토록 뜨거운 파랑」의 작가 신여랑의 『멋진 여자가 좋아』는 초등 3학년 다래의 초경치레를 다룬 「특별한 날의 엉망진창」, 다르다는 것에 갈등을 다룬 「드레스 입은 남자친구」, 아빠와 딸의 소통을 다룬 「아빠 딸은 어려워」 등으로 이뤄져있다.

「드레스 입은 남자친구」는 남다른 취향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타인의 취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멋진 일임을 이야기해 준다. 다래는 할머니가 사 주신 드레스를 입고 싶지만 공주병이라 놀림 받을까 입지 않는다. 다래네 반에 두 명의 전학생이 오고 다래는 작고 뚱뚱한 남자아이 강수와 짝이 된다. 강수는 다래의 머리띠와 무릎 양말의 ‘깔맞춤’을 눈치 챌 정도로 섬세하다. 다래의 보석 박힌 분홍머리띠에 대해서 “그것도 근사하겠다.”라고 말하는 ‘강수는 그냥 남자애랑 조금 다’른 남자아이다. 다래네 반이 하는 ‘무조건 파티’ 주제를 아이들이 정할 수 있게 되자 다래는 친구들과 ‘꾸미기 파티’를 준비한다. 그 날 꾸미기 파티에 강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의상을 선보인다. 그 날 이후 강수는 반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다래 또한 강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다. 강수의 ‘근사하다’는 말을 좋아하던 다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책을 읽으면 강수의 남다른 취향도, 다래와 친구들의 혼란스러움도 공감이 된다.



드레스 입은 남자친구

신여랑 글, 오승민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3. 멋진 여자가 좋아 2.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부터

책을 보며 오래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를 불러왔다. 도서관에서 막 일을 시작하던 무렵 독서모임을 준비하던 중에 만났던 여자 분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첫 사랑이 여고동창생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름 다른 이의 취향에 열려있던 자신만만했으나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충격이었다. 남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뿐 아니라 다른 이의 다름을 수용하거나 응원하는 것도 남다른 용기임을 알게 되었다.

여섯 단계만 지나면 이는 사람이라는 지정학적 한계인지, 파란 많은 역사적 현실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사회는 ‘다른’ 것에 민감하다. 모난 돌 없이 평온한 다래네 반에 강수라는 남다른 돌덩이가 생겼다. 벌써 아이들은 강수 뒤에서 쑥덕거리고 피하기 시작한다. 강수와 ‘근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다래는 강수를 징그럽다고 하는 아이들과도 어울릴 수 없지만 강수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도 힘들다. 혼란스러운 다래에게 이모는 “거참, 남자애가 말이야. 그렇게 보기 드물게 도도하면 곤란하지.”라고 말한다. 「드레스 입은 남자 친구」는 왕따를 당할지언정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런 용기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넓은 시선을 응원하는 책이기도 하다.

저학년부터 읽을 수 있으니 다문화 사회, 다름에 대한 사례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 좋다.

나무처럼 혼자서 싹싹하게 자라렴

이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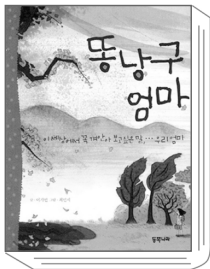
군포시중앙도서관 사서

“넌 누굴 닮았니?”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부모가 없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는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맷돌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단유는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 눈으로만 꼼빡빡 벽하며 대답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어 행복하다. 평소 고맙다고 생각한 분들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시간에 단유는 누구를 그려야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지우개로 하얀 도화지만 지우고 또 지운다. 아무것도 그리지 못해 답답하기만 한 단유. 친구 한결이는 엄마 얼굴도 그리고 아빠 얼굴도 그리며 도화지가 부족할 만큼 가득 그리려고 하지만 단유의 도화지는 교실 전체를 다 덮을 만큼 크게만 느껴진다. 구수한 친구였던 한결이가 자기는 엄마 아빠 반반씩 닮았는데 ‘넌 누굴 닮았니?’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한결이가 멀어지는 것 같다. 정말 한결이가 반반 닮았는지가 궁금해 한결이네 집에 놀러간 단유는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싶어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가스 불을 켜지 말라는 맷돌 할머니 당부를 잊고 라면을 끓이다가 한결이 발등에 냄비가 쏟아져 화상을 입히게 되었다.

자책감에 힘들어 하다가 잠이든 단유는 선물로 받은 일곱 개의 목각 인형 마트로시카 꿈을 꾸게 된다. 마트로시카들은 엄마는 아이들이 무서움에 떨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며 무서움에 맞설수 있도록 가르쳐주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놀아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 다친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남구 엄마

이기인 글, 최민지 그림.
동쪽나라. 148쪽. 2012.

엄마,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볼때도 엄마가 있어야 더 행복하고 많이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유는 인형들이 왜 자기를 엄마라고 하는 의아해 하며 꿈에서 깬다.

단유는 자기가 어떻게 절에서 자라고 말 못하는 맏돌할머니와 지금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러 용문사 누더기 옷 스님에게 찾았다.

스님은 10년전 용문사 은행나무 아래에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단유라고 알려준다. 단유는 스님의 말을 듣고 내려오며 저 특유의 냄새로 동남구로 불렀던 은행나무를 올라다보았다. 동남구님은 나를 몰래 버린 엄마 얼굴을 보았냐고 물으며 서러움에 울컥한다. 함께 내려오던 동자승은 갑자기 은행나무가 으앙으앙 운다고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통한 날이라고 한다.

한결이는 아빠 식물원에는 용문사 은행나무의 자녀목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가 불탄 후에 자녀목들은 아빠없는 나무라고 알려주고 아빠와 함께 단유에게 자녀목 한그루를 선물해준다. 동남구 엄마가 된 단유는 기분이 좋아져 이제부터 생각나지 않는 엄마는 잊겠다고 다짐한다.

이 책은 200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기인 작가의 경기도 용문사 은행나무 설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만든 순수창작동화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스토리텔링 사업의

결과물이다.

혼자인 아픔으로 힘들고 외롭게 자라는 아이들, 슬픔에 찬 아이들에게 혼자서도 잘 자라는 나무들처럼 씩씩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책이다. 뒷장에는 남실거리다, 무르춤하다, 자냥스럽다, 앙감질 등 동화속 예쁜 순 우리말을 친절하게 풀이해 주었다.

혼자만의 슬픔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나무처럼 혼자서도 씩씩하게 자라라고 용기를 주는 책. 초등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아이들과 스토리텔링 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

이연수

수원시 수원선경도서관 사서

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선호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은 책을 쓴 작가 일 수도 있고, 출판사 일수도 있다. 동화책이나 그림책의 경우는 표지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책의 제목이 기준이 되곤 한다. 책의 제목인 무지개 안경을 처음 봤을 때 ‘무지개 안경을 썼더니 다른 세상이 펼쳐졌나?’, ‘7가지의 보물을 본다는 이야기인가?’ 등 많은 질문이 생겼다. 무지개안경이 왜 제목이 되었을까 궁금해 하는 마음에 책을 읽어보았다.

학교에서 예쁘고, 노래, 그림, 공부 등 모든 잘한다고 인정받는 선우는 실상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의 오해를 밝히지도 못하고 부담스러운 학교생활을 한다. 어느 날 큰 체격과 찢어진 눈을 가진 못돼 보이는 호동이가 전학을 오고 선우의 짝이 되면서, 맘에 안든 호동이로 인해 그림그리기도, 노래 부르기도 즐거워지게 된다,

선우는 사람들이 예쁘고 공부 잘하는 선우를 모든 잘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호동이의 외모와 수학을 못하는 것으로 호동이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선우 자신의 선입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선우가 호동이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면서 단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우 자신도 많은 사람처럼 겉모습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곤 했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마치 무지개 안경으로 빛을 보면 맨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지개 안경

최형미 글, 김형근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2.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편견에 대한 내용을 친구라는 소재로 썼다. 예전 난 학기 초 짝이 누가될까 늘 걱정이었다. 짝이 맘에 들면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고, 짝이 맘에 안 들면 책상에 칼로Jul고투다투다거리며, 매일매일 옆에 있다는 것이 괴로웠다. 만약 이 책을 알았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불편했던 내 짝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가 알려고 했을 것 같다. 이 책은 자녀와 함께 공통적으로 친구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방학은 방. 학. 답. 게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방학을 이야기 할 때 제 짝처럼 입에 찹짝 달라붙는 말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방학 전엔 연례행사처럼 생활 계획표를 만들면서 알찬 방학을 야무지게 꿈꾸지만
그저 정신없이 휘몰아쳐 놀다가 번뜩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개학이 코앞이라 일기쓰기,
그리기, 만들기 등 온갖 잡다한 숙제를 팔목이 떨어져 나가라 해치웠던 기억이 난다.

해골바가지가 그려진 티셔츠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배의 갑판에 올라서서 채찍
을 두르고 있는 아이와 입을 한껏 벌리고 노려보는 구렁이 그림의 책 표지가 예사
롭지 않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도 벌이려는 걸까 절로 호기심이 생긴다.

주인공 석이는 엄마가 없다. 만두 가게를 하는 아빠와 애어른처럼 눈치가 빠른 동
생과 산다. 석이는 방학을 앞두고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거창한 방학 계획을 발표
하고 기어코 해 보이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아빠와 협상에 나선다. 그 계획이란 것이

“방학하고 삼 일은 맘대로 하기. 돈 벌기. 무인도에서 모험하기. 무인도 탐험으
로 유명해진 후 돈 벌고, 스타도 만나고 사인도 받고, 더 유명해지면 자전거 전국
일주, 조리사 자격 따기, 일단 이 정도 하고 더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계획하기”

로 아빠 눈에는 영 요상해서 기가 차고, 방학특강이나 모험이나를 놓고 한창 실랑
이를 벌일 때 석이의 지원군이 등장한다. 그간의 골칫거리였던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고 드디어 석이의 모험은 시작되는데...



방학탐구생활

김선정 글, 김민준 그림.

문학동네, 2013.

* 추천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

이 책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매력만점의 등장인물들에 있다. 시시콜콜 일러바치기 좋아하는 고자질쟁이지만 형의 모험에 빠질 수 없는 동생 호, 연예인 팬클럽 활동에 제대로 꽂혀있는 동네 김 작가, 환상적인 칠금도 여행지를 소개해 준 날라리 같은 만두가게 한수 형, 인정 많고 푸근한 한수형 할머니, 쉬는 법도 없이 만두가게 일에 바쁜 그러나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걱정 많은 보통의 아버지 등 개성 있는 인물들이 이야기를 완성해간다.

방학이라면 무조건 공부와 한 판 대결을 벌이길 원하는 어른들과 방학을 방학답게 놀며 제대로 보내고 싶은 아이의 구도를 맞춰가며 보아도 재미있고, 어느새 풍경이 되어버린 유년의 방학을 추억하며 시간 여행을 떠나보아도 좋다. 어찌되었거나 아이들끼리 적극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서는 모양새는 1박 2일이란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좌충우돌 정신없이 펼쳐지는 칠금도에서의 아이들의 모험은 너무 많은 것을 염두에 둔 탓에 오히려 작은 실수도 허용치 않는 어른들의 망설임과 두려움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야 만다.

아이들에게 방학을 들려주고 싶은 어른이라면 석이의 허무맹랑하지만 용감한 방학탐구생활을 일독하시라. 그래 아이들에게 자연스런 실수를 허락해주고 우리의 아이들이 더 담대해지도록 격려해보자. 방학이 남은 아이들아, 지금이라도 엉뚱하고 신 나는 모험을 꿈꿔보자.

칠금도는 어쩌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공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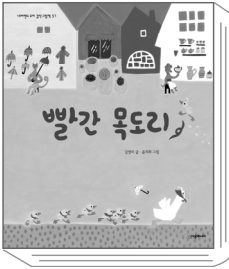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엄마 오리와 일곱 마리 아기 오리가 소풍을 가면서 막내 오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만나는 이야기이다. 할머니가 선물로 준 빨간 목도리가 소재가 되어 중심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길을 잃어버린 막내는 빨간 목도리도 잃어버리고 목도리는 토끼, 다람쥐, 거북이가 해 보려고 하지만 어색하다.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막내 오리의 표정, 막내 오리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허둥지둥 하는 엄마가 공감이 간다. 그림 중간부터 앞을 향해 가던 엄마가 막내 오리를 찾고자 되돌아가는 장면을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와 나누어 그림의 구성을 다르게 한 점도 돋보인다.

막내 오리처럼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금세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에 흥미를 갖고 정신이 팔려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길을 잃었지만, 엄마의 말대로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막내 오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길을 잃은 아기 오리가 엄마와 언니를 다시 만난 기쁨은 어린이들에게 안도감을 준다. 오리 가족이 마지막 장면에 빨간 목도리를 묶어서 기차놀이를 하며 산책을 나가는 모습도 즐겁다.



빨간 목도리

김영미 글, 윤지화 그림.

시공주니어. 2012. 10,000원

* 추천대상 : 유아 4세부터

그림 작가 윤지화는 『뽕가맨』의 남자 주인공을 통해 로봇 장남감을 갖고 싶어 하는 어린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바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그림을 통해 글과 이야기를 조화롭게 풀어가며 오리를 통해 엄마와 어린이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기 좋은 책으로 추천한다.

어린이시의 소중한 추억이 전하는 동심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의 저자 이주영은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계간 <어린이문학> 발행인, 초원봉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운동가라고 불린다. 그의 저서로는 「이오덕,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맨날 내만 갖고 그린다」, 「멸치의 꿈」, 「교사는 교사다」,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꽃이 파리가 된 나비」들이 있다. 「멸치의 꿈」은 초등 저학년 권장 도서로 많이 추천되고 있다.

책의 내용을 더해주고 아련한 슬픔과 감동을 전해주는 삽화는 「이지누의 집 이야기」, 「제암리를 아십니까」, 「기차길 옆 동네」, 「종이학」, 「해일」, 「고태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마지막 말테우리」, 「바람아 너는 알고 있니?」, 「소금꽃이 피어요」들을 그린 유충렬 화가다.

이 책은 저자의 어린시절에 겪은 이야기로 친구 기남이 아버지가 데려온 네 마리의 궁노루 새끼와 파랑새를 키운 추억을 동화로 엮은 것이다.

1. 뽀뽀야 미안해

6월 어느 날, 화전마을 진동에 사는 기남이 아버지가 종다래끼와 망태기에 어미 잃은 궁노루 새끼 네 마리를 담아 학교로 가져와 키워달라고 한다. 그래서 관사에서 살던 주영이는 궁노루 새끼 네 마리를 키우게 된다. 아버지가 퍼다 주신 전지분 유를 끓여서 숟가락으로 떠먹이기도 하고 사과꺄쪽을 집으로 만들어주고 밤에는



비비야 미안해

이주영 글, 류충렬 그림.
고인돌. 88쪽. 2012.

함석판과 돌멩이를 엮어 고양이나 족제비 등이 물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 이름을 지어주기위해 밤새 궁리를 하던 주영이는 수컷은 뽀뽀, 뽀로라 지어주고 암컷은 뽀애, 뽀아라 지어주었다 학교에 가서도 궁노루 생각뿐이었는데 약한 막내 뽀애가 먼저 죽어버렸다. 그리고 얼마후 뽀루도 배탈이 났는지 설사만 하다가 죽어버렸다. 주영은 자신이 잘 돌보지 못해 뽀루가 죽었다고 생각해 많이 울었다. 두어달이 지나자 남은 뽀뽀와 뽀아는 키도 한 뼘 넘게 자라고 살도 토실토실 오를 만큼 잘 자랐다.

혼자 지키며 키우기가 힘들었던 주영은 반 아이들에게 당변을 정해 돌봐주기로 하고 놀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2,3학년 아이들이 와서 너무 많이 우유를 먹이는 바람에 탈이 난 뽀아가 죽게 되었다.

주영은 아버지에게 된통 혼나고 잘 지키지 못한 자신을 후회하며 달빛 아래서 눈물 콧물 흘리며 울타리 아래 꽃밭에 뽀아를 묻어주었다.

이제 혼자 남은 뽀뽀를 다시 정성껏 돌본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맛비가 내려 춥다고 우는 뽀뽀를 온기가 남아 있던 아궁이에 넣어 재워주었다. 그런데 이 일이 큰 슬픔을 가져다준다. 태풍이 부는 날 추위를 피하던 뽀뽀가 아궁이 깊은 속까지 기어들어가 굴뚝을 뜯어서 구해 내었는데 그날 밤 죽게 된다.

지키지 못한 소중한 생명은 주영의 가슴에 두고두고 남는다.

2. 파랑새와 새매

주영이는 친구 종현이가 태극무늬 파랑새를 가져다주어 기르게 된다. 보리쌀, 콩, 옥수수를 잘게 부수어 먹이다가 어느 정도 자라자 파리와 잠자리를 잡아다 먹이며 정성껏 기른다. 파리를 잡을 때는 너무 세 개 잡으면 으스러져 파랑새가 잘 먹지 않고 살짝 때려서 기절만 시켜야 잘 먹는 다는 것을 알아내고 파리를 기절시켜 잡는 도사가 되었다.

어느 날 주영이는 창근이와 경수와 함께 삼방산 새터에 가 소나무 높은 가지에 있는 둥지를 털어 새매 새끼 한 마리를 가져다 학교 창고에서 파랑새와 함께 기르게 된다. 새매를 길들여 꿩 사냥도 하고 장끼를 잡아 만두도 해먹고 긴 꿈지 깃털은 모자에 꽂아 멋을 부릴 생각에 들떠서다.

육식동물인 새매는 처음부터 먹이를 잘 먹었다. 개구리 뒷다리를 벗기고 칼로 잘게 잘라주면 잘 먹었다. 주영은 이번엔 개구리 잡는 도사가 된 것이다.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 대상이 될 정도로 잘 키운 새매를 동네어른들은 퐁터퍼리라 하기도 하고 말뚝가리라고도 하며 놀리지만 주영은 사전을 찾아보며 새매라고 확인한다.

여름 방학 때 동네 아이들에게 새매를 맡기고 외할아버지댁에 가서 놀다왔는데 그 사이 배고픈 새매가 파랑새를 잡아먹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주영은 새매를 날려준다. 세월이 지나 중학생이 된 주영은 고향을 떠나 원주로 갔는데 어느 날 미군과 카투사 군인이 학교 운동장 위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빙빙 도는 새매 한 마리를 총 쏘아 떨어뜨렸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주영은 그 뒤로 오랫동안 짐승을 키우지 못하게 된다.

어린 욕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아픈 기억을 책으로 엮어낸 작가는 어린 시절을 글로 옮기는 것은 다섯 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겨레가 살아온 삶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 둘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어린이들 삶을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것, 셋은 글 쓰는 사람이 어린 시절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 넷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동심을 되살려 준다는 것, 다섯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읽는 어른의 마음을 고향 어린 시절도 돌아가 잊혀 졌던 동심을 깨워주고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어린 시절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내게 해준다.

이야기 나누듯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 살려서 쓴 입말 형식의 기법이 돋보인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잊었던 우리 말 우리 단어들을 친절하게 해설해준다. 종다래끼, 망태기, 아궁이, 봉당, 부뚜막, 방구들, 부지깽이...

초등 중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어른들도 아이 때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며 동심 속 동질감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제 머리가 심장을 잡아먹어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얼마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한 고등학생이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전교 1등조차 공부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 매년 청소년 자살 180명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우리나라 현실이다. 비단 고등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 방학숙제 하러 방에 들어간 초등 6학년 아이가 방문 손잡이에 도복 띠로 목을 맨 사건이 있었다. 그 아이는 평소에 “학원을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 ‘공부는 누가 만든 것인가? 우리 어린이는 왜 공부만 하고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남긴 말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이 책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5학년 윤아는 엄마가 짜 놓은 계획표에 따라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고, 학습지를 풀고 인강을 듣는다. 전교 2등의 실력이지만 영어 학원 레벨 테스트를 잘 보기 위해 과외를 받고,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또 수학 과외를 따로 받는다. 엄마는 먼저 세상을 뜬 아빠에게 떳떳하기 위해 윤아를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없이 돈 벌기에 바쁘다. 윤아는 자신이 엄마 취향대로 조립되는 DIY 가구와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버둥거린다. 부모도 아이도 미래를 위하여 현실을 저당 잡힌 채 행복을 유예한다.



시간 가게

이나영 글, 윤정주 그림.

문학동네, 2013.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

이 책은 시간 환타지를 다룬 동화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선 차라리 지독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읽힌다. 지금 쓸 수 있는 십 분을 사기 위해 과거의 행복한 기억쯤은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아의 생각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지금은 하고 싶은 것들을 꼭 참고 공부만 하라고 다그치는 어른들 생각의 반영이다. 시간을 주고 행복한 기억을 사는 것 또한, 추억과 행복마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해 놓은 기준과 스펙을 충족시키는 것에 다름 아님을 은유한다.

부모들이 느끼는 삶의 불안이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까지 잠식하기에 이르렀다.¹⁾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은 순진하며 늘 즐거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각각의 나이에 따라 삶을 헤쳐 나가기 위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그 전쟁을 잘 치러내기 위해 아이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윤아도 과감히 시계를 내던지고, 엄마를 향해 작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 영훈이를 향해 팔을 뻗는다. 자기 삶을 찾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다행히 윤아에게는 할머니, (여전히 행복한 기억 속의) 아빠, 엄마 그리고 베프인 다현이가 곁에 있다.

1) 『어린이 책을 읽는다 / 가와이 하야오 著, 비룡소에서 인용

이렇듯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어른들은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제 그만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리고 싶다고 호소할 때, 가만히 문 열어 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로 눈을 돌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빠라고 다 완벽할 순 없어요.

정영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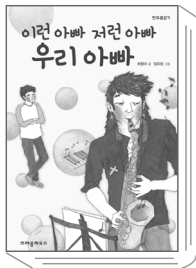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나에겐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다.

넘어지고 다치면서 처음 자전거타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버지였고, 막내 딸 찬밥 먹이지 않겠다고 겨울이면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가져다주신 일이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시원하게 등목을 마치신 후 가만가만 장화홍련을 읽어주시던 분도 아버지였다. 당시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으니 하루 일과 끝의 고단함을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으리라.

아버지가 읽어주시던 이야기를 쫓아 놀람과 한숨이 무시로 교차되던 순간이 너무 또렷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헌신하는 아버지였음에도 아버지가 부끄럽게 느껴지던 때가 나에게도 분명 있었다.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린 아버지의 얼굴을 나는 사랑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것이 밤별이의 숭고함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린 마음에 거무튀튀한 아버지 얼굴은 거부할 대상이었다.

주인공 소니는 색소폰 연주자인 아빠와 아빠의 꿈을 응원하느라 김밥을 말며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엄마와 살고 있다. 아빠가 좋아하는 색소폰 연주자 소니 롤린스의 이름을 따서 이름도 소니일 만큼 색소폰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즈에 쏟는 정성에 비해 가족에게는 소홀하다고 느끼는 소니는 아빠와는 소원하기만 하다. 학교에서 계획한 아빠수업 시간에 아버지를 초대하여 연주도 듣고 재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계획했지만 아빠는 그 약속을 들어주지



이런아빠 저런아빠 우리아빠

최형미 글, 임윤정 그림.

크레용하우스, 2013

* 추천대상 : 초등3학년~초등6학년 및 부모님 / 동화책

않는다. 소니는 이 일을 계기로 아빠에게 갖고 있던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아들과의 사소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깟 음악만 고집하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소니는 아빠가 가장 아끼던 악기도 망가뜨리고 그동안 속에만 담아왔던 말을 다 내뱉고 만다.

아빠는 그 후 연주도 그만두고 엄마의 가게를 돕는데 소니의 마음은 영 편하지 않다. 아빠와 소니는 화해할 수 있을까?

성장기를 보내면서 한 번쯤 품어보는 의문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이다. 왜 나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왜 친구의 부모님에 비해 유독 못나고 약해 보이는지, 모두가 우러러보는 잘난 이가 내 부모님이길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자식들의 그런 저항에 맞서는 현명한 부모의 대처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일까. 소니 아빠의 고백은 참 담백하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몰랐어.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아빠는 아빠가 되는 게 무섭고 어려서 그랬어. 어른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 아빠는 정말 좋은 뮤지션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빠가 된 것 같아. 재즈가 너무 중요해서 다른 건 잘 보지 못한 것 같아”

이 부분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누구나 그렇듯 나도 부모님의 품 안에서 어리광부리던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얼떨결에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내가 그랬듯 아이들도 날 부끄럽게 여기는 때가 올 것 같고 머리가 커가면서 대거리라도 할라치면 ‘나도 너희들처럼 상처받고 약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힌다.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완벽한 부모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커지지만 소년의 이야기를 접하며 부모와 자식 간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소한 진리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그래 조금은 마음을 놓아보자. 이런 엄마, 저런 엄마도 있고 이런 아들, 저런 아들도 있다. 내 주변에는 이런 상사, 저런 상사, 이런 동료, 저런 동료도 있다. 그런 다양한 모양을 한 사람들이 한 데 모여 데굴데굴, 쿨렁쿨렁 구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닌 이런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네 사정에 비추어 읽어도 무방한 재미난 책이다.

엄마, 아빠를 향한 내 마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이혼대비 비밀노트는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의 상황을 지켜보며 아이가 써내려간 심경고백이다. 표지그림만 봐도 주눅이 든 불안한 아이들의 기운이 감지된다. 고민 가득 한 얼굴을 하고 글을 써내려가는 아이가 정면에 드러누워 있고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처럼 금방이라도 깨질듯 한 방문, 책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그마한 꼬맹이 둘이 시선을 잡는다.

이혼을 대비하다니 짝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보니 이젠 이혼이란 주제도 더 이상 동화책의 소재로 낯설지 않게 된 것 같다.

한편에서는 이혼을 대비하고 다른 한편에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헤어짐과 맞닥뜨리는 등 과정은 다르겠지만 그 수월찮은 과정을 객관화시켜 보여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주인공은 이혼하기 직전의 부모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소녀 재인이다. 재인이는 속이 짝차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열 살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여덟 살밖에 안된 어린 쌍둥이 동생을 보며 살짝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돌봄 교실에 다니는 쌍둥이 동생들을 돌보느라 친구와의 사사로운 시간을 포기해야 하지만 돌봄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자신은 방학 중엔 집에 있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줄도 아는 당찬 아이다. 그런 재인이라도 매일 엄마, 아빠의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다툼의 소리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혼 대비 비밀노트

박채란 글, 원혜진 그림.

주니어랜덤(알에이치코리아). 2013.

누가 봐도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에 불과하지만 상황은 허구한 날 싸우는 부모 때문에 자신의 걱정 따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오히려 씩씩한 아이 때문에 독자는 더 마음이 아프다.

아이다운 생각으로 이혼을 막아 보려 궁리 끝에 작전을 펼칠 때도 (엄마 아빠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방청소하기, 쌍둥이 동생 돌보기 등으로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주기, 집안 구석구석에 추억이 가득한 사진 걸어놓기 등이 그것이다)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으면 어쩌나 어린 마음이 콩콩거릴 때도 이미 이혼한 엄마와 아빠를 둔 친구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로 닥치면서 불안과 공포가 최고조에 오를 때의 아이의 마음을 온전하게 공감할 수 있다. 비극적인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했으나 막상 제 부모에게서 이혼을 통보받았을 때 무방비 상태로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에 이르러 나도 그만 울고 말았다.

나의 유년시절을 되짚어보면 부모님들 간 결혼을 깨는 일이 드물었던 것 같고 지금도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지만 이혼이란 소재를 다룬 어린이 책을 읽은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행복한 가정과 천진난만한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아이들의 세계란 부드러운 것, 보기 좋은 것만 보여줘야 할 것만 같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90년대 4만에서 2012년에는 무려 11만 4,000건에 달하고 이혼하는 주 연령층은 40대 초반이라고 나와 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상처를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혼가정과 이혼 후를 다룬 어린이용 책들이 모두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부모의 이혼 앞에 무섭고 외로웠을 아이의 등을 껴안아 주고 싶었던 저자의 애절한 마음이 글 중간 중간에 잘 녹아 있다. 또한 헤어짐의 귀로에 서있는 상처받은 어른들을 향해서도 저자는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

결말을 미리 귀뜸해 준다면 재인이는 이혼대비 비밀노트 대신 친구와 교환일기를 쓰고 있다는 것만 밝혀둘까 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수많은 이땅의 엄마, 아빠, 언니, 동생들아. 파이팅하자!

일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수경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7시반경 집을 떠나 학교에 가고 오후 서너시경 차량에 실려 밤늦도록 학원 수업을 듣고 귀가한다. 시간차는 있겠으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이 생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집, 학교, 학원 이 틀 안에서 친구들과 놀거나 시간을 채워나간다.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만든 시간표에 맞춰나가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채 살아간다.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아이들을 삶의 불안감에 쫓기는 어른들이 키우고 있다. 세계 경제 순위 13위인 나라에 살지만 무한 경쟁체제를 내재화한 어른들은 명문대, 정규직, 노후보장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 채 내달리는 경우가 많다.

유은실 작가의 「일수의 탄생」은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지’이다. 새마을 문구점 외아들 ‘백일수’는 모든 것이 특별할 것 없는 완벽히 보통인 아이다. 성격도, 성적도, 인물도 어느 한 곳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아이. 일수를 대하는 엄마의 엄청난 기대와 아버지의 달관한 태도도 어쩌면 일수를 보통 아이로 만든다. 부부의 상반된 태도 또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보통 아이 일수는 엄마의 기대에 눌러 눌 주눅 들어 있다. 보통 아이 일수는 자라면서 더 잘나지 못해 미안하고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한다. 삼십대 중반까지 일수는 학교도, 학원도, 군대도, 직장도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결정해 본



일수의 탄생

유은실 글, 서현 그림.

비룡소, 2013.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적이 없다.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준 틀에서 쳇바퀴 도는 생활이다. 서예 스승의 선문답 같은 질문에 우물쭈물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일수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우리 또한 답해보았던가 되묻는다. 작가 특유의 밝고 명랑한 분위기와 가벼움 속에서 가슴을 울리는 대사는 여전하다. 21세기 무한질주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은 일수 부모님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일수가 쓴 서예 작품 ‘하면 된다’를 자랑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나한테 별 기대를 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대단해지지 않아도 죄지는 느낌 없이 살 수 있는 거”

자기계발 의지와 각종 스펙으로 중무장한 채 죽을 때까지 생존 경쟁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꿈’까지 가지라고 말한다. 직업의 종류와 아파트 평수는 묻지만 ‘너는 누구냐’, ‘너의 좋고 싫음은 무엇이나’ 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회에서 완벽히 평범한 일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자신에게 질문하는 법,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궁금한가.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동화’를 꾸준히 읽는 일, 그것이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일지도 모른다.

글을 맺으려니 문득 생각한다. 일수는 하필이면 새마을 문구점 아들로 태어나

‘하면된다’는 어머니의 거대한 기대 속에 주눅 들어 살아왔다. 여성학자 정희진의 말처럼 ‘물에 빠진 나를 구한 통나무가 나를 물속에 붙잡아 둘 때’의 경우와 같지 않은가? 전력질주로 세계 경제 13위의 나라는 되었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일수의 탄생」은 이제 성찰을 통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가볍고 편안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할머니의 사랑은 자연의 사랑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옥이와 할머니....

어떻게 둘이 살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옥이는 서산의 자연 환경 속에 자연이 주는 풍성한 먹거리를 한시도 안 쉬고 바쁜 할머니와 함께 쫓아 다니며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떤 경로로 분배해야 하는 줄을 할머니를 통해 배워 간다.

‘가을’ 편 『할머니 어디 가요? 밤 주우러 간다!』는 서산 어떤 마을에 바쁜 가을이 돌아왔어요. 끼룩끼룩 기러기 우는 가을날에 맛난 반찬 귀한 반찬 하러 갯가로 망둥이를 잡으러 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웃아저씨와의 에피소드를 회화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여 그림만보고도 웃음이 나온다. 그것을 가공하여 장에 내다 팔고 남은 것은 가져와 이웃들과 술안주로 내놓으며 할머니는 망둥어 잡는 법부터 허풍을 떨며 날이 저물도록 이야기꽃을 피운다. 고단하고 가난하지만 이웃과 정이 있고 삶의 여유가 묻어나는 장면이다. 위트와 회학이 있는 시골 정취가 묻어난다.

일곱 살 옥이는 할머니와 이번에는 산으로 밤 따러 간다. 할머니와 함께 덩불을 헤치고 밤을 주우러 가는 장면이 표지장면인데 할머니의 사랑과 여전히 일상의 회학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할머니는 옥이가 다치지 않도록 할머니의 몸으로 옥이를 감싸고 덩불을 지나가는데 옥이는 납작 눌러 그만 개똥에 얼굴을 묻게



할머니, 어디가요? 밤 주우러 간다!

조혜란 그리고 씬.

보리. 2010

버리고 만다. 그래도 할머니가 감싸주어 덤불에 찢리지 않고 밤이 많은 장소로 무사히 들어와, 주운 밤으로 약밥, 송편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간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약밥을 판돈으로 옥이에게 고운 한복 입히고, 한가위를 맞아 도시에서 아빠, 엄마가 오서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한다.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추석을 보낸다.

자연의 풍성한 베품과 할머니의 사랑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림에서나 글에서 웃기고 유쾌하다는 생각과 자연이 주는 거칠지만 따뜻한 사랑이 서산 마을 아래서 신나게 뛰어노는 옥이와 시골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는 혜택이 고스란히 발랄한 문장과 그림 속에 담아 녹아있다.

살아있네~ 모험!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호랑이 눈썹』을 비롯해 총 네 편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에는 날 것 그대로의 상상과 모험이 가득하다. 희동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기 공룡을 만나고, 개미떼의 총 공격을 받지만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온다. 부끄럼쟁이 소미는 여우 신발을 신고 투명인간이 되어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귀여운 복수를 감행한다.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놀던 호랑이와 공룡, 투명인간은 우리가 떠나온 후에도, 아이들과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었구나. 어린 시절 그 녀석들이 수업시간이건 시험 시간이건 아랑곳 하지 않고 불쑥 불쑥 찾아오는 통에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곤 했던가. 엄마께 야단맞을 때도 느닷없는 그들의 방문으로 ‘탄 생각한다’고 혼 줄이 나곤 했었는데, 이렇게 까맣게 잊고 지냈을 줄이야. 펄떡펄떡 살아 있는 이야기들이 잠자고 있던 어린 시절 추억들을 줄줄이 호출해 낸다. 아이의 생각이 뛰어 놀아야 할 곳은 진정 영어단어장이 아니라 이렇듯 살아있는 세계여야 하거늘.

아이가 숙학문제 풀다말고 ‘이 친구’들을 불러내어 놀고 있을 때, 애써 끄집어내어 방해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리라. 상상과 현실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상상의 세계 또한 현실 세계 못 지 않게 중요한 영역이다. 아니 어쩌면, 어른들이 상상이라 부르는 그 일들이 우리가 잠시 한 눈 파는 사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상상력이 살아있는 이런 좋은 동화



호랑이 눈썹

이반디 글, 서현 그림.

한겨레 아이들. 2013.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중학년

들이 아이들 세계의 외연을 넓혀주고 어른들의 공감지수를 높여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한편, 이 책에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험의 세계 뿐 만 아니라 동생이 태어난 후 어린 형이 겪어 내는 마음의 혼란과 아이들 눈으로 바라본 어른 세계에 대한 신랄한 풍자, 소외된 자의 외로움까지도 슬쩍 배어있다. 아직 많은 작품을 쓰지 않은 신에 작가지만 내공만큼은 남다르다. 이 작가, 혹시 우리가 탕! 하고 문을 닫고 나온 뒤 잊고 지냈던 어린이 세계로 가는 비밀통로를 알고 있거나, 어른들은 볼 수 없는 마법의 세계를 훑쳐보는 호랑이 눈썹하나 몰래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지식정보책 서평

고양이네 미술관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고만네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공정무역 : 행복한 카카오 농장 이야기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남대문이 살아있다	박규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도깨비감투로 레이더를 속여라	박규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라이카는 말했다	박규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벼리서당 수상한 책벌레들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세밀화로 보는 왕잠자리 한 살이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엄마꼭지연	한선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역사와 미술이 재밌어지는 김홍도 갤러리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옛 그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이지연	(안성시 중앙도서관)
왕가리 마타이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우리집 막걸리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조선 제일 바보의 공부	맹진아	(안성시 중앙도서관)
책 만드는 이야기 들어볼래?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프렌토 시리즈	김미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호박이 넝쿨째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아름다움을 전한) 해곡 최순우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고희(70세)축하 선물로 고양이 그림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관장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백과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며, 그 산물 중 하나인 그림에는 조상들의 눈길과 그들의 어진 마음과 삶의 터전이었던 자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에게도 세밀하게 터럭 하나까지 나타내면서 육중하고 용맹한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호랑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활상, 주변의 식물과 동물들, 우리의 산하를 그리면서 그들의 정신을 함께 남겨놓은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서양의 명화 제목은 몇 가지 댈 수 있어도 우리나라 그림의 제목이나 작가들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고양이네 미술관』은 우리 그림과 가깝게 해주며, 우리 그림을 보는 방법을 알게 하고,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갖게 한다.

김홍도의 <황묘농집도>에는 칠십 노인을 뜻하는 주황빛 새끼고양이와 팔십 노인을 뜻하는 검정빛 제비나비, 장수를 뜻하는 이끼 낀 돌맹이, 청춘을 뜻하며 여름에 피는 주홍색 패랭이꽃과 만사여의를 상징하는 봄에 피는 보라색 제비꽃이 한 화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전체 그림을 합쳐 읽으면 생신을 맞은 어르신께서는 부디 칠십, 팔십 오래도록 청춘인 양 건강을 누리시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이뤄지소서 하는 축원’을 하는 선물로 그린 그림이다.

『고양이네 미술관』은 이 <황묘농집도>속 고양이와 나비가 그림을 그린 당시의 우리나라의 산천을 돌아다니며 옛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와 함께 사계절의 풍속



고양이네 미술관

강효미 글, 강화경 그림.

상상의 집. 2012.

그림들을 감상하게 한다. 노란 줄무늬의 아기고양이 동작과 표정이 어린이들을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 주면서 조상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으며, 중간에 삽입된 그림이나 뒤에 수록된 명화 읽기로 작가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에서 빠진 그림 이야기 그리고 당시의 풍속을 좀더 확장할 수 있게 하여 고학년들도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옛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유도한다. 오래 바라보거나 찬찬히 들여다보는 사이에 그 속에 담긴 친근하고 진솔하면서도 해학이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책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100년 전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다른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생활은 어떠했을까? 이 책은 ‘고만네’라는 여자 주인공을 통해 100년 전 북간도의 생활과 우리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책 제목 ‘고만네’는 "딸은 그만 낳으라."라는 뜻으로 이 책 속의 주인공 김신묵의 어렸을 때 이름이다. 김신묵은 우리에게 통일 목사로 널리 알려진 문익환의 어머니 이면서, 이 책의 글쓴이 문영미의 할머니이다.

고만네 가족이 먹을 것이 풍족한 북간도로 이사를 가서 살았던 1899년부터 1946년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이야기로, 북간도의 기후와 생활, 결혼,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을 볼 수 있다. 100년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여성은 글을 배우기 어려웠지만, 주인공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

김진화 그림 작가의 고만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신선한 관점이 돋보이고, 지도, 집의 구조, 학교, 결혼 장면 등 고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림이 글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한다. 콜라주로 얼굴을 붙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게 그려진 그림, 그림 속 연필로 쓴 짧은 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그림이 특히 글과 함께 책 속에 빠져 들게 하는 매력이 있다.



고만네 : 백년전 북간도 이야기

문영미 글, 김진화 그림.

보림. 2012. 12,000원.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김신묵의 사진이 함께 있어, 100년 전 북간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이 책은 2012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디자인이 좋은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공정무역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요즘 사회가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말들을 심심찮게 듣게 된다. 공정무역이 무엇일까, 왜 공정무역을 이야기하는가, 쉽고 친절한 설명은 없을까 궁금하던 차에 아동도서 신간 서가에서 공정무역이란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웁거니 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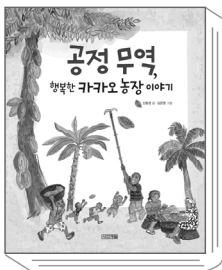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는 달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무난하게 읽을 수 있겠다. 공정무역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책을 대하더라도 큰 즐거움을 따라 가는데에 무리가 없도록 이야기가 한 편씩 끝날 때마다 연관 지식을 소개하여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카카오 농사의 유래, 카카오 나무의 성질, 카카오 열매로 만드는 초콜릿 이야기, 열매를 수확하는 날 풍경 등이 시원시원한 그림과 함께 펼쳐진다.

책의 뒷 표지에 이 책의 내용이 가장 모범적인 공정무역 생산지의 사례로 꼽히는 아프리카 가나의 쿠아과 코쿠 협동조합의 실제 사례임을 밝히고 있다.

주인공 소년 아사모아네 마을에서 황금처럼 귀하게 거래하던 카카오 콩(열매의 표현)이 가격 급락으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가난해지고 땅이 황폐화 되면서 마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을사람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함께 지혜를 모은다.

그래서 카카오 콩을 팔 때 함께 모여 협상을 한다거나 비료 대신 천연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시간이 걸려도 카카오 열매를 꼭 햇볕에 말리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해서 품질 좋은 카카오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공정무역 : 행복한 카카오 농장 이야기

신동경 글, 김은영 그림.

사계절, 2013.

공정무역을 통해 카카오가 제 값을 받게 되면서 마을에 병원이나 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우물을 만들어 깨끗한 물도 마실 수 있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즐거리다.

지구는 하나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고 너나할 것 없이 세계화를 외친다. 앞으로 체감하는 국가 간 심리적 거리는 갈수록 줄어들지 싶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초콜릿 하나를 깨물어도 예사롭지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 제품을 거래하는 곳이 있다. 책에서 알 수 있듯 공정무역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의 정성과 노동이 들어간 것으로 정당한 값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혼자만 잘 살자고 불끈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 보자는 “같이”의 가치를 알고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나 홀로보다 “우리”의 필요가 훨씬 힘이 세다는 것을 이 책은 정직하게 말해준다. 아사모아처럼 척박한 땅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새 신발을 살 수 있다는 작은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 불필요한 아동 노동을 막을 수 있는 것, 내일을 꿈꾸게 해주는 것, 무엇보다 정당한 노동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함께 그리고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오래오래 잊지 말아야겠다.

그것은 결국 쿠아파 코쿠(훌륭한 카카오 농부)가 되겠다는 아사모아의 꿈을 응원하는 일이 될 테니까.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묻는 어린이의 책상에 놓아주고 싶다.

남대문이 살아있다.

박규상

경기도 365열린도서관 사서

2008년 2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남대문의 화재를 기억하나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남대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대문? 아,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이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남대문이 화염과 자욱한 연기에 뒤덮이고 그곳에 소방관들이 설 새 없이 물을 뿌릴 때 방송을 통해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은 같이 가슴아파하고 맘 졸였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가 얼마나 소홀히 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죠.

남대문은 대한민국의 국보 1호입니다. 왜 남대문이 대한민국의 국보 1호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남대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남대문은 조선의 도읍지 한양에 만들어진 사대문 사소문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도성의 정문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남대문의 중심, 그러니까 둥그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생긴 문을 홍예문이라 부르는데 남대문은 이 홍예문을 가운데 두고 돌을 높이 쌓은 다음 그 위에 2층으로 문루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위에서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 장식이 공포라는 것인데, 이 공포는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남대문은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지 않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포 양식이라고 한답니다. 다포양식은 건물을 훨씬 화려하고 풍부하게 보이게 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지붕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 건축의 기와지붕에는 맞배지붕, 팔작지붕,



(송례문 600년 이야기) 남대문의 봄

이현숙 글, 유기훈 그림.

책과함께어린이. 2013.

우진각지붕 등이 있는데 남재문은 우진각지붕입니다. 우진각지붕은 용마루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추녀마루로 이어지니까 앞에서 보면 사다리꼴, 옆에서 보면 세모꼴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상이 남대문의 겉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남대문의 역사, 상징적인 의미는 잘 모르고 있을거예요.

이 책 ‘남대문의 봄’은 각 장이 남대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이렇게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대문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마치 남대문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며, 1396년 조선의 성곽을 쌓으며 시작된 남대문의 일생 속에서 조선의 역사를 한 장면 한 장면 남대문의 시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대문은 여러 번의 보수작업도 거치고 조선의 많은 역사와 민중의 삶을 지켜왔으며 일제 강점기에 헐릴 뻔 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중요한건 남대문이 인간처럼 순간순간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읽고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 조선의 역사와 사건들을 이 책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며 역사를 흥미롭게 만들어 줍니다.

책을 다 읽었다면 남대문으로 가보세요.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남대문이 이제는 새롭고 장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도깨비 감투로 레이더를 속여라

박규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사서

창의적 융합 인재 교육

‘저학년 STEAM 스쿨’ 제5권

책의 뒷면에 적혀있는 이 문구는 책을 상당히 거창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진다. ‘STEAM’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한 것일까? ‘STEAM’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약자로, 다양한 분야와 과목을 통합한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별 교과목에 대한 각각의 학습 대신 여러 과목을 아우르는 교육이 이제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많이 들어본 전래동화 8편이 실려 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전래동화들이다. 매 페이지마다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적은 내용의 글이 들어있어 쉽게 페이지가 넘어간다. 중간 중간에는 작은 네모상자에 ‘특 특 과학 양념’이라는 짧지만 알찬 과학상식이 들어있다. 전래동화가 끝나면 그 재미난 여운이 가시기전에 전래동화와 관련된 과학 내용에 관해서 짚어 주는 ‘이야기 속 숨은 과학’ 코너가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빠딱하게 보는 과학’에서는 전래동화 속에 나온 과학 내용을 살짝 비틀어서 새로운 과학 내용을 생각하게 해준다.

도깨비감투라는 전래동화를 읽으며 아이들은 투명인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아이들이 뭔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도는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이 책에서는 도깨비감투 바로 뒤에 ‘스텔스 기능’과 ‘투명



도깨비 감투로 레이더를 속여라

백명식 글, 그림.

다봄. 2013.

망토'와 같은 내용을 실어서 아이들이 쉽게 과학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상한 향아리라는 전래동화는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커다란 향아리를 하나 켜는데 그 향아리에 물건을 넣으면 똑같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 신비한 향아리였고 그걸 알게 된 마을 원님이 그 향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병든 원님의 아버지가 그 향아리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향아리에서는 원님의 아버지가 끝없이 나와서 원님은 결국 땅에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말았다는 재미있는 내용이다.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사람이 복사기처럼 계속 복사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뒤에 바로 '복사기의 원리', '인간복제'에 관한 과학 상식이 나와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저학년 STEAM 스쿨 시리즈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실린 전래동화와 과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구성되었다. 그냥 재미로 읽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전래동화에서 과학적 지식을 집어내어 재미와 과학지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이다. 1권부터 5권까지 꼼꼼히 읽어본다면 상당한 양의 과학적 지식을 얻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이 쉽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된다.

저자 백명식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울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위대한 쌀과 밥」, 「김치 더 주세요」 등을 직접 쓰고 그렸다. 중앙광고대상, 서울 일러스트상, 2008년 한국일보 선정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상을 받았다.

지렁이과 강아지풀의 생물학이야기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사서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이면 매년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식물채집과 곤충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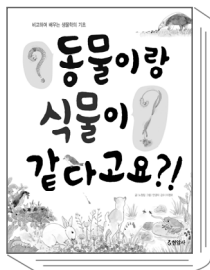
방학숙제를 하기 위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쑥, 민들레, 애기똥풀 등을 뿌리째 뽑아 말려서 스케치북에 붙이고, 잠자리, 매미, 나비 등 곤충을 잡아 상자에 넣고 핀으로 고정시켜 제출한 기억이 있다. 요즘도 그런 숙제가 있으려나?

새로 구입한 책을 살피다가 옛 추억을 떠올리는 책을 발견했다. 딱딱하지 않은 글씨체로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라고 써어 있고, 표지에 예쁘게 그려진 지렁이, 강아지풀, 토끼, 개구리, 클로버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책들은 보통 출판사에서 기획하여 전집으로 나오는데 이 책은 어디를 살펴봐도 총서명이나 권차 번호가 없었고, 단행본으로 되어 있어 더욱 더 눈길을 잡았다. 딱딱할 수 있는 동물, 식물, 생물학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첫 페이지를 여니, 동물에는 지렁이가, 식물에는 강아지풀이 그려져 있고 말풍선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생물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며,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다. 동물과 식물의 공통점을 그림과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먹고, 숨 쉬고,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자손을 퍼뜨리고...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

노정임 글, 안경자 그림, 이정모 감수.

현암사, 2013.

* 추천 대상 : 유아 ~ 초등 및 중학교

또한 다른 점도 설명하고 있다. 동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지만,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옮겨 다닐 수 있지만, 식물은 옮겨 다닐 수 없다.

이 책의 특징은 그림이다.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들의 그림이 나온다. 사진 같은 실물은 아니지만 특징을 잘 찾아내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 같다. 그림이 너무 예뻐 이면지에 따라 그려보기도 했다. 그림공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작가 노정임은 논픽션 책을 편집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기획하고 글을 써서 펴낸 책으로 「꽃이랑 소리로 배우는 훈민정음 ㄱ ㄴ ㄷ」,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 「개미 100마리 나뭇잎 100장」, 「애벌레가 들려주는 나비 이야기」, 「무당벌레가 들려주는 텃밭 이야기」 등이 있고,

그린이 안경자는 산 좋고 물 맑은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나 서양화를 공부하고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식물 세밀화와 생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린 책으로는 「풀이 좋아」,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풀 도감」, 「짚레 먹고 뿌지직!」 등이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이 책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

"나는 지구 대표 라이카입니다."

박규상

경기도 365열린도서관 사서

라이카는 말했다?

라이카가 뭐라고 말했는데? 근데 라이카가 누구야? 책의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라이카(Laika)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중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한 러시아의 강아지이다. 1957년 11월 3일, 러시아는 두 번째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했다. 거기에는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이카였다. 라이카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럼 라이카는 어디로 갔을까?

책에 따르면 아주 먼 곳, 뿌그별에 사는 올라올라와 6명의 동료들이 호라 1호를 타고 우주로 향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뿌그별은 외계행성이고 올라올라와 동료들은 외계인이다. 뿌그별은 노란빛이었다. 올라올라와 라이카는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다. 라이카는 호라 1호를 타고 뿌그에 도착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구 대표 라이카입니다.’

그렇다. 인류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나 달에 첫발을 내딛은 닐 암스트롱 뿐 만 아니라 라이카도 지구의 대표였던 것이다. 그것도 최초로 우주에 나온 지구생명체 대표이다. 라이카는 분명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하었을 것이다.



라이카는 말했다

이민희 글, 그림.

느림보출판사, 2007.

뿌그인 올라올라는 우주지도에 지구를 그려 넣고 지구인을 라이카얼굴로 그려 넣는다. 강아지의 얼굴이 지구인으로 그려진다. 이상하지만 뿌그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처음으로 만난 지구 생명체가 강아지였으니 지구인이 강아지처럼 생겼다고 그렸을 수밖에... 그리고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지구로 찾아올 것이라고 한다. 뿌그인들은 정말 지구로 오고 있을까? 아니 어쩌면 벌써 다녀갔을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 많은 강아지(그들에게는 지구인)를 만나고 돌아갔을 지도...

이 책은 실제의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쓰여 졌다. 서평자 본인도 라이카의 존재를 이 책을 읽으며 알았듯이 책을 읽는 아이들로 하여금 라이카의 존재와 지금의 기술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또한 라이카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주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우주는 다르다는 것도 표현했다. 라이카는 우주에서 외로워하고 배고파하고 지구를 그리워한다. 인간에 의해 억지로 우주로 내보내진 라이카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쓰고 그린 이민희 작가는 이 책과 '옛날에는 돼지들이 아주 똑똑 했어요'로 한국 안테르센상 미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책의 그림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느낌을 주어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독서왕을 뽑아라!!!

이은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사서

『버리서당 수상한 책벌레들』은 상을 받기 위해 책을 읽고 독서록을 쓰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읽고 잘 쓰는 법, 배운 것을 실천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준다. 조선 후기 한 서당에서 벌어지는 독서왕 대회를 중심으로 양반 자제 엄도령, 상인 자제 나한길, 농부의 여식 우강이가 펼치는 독서록 쓰기 경쟁과 ‘제대로 읽고 실천하라’, ‘읽고 기록을 남겨라’라는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독서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

책 표지만 보아도 재미가 있다. 책이 많이 쌓여있는 조선시대 책방에 책을 안고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심술이 잔뜩 난 도령,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책을 찾고 있는 남자아이를 보면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신분 등을 짐작케 하고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우강이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훈장님께 인사를 온다. 계집아이가 과거도 보지 못할 텐데 글은 뭐하러 배우려고 하냐는 훈장님의 질문에 입신양명을 위해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읽기를 좋아해서 글을 읽고 싶다는 당돌한 대답을 한 강이는 다음날부터 서당에 나가게 된다.

버리서당에는 양반의 자제인 엄대수, 상인의 자식인 나한길, 평민이며 계집아이인 우강이가 함께 공부하게 된다. 그러나 엄도령은 서당에 양반이 아닌 자제들이 다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계락을 꾸미게 된다. 이름하여 독서왕 대회!

독서왕 대회를 열어 책을 가장 많이 읽고 독서록을 작성한 1등은 향교로 갈 수 있는 추천서를, 꼴찌가 된 사람은 서당에서 쫓아내는 내기를 걸게 된다. 한길이와



버리서당 수상한 책벌레들

이병승 글, 우혜민 그림, 강백향 도움글

계림박스, 9000원, 그림책

* 추천 대상 : 초등학교 중학년

엄도령은 서로 경쟁심에 불타올라 엄도령이 한길이의 독서록을 변소에 빠뜨리게 되고, 한길이는 강에게 독서록을 대신 써달라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독서왕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ㅎㅎ

엄대수? 나한길? 우강의?

이야기가 끝나고 책 뒷장에 가면 "진짜 독서왕이 되고 싶은 사람만 읽어요!"란 코너가 있다. 자신의 독서능력이나 독서스타일도 직접 테스트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책이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 번더 생각해보고 귀감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저자 이병승은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늘 '심심해'를 외치면서 신 나고 재미있는 것만 찾아다니며 공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 '의미', '재미'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안 다니는 길만 골라 다녀서 외로움도 많이 탄다. 시와 소설, 만화 스토리 등을 썼고, 현재는 동화와 동시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나리오와 청소년 소설도 써보려고 한다. 시속 200쪽의 속도가 붙을 만큼 재미있게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그러면서도 문학적 향기와 뼈가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으며, 1989년 '사상문예운동'으로 문단에 나왔고, 2009년 푸른문학상, 눈높이아동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영화 콘텐츠 대전 등을 수상하며 아동문학을 시작했다. 그동안 낸 책으로 '빛보다 빠른 꼬부기', '차일드 폴', '내일을 지우는 마법의 달력', '초록 바이러스', '톤즈의 약속', '초능력 배우기', '난 너무 잘났어!', '여우의 화원', '난다 난다 신난다' 등이 있다.

아침이 오면 또 다시 멋진 왕잠자리를 보게 될 거야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관장

지난 가을 중학생들과 산속에서 운영하는 독서캠프에 참석하였던 적이 있었다. 휴식시간에 학생들은 왕잠자리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죽어있는 것을 보고 무섭다고 웅성거리면서, 이것이 무엇이나고 물어왔다.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큰 잠자리를 한 번도 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릴 때는 도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던 곤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태계 변화의 심각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옛날에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던 곤충들을 책을 통해 익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세밀화로 그려진 여러 가지 잠자리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이 『세밀화로 보는 왕잠자리 한살이』이다.

동양화를 공부하고 우리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세밀화로 그리고 있는 작가가 나비와 사마귀에 이어 이번에는 잠자리에 대한 책을 펴냈다. 애벌레가 잠자리로 변신하는 모습, 짝짓기 과정, 알을 낳고 애벌레로 물속에서 살아가는 잠자리의 한살이를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답게 보여 준다. 또한 나비, 모기, 각다귀, 하루살이 등 잠자리의 먹잇감과 제비, 사마귀, 말매미, 산왕거미 등 잠자리의 천적 등 다른 곤충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밀잠자리, 두점박이줄잠자리, 고추잠자리,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나비잠자리, 아시아실잠자리 등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잠자리의 여러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세밀화로 보는 왕잠자리 한살이

권혁도 글, 그림.
길벗어린이. 2013.

이 책은 “조용하고 어두운 초여름 밤이야.....”와 같이 옛날이야기를 듣듯이, 그리고 듣다보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자연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림의 배경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연두색의 상쾌함은 곤충들을 친근하게 호감을 갖고 만날 수 있게 하였다. 연두색 수초가 있는 작은 연못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느끼게 하고, 첫 장과 마지막장에 왕잠자리 애벌레가 날개돋이를 하고 있는 밤의 풍경을 흐릿한 먹물 색으로 같은 느낌을 주어 잠자리의 한살이와 함께 자연계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책의 뒷부분에는 왕잠자리와 애벌레를 크고 자세하게 세밀화로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과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연못에서 볼 수 있는 잠자리들을 별도로 수록하여 어린이들과 자연 학습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책이다.

할아버지와 즐거운 추억, 엄마꼭지연

한선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사서

엄마꼭지연?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낯설었다.

그림을 보아하니 연에 대한 책인데, 엄마꼭지가 무엇일까? 어른들도 잘 모르는 연에 관한 내용을 동화와 그림, 연에 대해 자세한 설명까지 해주는 <엄마꼭지연>은 전통문화그림책 <술거나라>시리즈의 책이다.

엄마꼭지연이란 제목은 표지만 주의하여 살펴보아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페이지를 몇 장 넘기면 현이의 연이 왜 엄마꼭지연인지 알 수 있다. 연에서 꼭지란 방구멍을 뚫어낸 종이를 더 작게 오려 방구멍 위를 장식한 부분이다. 이 책의 주인공 현이는 꼭지에 보고 싶은 엄마의 얼굴을 그려 엄마꼭지연을 만들었다. 연 만들기, 연날리기라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엄마를 기다리는 현이의 마음을 담아 내용을 만든 이 동화는 엄마를 빨리 만나고 싶은 현이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맞벌이 부모여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던 현이는 곧 초등학교 입학 하기에 이제 엄마와 같이 살 예정이다. 엄마가 현이를 데리러 오시기로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가 언제 오느냐고 묻는 현이. 그런 현이를 위해 할아버지는 같이 연을 만들어 날려보자고 하신다. 연에 대해 박식한 할아버지께서 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현이는 엄마꼭지연을 만들며 엄마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연 날리러 나가서는 할아버지 연줄을 끊으려다 현이연이 끊겨 엄마꼭지연은 바람을 타고 동실동실 날아간다. 그 모습을 보고 현이는 엄마가 연을 보고 빨리 오시라는



엄마꼭지연

최재숙 글, 김홍모 그림.

보림, 2012.

소원을 빈다. 동화는 이렇게 끝나지만, 뒤표지를 보면 엄마를 보고 반갑게 달려가는 현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시는 할아버지도 볼 수 있다.

현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읽고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다시 읽어보았다. 같이 지내며 정든 사랑하는 손자를 올려 보내는 할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쉬우셨을까? 손자에 대한 아쉬운 마음에 한 가지 추억이라도 더 남기고 싶은 할아버지가 연을 같이 만들자고 하신 건 아닐까? 연을 만들며 현이와의 추억을 함께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엔 미소가 가득하다. 방안에 많은 연이 있는 걸 보면 할아버지는 연에 대해 많이 아실 것이다. 자신이 잘 아는 내용을 손자에게 가르치며 함께 만드는 할아버지의 즐거움은 떠나는 손자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길 것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현실은 유채색으로,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채색으로 표현하여 공간을 공유한다. 또한 할아버지가 연 날리던 시절과 달집 태우는 장면에선 할아버지와 현이가 그 시대로 들어가 같이 느낀다. 추운 겨울의 모습이지만 즐거운 연 만들기, 연날리기를 통해 현이도 할아버지도 현이의 두꺼운 파란 잠바처럼 따뜻한 추억이 만들어진다.

연을 날리는 모습에서 등장한, 생소하지만 아름다운 단어가 흥미롭고 더욱 재미

있게 다가왔다. "깡다깡다", "동실동실", 작은 물체가 흔들리고, 움직일 때 쓰는 표현인데 현이처럼 작고 가벼운 엄마꼭지연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어린이에게 연에 대해 쉽게 알고자 풀어쓴 동화의 내용은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익숙지 않은 내용이 많기에 7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읽기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놀이 연날리기를 어린이의 시각에 맞춰 재미와 정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되어 다가온 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른 곳에 나가 연을 날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홍도를 만나러 가요!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관장

한국의 그림은 서양의 그림과 감상법이 다르다는 것을, 옛 그림은 옛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김홍도의 그림을 천천히 자세히 보았던 적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옛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옛 그림에 나타난 선조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역사와 미술이 재밌어지는 김홍도 갤러리』라는 책을 만났다. 이 책은 화가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그림이 나오는 책이다.

18세기에 살았던 김홍도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조선시대 화가로 그림뿐만 아니라 시도 잘 짓고 음악에도 능했던 예술가였다. 정조임금이 가장 사랑하였던 화가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직접 주문하기도하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였다. 그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풍습, 등장인물들의 표정으로 그들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린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조화, 불교화, 기록화 등 다양한 그림을 1300점 이상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여점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1장 김홍도 아저씨를 만나러 가자!」에서 김홍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2장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러 가자!」는 풍속화 25점을 「3장 김홍도의 다양한 그림을 보러 가자!」에서는 풍속화가 아닌 다른 그림들 9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그림만 소개된 책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림속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좀



역사와 미술이 재밌어지는 김홍도 갤러리

이광표 글, 채원경 그림,
그린북, 2012.

더 이해하기 쉽게 된다. 이 책은 김홍도의 풍속화 작품 전체를 보여주고, 부분을 떼어서 그림 구도에 관한 설명과 그림속의 상황, 인물들의 표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자칫 지루하기 쉬운 옛 그림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있다.

조선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의 삶과 작품들을 ‘~래요, ~할래?, 만나러 가자’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체로 설명하며, 작품의 제목을 낙서처럼 표시하거나 말풍선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풍속화 설명 다음에는 옛날 풍속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단어나, 그 시대의 풍속 및 역사자료를 수록해서 그림과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옛 그림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은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읽으면서 김홍도의 작품과 조선시대 풍속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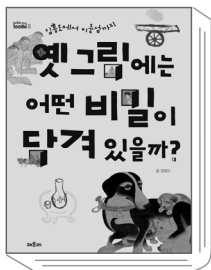
옛 그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이지연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은 안견, 이암, 신사임당, 김명국, 정선, 김홍도, 신윤복, 강세황, 정약용, 김정희, 장승업, 나혜석, 이중섭 13인의 우리 화가에 대한 이야기다. 오색찬란한 서양화와 달리 풍류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우리 그림이 교과서에 충분히 실리지 못해 참 안타까웠다. 이 책은 옛 화가가 독자에게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작가의 삶, 작품이 생겨난 배경,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 등 작품과 작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흥미를 더한다. 한국 미술을 전공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문예창작과 출신으로 아이의 눈빛에 맞춰 더욱 재미있는 어린이 책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다.

조선 초 화원이라는 벼슬로 종4품 벼슬까지 오른 안견의 산수화 이야기가 첫 단락을 장식한다. 안평대군이 꿈꾸고, 안견이 그린 <무릉도원도>는 학창 시절 단골 시험 문제였다. 열심히 외웠지만, 그림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의 2페이지에 걸쳐 실린 <무릉도원도>는 현실 세계의 모습, 도원으로 가는 경계인 이단폭포, 분홍빛 복숭아꽃이 만발한 꽃나무 밭 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되는 듯 그림이 생경하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안견의 <무릉도원도>를 처음 보는 듯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 안견의 그림 감상이 끝나면, 안견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삶의 행적과 더불어 안견이 그린 그 밖의 다른 작품 소개는 부가적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어 옛 그림에 대한 관심을 더해 준다.



옛 그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김정신 저.

채우리. 2012.

이런 식으로 모든 단락들이 흥미진진하게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인의 화가들이 모두 새롭게 다가왔지만, 특히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의 이야기는 참 따뜻하고 흥미로웠다. 정선 나이 76살, 진경산수화의 수작이라 불리는 〈인왕제색도〉는 비가 그친 뒤, 인왕산의 웅장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병석에 누워 있는 친구의 병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렸다니,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면서 겸손함을 배우고자 “겸재”라는 호를 쓴 정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마음이 절로 훈훈해진다. 그림을 통해서 화가의 생각을 알고, 화가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을 비춰 볼 수 있으니, 그림을 많이 보면 절로 심신이 치유되는 듯하다.

작가는 우리 그림을 보려면 그림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 그 뜻을 알고자 하면 그림이 쉬워질 거라 강조한다. 그림만 보면 〈인왕제색도〉의 그림에 병이 낫길 바라는 마음에 친구의 집을 조그맣게 그려 넣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장승업의 〈수탉〉에서 방아깨비, 국화, 기러기, 색비름, 맨드라미의 숨은 뜻을 알고 보면 화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어 그림을 볼 때 즐겁고, 화가와 내가 그림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같아 무척 설렌다.

훌륭한 작품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또 한

변 알 수 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흙흙신서」 등의 책으로 유명한 정약용은 18년 동안의 유배 시절이 없었다면, 후세에 전해져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추사체〉도 9년의 귀양살이가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힘든 고난과 시련을 주옥같은 글과 그림으로 승화시키고자 가슴으로 삼켜야 했던 그 마음을 헤아리니 음과 양의 원리를 꿰뚫었던 조상들의 지혜는 많은 귀감이 된다. 마지막으로 김정희가 아들에게 그려 준 〈불기심란〉을 보자! 난초를 그릴 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그려야 하듯, 사람이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동하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나의 정신을 번뜩이게 한다.

옛 그림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옛 그림 속으로 함께 여행해보자.

나무의 어머니, 왕가리 마타이

유향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사서

아프리카에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왕가리 마타이. 이 책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왕가리 마타이’라는 아프리카의 여성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위인 전기문이다.

왕가리 마타이는 1940년 케냐(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중앙쯤에 위치함)의 이히테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가리’라는 이름은 케냐어로 ‘응가리가 표범’이라는 언어인데 거기서 파생된 ‘표범에 속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삶도 표범처럼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용맹하며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았네요. 그러나 정의로운 일에는 늘 환란과 고통이 따르게 되나 봐요. 독재정권으로부터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과 다르게 공부도 하게 되고 미국 유학도 하면서 남다른 전문 공부도 하게 되었고 1977년에 나무심기를 위한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으며 모목 심기 운동과 나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숲을 파괴하면서 수출 주도적 농작물을 심는 케냐의 독재자 대니얼 아랍모이 대통령에 대적하다가 생명의 위협과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데요.

감옥에 가는 일, 모욕당하고, 공격 받는 일. 심지어 다른 나라로 피해 있어야 했지요. 그래도 나무를 심는 일, 숲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습니다.



왕가리 마타이 : 아프리카에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노벨 평화 수상자

프랑크 프레보 글, 오렐리아 프롱티 그림, 정지현 옮김.
문학동네, 2012.

왕가리는 나무를 위한 일은 민주주의를 위한 일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생태정당까지 창설했으며 나중에는 환경부 차관으로 일했으며 2004년에는 아프리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이 2분이 있네요. 넬슨 만델라와 왕가리 마타이.

왕가리 마타이는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환경, 인권문제를 위해 늘 언제나처럼 일해서 그런지 마타이는 2011년 9월 25일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꼭 필요한 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선구자처럼 그녀는 소임을 충실했습니다. 왕가리 마타이는 나무의 어머니, 숲을 지키는 여성이었으며, 환경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얻어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고 동물을 보고하고 숲을 지키는 일이 인류에게도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의 삶은 투쟁을 해야만 얻어지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프리카 뿐 아니라 세계 어디라도 같은 상황인 걸 같습니다. 결국 자본, 욕망과의 싸움이고 그런 세력과의 투쟁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얻어진 숲이고 나무이고 생명이기애 값지고 귀한 것 일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강산을 소중히 지키는 사소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술 익는 소리는 어떤 소리?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우리나라 전통술 하면 자연스럽게 막걸리가 떠오른다. 이 술이 익을 때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어린 아이가 항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의 표지그림에서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표제지에 이어지는 노란 주전자는 금방이라도 막걸리를 사발에 부어 마시고 싶어지게 한다.

밀이 익어가는 초여름부터 벼를 수확하는 가을까지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촌풍경을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술을 담그는 모든 과정과 그 술이 쓰이는 용도까지 여자 어린이의 시선으로 이야기 해 나가고 있다. 누렇게 익은 밀밭모습, 밀로 누룩을 만드는 과정, 항아리 소독 장면, 지에밥을 지어서 누룩과 버무려 항아리에 넣는 과정, 술이 익기까지의 과정, 종류별로 술을 거르는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술 하나 빚는 데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고 오랜 준비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렇게 정성을 다한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술을 빚는 과정에 등장하는 맷돌, 표주박, 체, 누룩고리, 절구, 가마솥, 술독, 용수, 시루, 소줏고리, 자배기, 찻다리 등 요즘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전통 도구들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보는 이의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 또한 문살, 마루,



우리집 막걸리

양재홍 글, 김은정 그림.

보림, 2012, 10,800원

장독대, 정원, 담장 등 우리나라 농촌 한옥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여 보는 이의 향수를 자아낸다.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은 사람만이 아니다. 농촌생활에 빠질 수 없는 강아지, 닭의 모습을 장면에 맞게 등장시킴으로써 이들 가축들이 우리 농촌에서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인공 보영이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함께 나타나는 강아지 모습은 상황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통해 가축과 사람이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었는지 알 수 있다.

한 장 한 장 그림책을 넘길 때마다 주인공들의 표정에서 나오는 여유와 미소, 한가로운 농촌 풍경, 풍요로움,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 등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술에 취하고 이웃의 정에 취한다.

속도를 강조하는 세상,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세상, 옆집에 사는 이웃도 모르고 사는 세상... 이런 점점 각박해지는 현실을 한번이라도 슬프게 느껴보았다면 이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풍요로움과 푸근함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책을 1만 번?

맹진아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한 책을 10번 이상 읽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기 같은 책을 1만 번 읽으며 자신의 약점까지도 꾸준함으로 극복한 한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뒤에서 지켜본 그의 아버지도 있다. 아직까지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교육관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현재, 교육에 임하는 아이와 뒷받침해주는 부모의 자세에 대해 모범을 보여준 『조선 제일 바보의 공부』는 조선중기 시인, 김득신의 삶을 통해 친근한 그림과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더 큰 귀감을 주고 있다.

주인공 득신이는 어릴 때 마마에 걸려 머리가 나빠졌다. 계속 까먹는다고 하여 “까마귀 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하지만 득신이는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책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였다. 어떠한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머리가 나빴을지는 몰라도 “꾸준함과 성실함” 그 자체는 가장 으뜸이었다. 청년이 되어서도 득신은 여전히 머리가 나빴지만 오로지 책과 시만을 생각하며 같은 책만 1만 번 읽을 정도로 노력한 끝에 어떤 책이든 막힘없이 얘기하고, 1500편이 넘는 시와 180편이 넘는 글을 남겨 당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그의 아버지 김치의 자세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득신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르치는 게 빠르겠어.”라고 수군대는 친척들과 하인에게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하루에도



조선 제일 바보의 공부
정희재 글, 윤봉선 그림.
책읽는곰. 2013.

몇 개씩의 학원을 보내고,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을 전전공공해하는 우리 교육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득신이 아버지는 총명하지 않은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못미더워 하지 않고 언제나 자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식을 기다려 준다. 책을 통해 무엇을 꼭 얻기 보다는 책, 공부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강조하며 언제나 자식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다. 아버지의 태도가 이랬기에 김득신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화하여 만들어진 『조선 제일 바보의 공부』는 김득신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 교육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어떠한 성과를 얻고 어떠한 규격화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학문 자체, 배움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니 등수가 낮아 걱정인 부모, 학원 선생님 없이는 공부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김득신 이야기를 다룬 또 다른 책으로 『책 씻는 날』도 함께 읽으면 좋다.

책 만드는 사람이 알려주는 편집자 이야기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2010년에 발간된 ‘짜장면 더 주세요.’로부터 시작된 ‘일과 사람 시리즈’ 중 17번째 편집자를 소개한 이야기이다. 그동안 사계절출판사에서 발간한 ‘일과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그림책으로 발간해 왔다.

책 만드는 편집자를 소개한 책 속 내용에는 앞서 발간된 ‘짜장면 더 주세요!’, ‘딩동딩동 편지 왔어요’, ‘출동 119! 우리가 간다’가 삽화로 등장한다. 책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진진경 그림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일과 사람 10번째인 ‘맥을 짚어 볼까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책은 사계절출판사 편집자가 ‘일과 사람’시리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앞서 나온 책 속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연관되어 나온 점도 새롭다. 책이 출판되기까지 기획하고 작가를 섭외하고 취재하고 자료를 찾는다. 책을 가제본하여 다시 읽어보고 교정하고 출판되어 서점에 판매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아있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고 출판사 편집자들의 힘든 과정이 있지만, 책 만들기를 즐겨워하는 편집자의 마음이 책 속에 잘 나와 있다. 사서가 좋은 책을 만나서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들에게 소개해 줄 때 기쁜 것처럼 편집자의 입장이 공감이 간다.

책 제목의 글씨체도 다른 책과 달리 서로 다른 색과 밑바탕을 사용하여 독특하다.



책 만드는 이야기, 들어볼래?

곰곰 글, 진진경 그림.

사계절. 2013. 11,000원.

* 추천대상 : 초등 저학년부터

앞면지에는 스케치한 밑그림이 나왔고 뒷면지에는 색을 칠한 책 속의 그림들이 다시 모두 나와 면지도 책 편집과정을 소개한다. 부록에는 글자가 만들어진 과정과 처음 책이 어떠했는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에 어린이들에게 직업을 소개한 다양한 도서가 있다. 다른 직업 소개서와 달리 ‘일과 사람’ 시리즈는 요리사, 디자이너 등을 직접 취재하고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일을 설명한다. 책 속에 소개되는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직업을 소개하는 도서로 책 속에 나온 다른 직업을 소개한 책을 읽으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이 깊어질 것이다.

프렌토 시리즈

김미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사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기관 업무보고는 거의 대부분 인포그래픽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포그래픽(Infographic)은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rmation Graphic)의 줄임말로 한 눈에 보기 어려운 정보나 자료를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든 것으로, 수학시간에 배운 다이어그램도 인포그래픽의 한 분야이다. 이렇듯,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더 빠르고, 혹은 좀 더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포그래픽의 등장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 같이 여겨진다. 도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지식정보그림책 분야에 인포그래픽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 중 그래픽 디자인 회사 아메바에서 출판된 프렌토 시리즈가 눈에 띈다.

세계의 나라 중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지만 핵심적인 정보를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 도표, 다양한 그래픽 이미지를 이용해 책을 구성하였다.

사진이 그 사실 자체라면 그래픽 이미지는 사실의 가공을 통해 좀 더 재미있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이나 세밀화는 훨씬 더 자세하고 실물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그래서 오히려 한 눈에 더 들어오지 않는다는 느낌인데, 그래픽은 실물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이미지의 단순화를 통해 사물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도와주고 정보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프렌토 시리즈

검북 글, 그림.
아메바, 2013.

각 나라의 국기와 대표 의상으로 첫 대문을 여는 이 책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 그 나라의 지도, 수도, 위치, 언어, 화폐, 경제, 생활, 자연, 문화, 인물 등을 들여다보도록 되어있다.

다양한 색감의 이미지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하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며, 더 심도 있는 지식의 세계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해준다.

이 책은 세계 나라의 정보를 그래픽화 시켰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독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관련 참고도서나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를 같이 실어주어, 자연스럽게 책에서 책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끌어내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첫 시작점의 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준 그림책이기에 아쉬움보다는 즐거움이 크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올까요?

이명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보면 볼수록 정겹고 마음이 푸근해 지는 탐스러운 호박, 씨앗 심기부터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황금색으로 여무는 모습, 서리에 맞아 생을 다하기까지 호박의 한살이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다. 작가가 실제로 2년 동안 직접 기르면서 날마다 관찰한 것을 토대로 그렸다고 하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다른 야채에 비해 특별한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잘 자라고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호박이다. 요즘은 재배기술의 발달로 제철이 없다고 하지만 이 그림책에서 호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쇠뜨기, 제비꽃, 민들레, 클로버, 명아주, 쇠비름, 바랭이, 망초, 박주가리, 엉겅퀴, 닭의장풀, 여뀌 등 호박과 함께 하는 주변의 야생초 보는 재미도 쏠쏠하며 이 야생초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또한 야생초뿐만 아니라 호박과 함께하는 개미, 메뚜기, 벌, 나비, 새, 나비, 파리, 무당벌레, 잠자리, 개구리 등 곤충과 동물들을 아이들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그림책 보는 재미를 더한다.

호박씨가 발아하여 땅속에 뿌리 내리기, 떡잎 사이로 뚫고 나오는 호박잎, 하루



호박이 넝쿨째

최경숙 글, 이지현 그림.
비룡소, 2012. 11,000원.

하루 쑥쑥 자라는 호박순, 주위의 식물을 감아가며 넝쿨이 잘 뻗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호박순, 피는 모양이 다른 호박의 암꽃과 수꽃, 꽃가루를 묻혀 날라다주는 벌, 호박이 잘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모습, 호박꽃에 모여드는 곤충들의 모습 등 그림책을 보는 내내 호박밭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호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의인화하여 친근함을 느끼도록 하고 상황에 맞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은 물론 입말이 즐거운 구수한 단어 사용으로 우리말의 재미를 톡톡 느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 잘 모르지만 작은 식물 하나도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해 보면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알 수 있다.

고요하고 기품 있는 한국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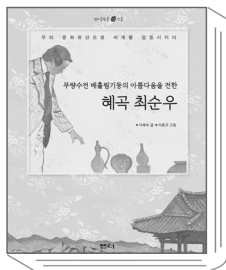
박정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관장

한국 미학의 선구자 우현 고유섭, 우리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형필,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혜곡 최순우,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틀을 제시한 오주석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품이 서양의 예술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요하고 기품 있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은 장래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우리문화유산을 찾아내어 연구하고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일을 하던 개성 부립 박물관장 고유섭을 만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어 가는 과정의 불행한 시기였던 일본의 강점기와 6.25동란 동안에 한국 미술을 지켜내었고, 해방 이후 세계 각국의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렸으며, 그 사관을 독자적이고도 자주적인 시각으로 글을 써서 우리 문화의 위대함을 알린 혜곡 최순우 선생님의 전기이다.

굵은 선을 이용하여 판화 느낌이 나는 삽화는 친근감을 가지고 책을 접근하게 하며, 중간 중간 덧붙이는 이야기를 통해 해외 전시 포스터 및 기념우표 사진을 통해 사실적인 지식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여러 예술가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최순우 선생님의 멋스럽고, 정 깊은 인간관계를 엿볼 수 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아름다움을 전한) 해곡 최순우

이혜숙 글, 이응규 그림.

샘터.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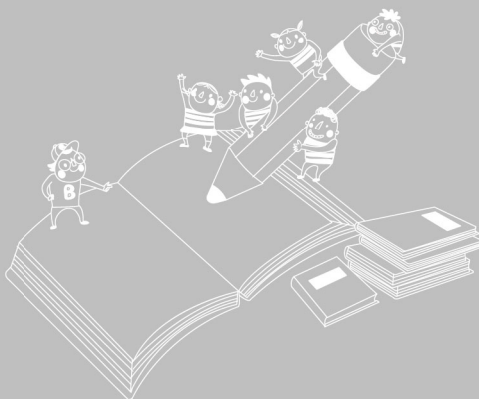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유이며 정체성이다. 또한 문화의 수준은 한 두 사람의 빼어난 재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기는 전체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올라 설 수 있는 것인데 「무량수전배흘림기둥의 아름다움을 전한 해곡 최순우」는 어린이 책으로 출판되어 어린 시절부터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이 책이 유적지의 기와, 기둥, 문양 하나하나에, 불상들의 그윽한 미소에, 그림의 선 하나 하나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도자기의 아름다움 속에 녹아있는 선조들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가 제안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최순우 옛집’을 가서 보면서 최순우의 소박하고 정갈한 삶을 배우고, 내가 꼭 해야 할 일,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3부 함께 나누는 서평

- 도서관 주간, 세계 책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작
-



함께 나누는 서평

최우수작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원석
우 수 작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사료를 드립니다	최문정 김윤희
장 려 작	영모가 사라졌다 엄아 아빠가 없던 어느 날 다문화백과사전 캥 캥 캥 우리 형 오이도행 열차 들쭉 날쭉 속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 학교 가는 날 이상한 화요일 송례문	이진아 임성관 한천선 권은진 최문정 윤현진 오원석 윤현진 조경은 박윤정

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원석

최우수상

누가 이야기 했던가. 시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시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디 가지고 있던 아이의 눈을 계속 닦고 씻으며 원래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를 쓰는 것이리라. 여기에 항상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왔던 작가의 첫 동시집이 있다. 바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란 신경림 동시집이다.

동시집의 표제작인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는 맛별이를 하는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간 사이에 아이가 늦은 밤까지 혼자 집에 남아 라면도 혼자서 끓여 먹고, 동화책도 읽고 하다 결국 텔레비전을 켜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엄마는 그걸 보고 아이가 날마다 텔레비전 만 본다고 생각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가, 단순히 내게 동시로만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내 어릴 적 기억 때문이다. 아버지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개 나와 의 대화 주제는 공부에 대한 것 뿐 이었다.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란 존재는 내가 일어나기 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내가 학교에 돌아오면 저녁 일곱시나 여덟시쯤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을 드는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가정조사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의 직업을 뭐라고 적어서 내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어딘가로 출근해서 사람들과 부대껴가며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그저 아침이 되면 하늘에 해가 떠오르듯이 시간이 되면 대문을 열고 구두를 벗고 현관에



(긴경림 동시집)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경림 글, 이은희 그림.
실천문학사, 2012.

올라오는 사내였던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뉴스와 심야방송을 보는 모습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기 만의 시간을 가지는 중이었던 것이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에서 아이는 잠을 자다 텔레비전만 본다는 엄마의 말이 야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회사 업무에, 야근에, 회식에 지쳐 돌아왔지만 아이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음에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아이가 야속하기도 했을 것이다. 엄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지 않았을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잠만 잘 잔다고. 아이의 외로움과 부모의 고독과 피로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버린다.

모든 동시가 그렇지만 이 동시도 시인이 못되고 세상사에 찌든 탁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반짝하고 아이의 눈을 잠시 빌려준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아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른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를 깨닫는 것은 이제 나도 예년의 아버지만큼이나 나이를 들어간다는 증거일 것이다.

신경림 시인이 동시를 펴낸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 창비시선 중의 하나로 펴낸 적이 있는 시집 『낙타』에 「동시칠수」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출간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에 실린 동시 몇 편을 미리 세상에 내 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역시 시집에 실린 몇 편의 동시를 읽는 것보다 시 내용에 걸 맞는 삽화가

결들여진 동시집을 한 편 한 편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더욱 좋다. 신경림의 동시집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가 최고의 동시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러 아이의 시선을 만들어 어른들을 위한 동시입네 하며 ‘낮설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지도 않는다. 그저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시를 읽는 내내 들판에서 금방 뜯은 채소를 넣고 쓱쓱 비빔, 고추장을 조금 넣어 아이도 맛있게 먹는, 비빔밥을 먹는 느낌이다.

자, 이제 도서관에 가자!

최문정
우수상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고장에 처음으로 공공도서관이 생겼다. 집에서 조금 멀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높은 언덕 위에 있었지만 책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기대감으로 찾아간 도서관은 마음과 달리 어색함과 공포의 공간이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한 마디라도 말을 했다간 당장이라도 쫓겨날 것만 같았다. 더욱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물어볼 사람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 때, 내가 이 책을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도서관은 엄숙한 곳이 아닌, 모두가 손쉽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좀 더 빨리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서를 찾아 궁금한 점을 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 도서관에 가자 (전 3권)』는 어릴 적의 나처럼 도서관 이용이 생소하고 미숙한 어린 친구들과 어른들을 위한 책이다. 책은 세 친구가 길에서 도서관 책을 주우며 시작한다. 그렇게 처음으로 가보게 된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견학을 통해 도서관의 이용법과 하루 일과, 사서의 역할에 대해 알게 된다. 세 아이들과 도서관 관장님의 대화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각 장마다 등장하는 안경 쓴 책벌레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충해 준다.



도서관은 어떤 곳일까?

아카기 간코 글, 스기와라 게이코 그림, 고향옥 옮김.
달리. 2009.

일반적인 속표지와는 달리 속표지에서부터 세 친구가 책을 즐기는 이야기를 담아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야’라는 느낌이 아닌,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가 이 책의 장점 중 하나이다. 큰 머리와 직선의 몸으로 표현되는 그림 또한 재미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본문의 그림책에서 다소 부족했던 설명이 이어지는데 책의 앞부분에서 만난 도서관 관장님처럼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흔히들 도서관이라 하면 공짜로 책을 빌려주는 곳, 사서는 한가롭게 책을 읽는 사람으로 생각하곤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본문에 나오는 ‘꿈자람 중앙도서관’의 하루일과를 예시로 두어 도서관과 사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지 잘 보여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 이용 예절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잘 쓰인 책에서 도서관 이용의 기본이 되는 이용 예절까지 알려주었다면 이용 지식과 함께 자연스레 녹아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을 빼면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법을 사실적으로 잘 담고 있으며,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이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된 지식그림책이다. 나머지 시리즈인 2권과 3권도 책 찾는 방법과 주제 정하기를 알려주고 있어 엄마 손에 이끌려 도서관에 가던 어린 친구들도 『도서관

에 가자』라는 이 시리즈만 읽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즐겁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듯하다.

자, 우리 이제 도서관에 가자!

행복한 만남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

김윤희
우수상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아 속상해 하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시골에서 자랐기에 어릴 적 무묘한 시간을 개와 함께 보낸 추억이 많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을 보면 나에게 말을 하는 듯 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를 생각하면 왠지 모를 행복감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이 책의 주인공 장우는 열두 살 남자아이입니다. 장우는 삶의 대부분을 시베리아 허스키 종의 장군이라는 개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들의 일반적인 결정으로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장군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애견 카페에 무료 분양 광고를 올리게 되는데 예상외로 나이 많은 11살짜리 장군이를 선풐 키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 끝에 한 달에 한 번씩 사료를 보내준다는 조건을 걸자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됩니다.

장우는 새로운 주인에게 장군이를 떠나보내고 미안함과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캐나다로 떠납니다. 장우는 장군이를 계속 그리워하며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엄마를 따라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장우는 장군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혼자서 주소만



사료를 드립니다
이금이 저.
푸른책들, 2012.

달랑 들고 찾아 나섭니다. 이런 저런 일을 거치며 장군이가 새로운 가족과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장군이가 있을 곳은 그 곳을 깨닫게 되고 쓸쓸히 그곳을 떠납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장군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장우의 모습이 함께 전개되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장군이에게 미처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함께 했던 시간을 다시 돌이키고 싶은 미련, 결국에는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나보내는 아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의 만남과 이별 이야기를 통해 이별의 순간, 마음의 끈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금이 작가는 사람 내면 깊숙한 곳의 풍경을 잘 드러내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복잡 미묘한 심경 변화와 함께 개라는 친근한 소재로 저를 추억과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료를 드립니다」 외에도 4가지의 동화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라온제나 라온누리

이진아
장려상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을 겪고 난 뒤 어른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 간다. 누구나 어릴 때는 부모님께, 선생님께 똑같은 불평불만이 있었으면서 어느새 자신도 똑같은 잔소리꾼 어른이 되어간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 없이 억울했던, 이해할 수 없던 어른들의 모습들은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이해가 간다. 그 것은 어른이 결국은 아이들이 생각하듯 완전한 이상적인 성인(成人)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아이들의 눈에 어른이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로 비춰진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깨게 만드는 어른들의 실수와 오류는 아이들로 하여금 사회 전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 특히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영향력이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모가 사라졌다’의 주인공 영모와 영모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성적향상만을 강요하는데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아버지와 이에 지칠 대로 지친 영모의 불만은 여느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흔하게 등장하는 소재다. 다만 극적인 화해 혹은 극단적인 자살로 치닫는 보통의 결말과는 달리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영모 스스로의 인내와 이해로 끝이 난다. 어찌 보면 극적인 화해를 읽는 내내 기대했을 독자들에게는 다소 김빠지는 결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처한 어린이라면, 그리고 어른이라면 오히려 현실적이고도 마음에 와 닿는 결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모가 사라졌다
공지희 저.
비룡소, 2003.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감동받지 않는다. 나 어릴 적을 생각해봐도 그렇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경험과 이해로 감정이입이 쉽지만 어린 시절에는 책을 보고 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다. 생각 느낌을 쓰라는 감상문에서 솔직히 착하게 살자, 욕심 부리지 말자, 주인공이 안쓰럽다, 불쌍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모든 나의 감상들은 주제에 맞춰 써넣은 것 뿐 진심으로 와 닿은 경우는 정말로 손에 꼽힐 정도였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지면 감정이입은 훨씬 쉬워진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결말은 모든 이에게 설득력이 있다. 선택권을 주기도 한다. 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은 자신이 영모 같다 느낄 것이다. 그 중에는 진짜 불합리한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태반은 부모의 과한 교육열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성취도로 인한 서로간의 마찰이 자신을 영모로 만들 것이다.

영모는 자신을 사랑한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다. 하지만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앞으로 잘 할게요” 라는 뻔한 멘트를 뱉는 대신 자신의 인생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삶을 위해 돌아가겠다고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부모님에 대한 실망으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줄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앞서 말했던 위낙 성인답지 못한 성인이 많다보니 상상도 못할 만큼 부모자격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외로 많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보다는 “네 삶은 소중해” 라는 조언이 더 필요할 것이고 상황에 맞을 것이다. 이런 경우와는 달리 부모님의 잔소리에 치이며 스트레스 받아가는 아이들의 경우, 영모아버지가 애타게 영모를 찾는 시점부터 그들의 눈앞에는 그려질 것이다.

자신이 가출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모아버지처럼 자신을 애타게 찾아다닐 부모님의 모습이 말이다. 순간적인 미움으로 생긴 반항심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보통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이미 아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자신의 경험과 맞대어 한번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또 한 가지 이 책의 주목할 만 한 점은 이야기의 배경이다. 아버지로 인한 불만과 좌절감으로 가출을 하게 된 영모는 흔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짐작은커녕 상상조차 못할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곳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어서 순간 판타지영화를 보고 있는 듯 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영모를 찾던 영모의 친구인 병구는 고양이의 안내를 받아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된다. ‘즐거운 나’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라온제나’ 라는 곳은 현실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영모는 그 곳에서 현실을 잊은 채 어른이 되어 살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영모였지만 자신을 찾아 그 곳까지 오게 된 아버지를 봤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던 공포감과 증오심에 화를 내기도 했고 그렇게 몇 차례 그 곳을 찾은 친구를 맞이하는 영모는 계속 변해갔다. 그리고 숨기만 하던 그가 노인에서 젊은이에서 다시 초등학교생인 영모가 되었을 때

영모는 이제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던 것이다.

‘라온제나’의 그 특별한 배경이 주는 신선함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고 상상력을 펼치기에도 적당하다. 순우리말인 ‘라온제나’로의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당히 이국적인 동화라는 느낌을 갖고 읽었다. 고양이가 숨어 있던 아파트 지하창고부터 ‘라온제나’ 도착 전까지의 고양이의 안내는 마치 소박한 운치를 담은 ‘이웃집 토토로’의 고양이버스를 기다리는 느낌이었고, ‘라온제나’에 도착한 이 후부터는 웅장한 나니아에 처음 도착한 ‘나니아연대기’의 네 남매가 된 느낌이었다.

소재와 배경의 신선함이 주목할 만한 이 책은 어느 누구든 쉽게, 그리고 재밌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

세상의 이치와 사회의 체계 속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는 것이 많아짐과 동시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해야만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어른들. 헛소리라 치부해 버릴 만한 동심을 느끼며 꿈 많던 자신의 영모 시절을 되새기고 아이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어른들은 물론 아직은 경험이 없어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아이들 또한 자신을 되짚어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가늠해보며 책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임성관
장려상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했더니, 주저 없이 동생의 입원을 꼽은 아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다시 물으니, 동생이 일주일간 입원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그쪽에 신경을 쓰느라 자신에 대한 신경은 덜 쓰게 됐다는 의미였다. 즉,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습지를 풀어 놓지 않아도 별다른 지적이나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착잡하기만 했다.

'엄마 아빠가 없던 어느 날'. 어쩌면 아이들은 이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위에서 만나본 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단 며칠만이라도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원하는 게임 실컷 하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는 것 등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왜 그런 욕구를 갖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 볼 겨를도 없이 할 일을 제대로 해냈는지 점검하기에 바쁜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 토미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 비록 두 명의 어린 동생들이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대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시간 동안 동생들을 잘 돌봐 만이로서의 유능함을 인정받고 싶었던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잠에서 깬 막내 동생이 울자 공갈 꼭지를 물려주었고, 이후 그것을 거부하자 냉장고에서 우윳병을 꺼내 따뜻하게 데워 먹이려는 생각까지 했다. 그동안 엄마가 하시는



엄마 아빠가 없던 어느 날

케테 레하이스 글, 수잔 오펔 그림, 김완균 옮김.

해와나무, 2004

장면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므로.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토미에게는 힘든 일들이었던지,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집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다. 결국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와 아빠는 엉망이 된 집안 모습을 본 뒤 아이들만 남겨 두고 일을 보러간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내 서로의 불찰에서 온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 토미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이 담긴 포옹을 해준다.

앞서 우리는 엄마 아빠의 부재를 오히려 반가워하는 아이의 사례를 만났다. 하지만 유아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자리가 절실하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여기서의 절실함이란 아이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아이 스스로의 능력과 힘을 믿어 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의 자발성은 물론 유능감까지 키워줄 수 있는 부모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 토미는 분명 많은 사고를 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모님이 해결해야 할 더 큰 일을 만들었고, 동생에게도 딱히 해 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한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앞으로는 더 잘 해나갈 것이다. 그야말로 성공의 어머니가 될 실패를 경험했으니 말이다.

이 책은 엄마 아빠의 지나친 관심과 큰 기대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아이들, 그에

반해 원하는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는 억압당하고 있어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것이다. 나아가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해 가끔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운 어느 날, 아이들은 부모들이 경악할 사고를 칠 가능성도 높지만, 그만큼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해 나갈 기회 또한 갖게 될 것이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한천선
장려상

이 책의 제목을 대하며 성남시 중원도서관의 다문화한가죽교실의 운영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처음 대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만나게 된 이 분들은 글로도, 전화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업대상이었고, 몇 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대화가 통하지 않은 채 두손을 마주잡던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멘티 결혼이주여성과의 어색한 미소도 생각났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한국사회에서 그 분들을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른 길인가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도가 이 책의 권장대상인 초등 고학년과 청소년들에 비해 별다를 것이 없는 나로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책을 읽게 되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요즘 결혼하는 부부의 10쌍 중 한 쌍이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이고 2020년에는 다문화 2세 청소년이 청소년 다섯 명 중 한명 꼴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전철에서 만난 다문화인들과 같이 자리하는데 불편한 속내를 표현하지 않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작가는 굳이 우회하지 않고 다문화의 발생과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 세계역사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배경지식을 알려주며, 우리가 자신들도 모르는 고정관념 속에 다문화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다문화 백과사전
채인선 저.
한권의 책, 2012.

다문화는 인류의 역사시작과 함께 먹을거리를 찾아 이동과 유랑을 거듭하던 인류의 오랜 습관으로 원시시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힘이 강한 침략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원주민들이나 함께 살아오던 인종들을 '다름'이라는 명분을 부여하여 식민지화, 학살이라는 참극을 연출하는 역사가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멀게는 백인 우월주의로 인한 노예제도, 강대국의 제국주의시대가 있었고, 가깝게는 관동 대학살, 난징 대학살, 유대인 학살과 같은 100년 내에 일어났던 이해도, 표현도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생존하시는 일제시대 위안부 분들에게 대한 용서와 사과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77명의 청소년들을 희생시킨 노르웨이 총기 난사사건 등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비극이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 책은 백과 흑의 피부색 비율로 따지는 인종이라는 허상, 섞일 대로 섞인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깨고 '다름'의 이해와 가치를 인식해야 될 막바지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옆자리에 다문화 친구가 앉게 되는 현실에 적응하고 이들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의 상황임을 인지하길 바라며 이 책을 권합니다.

우리 특별한 가족 ‘캥’을 소개합니다.

권은진
장려상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 식구인 우리 가족 앞에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우리 가족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둥이’라 불렀고, 그렇게 우리는 1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부모님은 둥이에게 엄마, 아빠였고, 나는 둥이의 누나였다.

현관문 밖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가족의 발소리에 귀를 쫓긋 세우며 신이나 펄쩍펄쩍 캥거루 같이 뛰어 현관문을 북북 굽으며 반겨주고, 유난히 나의 안경다리 물어뜯기에 혈안이 되어 그 덕(?)에 매번 새 안경을 낄 수 있게 해주고, 둘이 있을 때면 벌러덩 누워 배를 드러내고 만져 달라 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 나를 보며 까불지 말라는 듯 으르렁거리던 둥이. 둥이가 온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세 식구에서 네 식구가 되었다.

「캥 캥 캥 우리 형」을 읽는 동안 나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둥이’와 함께했던 울고 웃던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책속 주인공 아이처럼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많은 공감을 하며 유쾌하게 읽어나간 이 책의 주인공은 외동이 ‘나’와 그의 ‘특별한 형’ 캥이다. 캥형은 프렌치 불도그인데, “캥! 캥! 캥!” 짖어서 캥이라 불린다. 캥 형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필살기로는 곤란할 때 죽은 척하기이다. 캥 형과 나는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캥 형 편이다. 어느 일요일, 캥 형과 단 둘이 집 보기 미션이 주어진다. 하지만 캥 형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엄마 화장대의



캥 캥 캥 우리 형

아마시타 하루오 글, 히로세 겐 그림, 고향옥 옮김.

주니어김영사. 2013.

화장지를 마구 뽑아 놓질 않나, 엄마의 립스틱을 마구 발라 얼굴을 새빨강게 칠하
질 않나, 캥 형은 자꾸 사고만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립스틱으로 더러워진 캥 형
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밖에 넣어놓은 빨랫감이 소나기에 젖지 않도록 건어놓고,
천둥소리에 기절한 캥 형을 응급처치(?)로 깨어나게 했다. 덕분에 엄마에게 칭찬도
받고 무사히 집 보기 미션완료!

동화책이지만 어른이 읽어도 무척 재미있는 책이다. 책 속 그림은 반려견의 모
습과 표정을 장난꾸러기 형처럼 잘 묘사하여 이야기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천둥소
리에 놀라 나자빠져 기절한 캥이 개거품 물고 쓰러져 있다가 포도주 적신 각설탕을
먹고 의식을 되찾는 장면은 정말 최고다. 반려견과 단둘이 집을 보면서 아이가 겪
는 에피소드에 반려견의 습성들이 잘 그려져 있어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많은 공감을 하며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외동이로 자라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나뿐인 귀한 아이가 집에
서 혼자 외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드는 안쓰러운 마음과 어렸을 때
형제·자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양보와 배려의 기회를 줄 수 없음에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부모님을 위해 드리는 솔루션으로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큰 변화는 드릴 순 없지만 아이와 함께 즐거운 책읽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이 책을 읽은 후 반려동물을 사달라는 아이의 조르기에 한동안 시달릴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이와 함께 말썹꾸러기 캥 형을 만나러 고고!

힘내, 다애야!

최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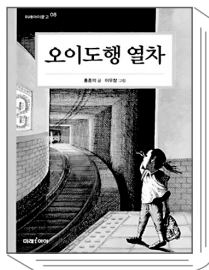
장려상

다애에게도 희망이 비추어 질까?

긴 터널 끝에서 비치는 불빛,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 표지는 주인공 다애의 희망찬 희망을 비추는 듯하다.

책은 초등학교 5학년인 다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집을 나간 아빠와 식당일을 나가는 엄마, 다애의 몫이 되어버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동생 다훈이가 다애의 일상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동생 다훈이는 물론 갓은 집안 일 또한 고스란히 다애의 몫이다. 그러나 공부도 잘하고 의젓한 다애의 모습 때문에 반에서 친하게 지내는 오충사 친구들은 모두 다애네가 부자일 거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싶지 않은 다애는 차마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개교 기념일, 부모님 몰래 서울랜드에 놀러갈 계획을 세운 아이들. 다애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돼지저금통을 깬다. 서울랜드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아빠를 만나지만 충격에 그쳐 모른 척 내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다애는 엄마에게 몰래 놀러 갔다 온 사실이 밝혀져 크게 혼나고, 속상한 마음을 담아 대들던 다애의 말에 엄마는 속상함과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 그리고, 다애는 이제 친구들 모두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한다.

다애의 아픔을 알아보지 마세요.



오이도행 열차
홍종의 글, 이우창 그림.
미래아이, 2009.

어리지만 어른보다 더 어른스럽고 생각이 깊은 다애. 읽는 내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나도 이렇게 싫어! 거지가 아니고 뭐야? 내 나이에 누가 동생을 데리러 가? 누가 밥을 하고 상을 차려? 누가 손으로 빨래를 해? 누가 돈 걱정을 하며 마음을 조려?"

이 부분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언젠가 어릴 적의 나도 엄마에게 비슷한 말을 한 기억이 난다. 다애와는 조금 다르지만, 나 역시 어려운 집안 사정에 울며 대들던 일이 있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장 힘들다. 아이들은 아무 걱정도 없다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너희가 걱정해 봤자 어디 어른들만 하겠냐는 가소로움 이랄까. 하지만 아이들도 힘들다. 누구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삶의 힘이 된다. 그렇기에 부모에게 일이 생기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다.

『오이도행 열차』는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함께 읽는 어른들이 "어린 다애가 얼마나 고생이야-" 라는 단순한 감정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만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란다. 더 붙여, 아이들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춘기 초등생들의 성장통, 그 해법찾기

윤현진
장려상

누구나 ‘사춘기 적정 연령’이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남들보다 일찍 사춘기를 맞는다면 본인이나 부모, 주변인들의 당황스러움은 클 것이다.

‘들쭉날쭉 속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열등감, 불안감, 반항심, 짜증 등 여러 고민을 담고 있다. 주인공 중 선우는 딱히 잘하는 것이 없다.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이인 셈이다. 선우는 어떤 재능에서도 특출 나지 못하다는 열등감에 자신감도 도전 의식도 쪼그라들어 있다. 그런 선우에게 같은 친구 용호는 충격적이다. 용호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수학공부의 즐거움을 아는 친구다. 선우는 용호를 통해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해 즐거움을 찾아내는 법을 깨닫는다.

또 다른 주인공 수라는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짜증에 가족들과의 단란한 식사시간도 망쳐놓고 친구들과도 싸운다. 수라의 생활은 꼬일 대로 꼬여만 간다. 또 불만의 수위도 점점 올라만 간다. 수라의 가슴속에 가득 찬 짜증과 불만의 물꼬를 터준 것은 친구 동진이의 메모였다. “괜한 말다툼 하지 말자... 우린 친구잖아” 동진의 짧은 메모에 수라는 단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다. 또 자신의 짜증으로 남들과 자신까지도 상처받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른 ‘사춘기 앓이’를 하는 사춘기 초등생의 모습을 보며 동병상련의 또래 독자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의 장점인 ‘경청의 효과’가 있기



들쭉날쭉 속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

김민화 글, 오윤화 그림.

문학동네, 2011.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큰 힐링을 받는다. 답답한 고민을 털어놓음으로써 후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책속 특징인 청동말굽 아줌마의 편지는 아이들의 각기 다른 고민에 귀 기울여 주는 상담자 역할을 한다. 또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부모나 선생님이 아니고 청동말굽 아줌마라는 제3자 인물로 설정한 것은 더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효과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이 책의 특징적인 장점 청동말굽 아줌마의 편지는 한편으로 단점이 되기도 한다. 독자가 또래의 사춘기 경험담을 읽으며 공감에 빠지기도 전에 청동말굽 아줌마의 잘 다듬어진 상담 메시지는 생각할 여지를 빼앗아버린다. 즉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있지만 마무리는 어른의 목소리로 결론을 매듭 쳐 버린 것이 한계로 보인다.

반면 이 책의 표지를 보면 사춘기의 들쭉날쭉한 속마음을 잘 표현했다. 제목도 뽀뽀뽀뽀 가지런하지 않게 쓰여 있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심정이 상상되어진다. 또 그림을 보면 한 아이의 몸속에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들어 있다. 마치 여러 개의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듯 한 복잡한 심경이 잘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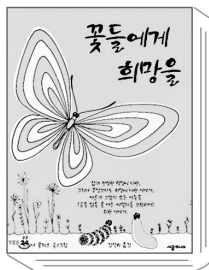
이 책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춘기를 맞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또래 아이들의 사춘기 경험담을 읽으며 독자는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에 안도할 것이다. 또 사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길을 자연스럽게 찾을 것이다. 때론 전문적인 처방보다 마음속의 고민을 나눌 때 치유의 에너지가 더 크게 발휘하기 때문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나에게 희망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오원석
장려상

저자보다 독자가 중요한 책이 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 바로 그런 책이다. 누가 쓰느냐 보다 누가 읽느냐가 중요한 책이다. 나는 이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해지는 무렵 학교도서관에서 창가에 기대 읽었다. 지방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중학교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에 관심을 갖는 학생도 거의 없어서 그 무렵 도서관은 교과시간 후 오롯이 나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책을 추천해 주는 이도, 청소년을 위한 추천교양도서 목록이라도 찾아 볼 인터넷도 없는 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서가에 나열된 책들을 손으로 훑다가 마음에 드는 책을 꺼내 차례대로 꺼내 읽어보는 일이었다. 모든 책들이 명작이 될 수 없듯이, 그 때 읽은 책이 모두 내 정신의 자양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몇 권이 어린 내 마음에 자욱을 내고 지나갔으니, 그 중에 한 권이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애벌레 한 마리가 모든 애벌레들이 오르고자 하는 '애벌레의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탑을 내려와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책은 저자보다 독자들이 중요한 책이다. 책을 읽은 독자는 마치 잠언을 읽은 것처럼 자신의 처지를 책의 이야기 속 '애벌레'의 처지에 대입해 삶을 한 번 반추해 볼 것이고 나아가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리스 저, 김석희 역.
시공주니어, 1999.

하지만 지양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애벌레 탐'과 학교와 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경쟁' 그 자체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저자는 경쟁보다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가진 뛰어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뛰어드는 '맹목적성'을 경고하는 것이리라고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쩌면, 우리는 삶속에서 하고자하는 목표를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속의 애벌레가 꼭대기에서 보았던 것을 똑같이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랑애벌레는 그 꼭대기에 다녀오고서야 나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꼭대기에 올랐던 호랑애벌레는 나비가 되고자 해서 나비가 되었다. 그런 애벌레라면 나비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책의 제목은 '애벌레에게 희망을', 이나 '나비에게 희망을'이 아니라 '꽃들에게 희망을'이다. 애벌레나 나비가 책을 읽고 있는 어른이라면 '사랑의 씨앗'을 옮겨 태어나게 될 꽃들은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맹목적성으로 뚫돌 뚫친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간단한 삽화와 짧은 이야기는 아이들과 함께 손가락을 짚어보며 읽어보기 적절하지만, 책을 덮은 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이는 어른들일 것이며,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 먼 훗날 이 책을 다시 펼칠 것이다.

설렘과 추억을 선물 받은 시간

윤현진
장려상

‘학교 가는 날’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맞는 두 아이의 심리상태를 그림일기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큼직한 그림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일기 형식으로 써어졌기에 훨씬 더 진솔함을 느낄 수 있으며 독자는 남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재미까지 덤으로 챙겨갈 수 있다. 아울러 책을 읽는 동안 아이들은 설렘을, 어른들은 유년시절 추억을 선물 받게 된다.

동성국민학교 1학년 2반 구동준은 아버지, 형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는 등 학교 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처음 만난 선생님이 무서워 밤에 오줌까지 싣다. 한솔초등학교 1학년 2반 김지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놀이를 하고, 병원 가서 홍역 예방주사를 맞는다. 지윤이는 입학 기념 선물 받고 자기만의 방을 가진 풍족한 요즘 시대의 아이다. 지윤이는 기대에 가득찬 발걸음으로 학교에 간다.

동준이에겐 학교란 두려움과 경건함의 의미지만 지윤이에겐 낯선 세상에 대한 흥미가 더 크다. 이렇게 다른 세대의 두 아이가 느끼는 학교에 대한 감정의 차이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책의 겉표지는 소박하다 못해 허전하기까지 하다. 화려한 색채감도 없고 반짝반짝 코팅지도 아니다. 그저 아이가 연필로 그려놓은 낙서와 그림이 있을 뿐이다.



학교 가는 날
송언 글, 김동수 그림.
보림, 2011.

그림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 현대의 생활 모습의 차이점이 눈에 띈다. 아랫목에 동그랗게 둘러앉은 동준이네 일곱 식구 밥상과 달리 아파트 주방에서의 지윤이네 세 식구 식사모습, 입학 축하하는 단출한 자장면 한 그릇과 화려한 생크림케이크 파티. 두 주인공의 그림일기는 세대의 차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런 그림일기 속 시대를 넘나드는 장면은 마치 텔레비전의 ‘듀얼화면’을 보는 것 같은 재미까지 준다.

시대적 배경, 심리상태 등 극명한 평행선 이야기 구조의 두 주인공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만난다. 그것은 지윤이의 일기가 말해준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놀부 심술 타령’을 세 차례나 읽어 주셨다…참 좋은 구동준 선생님”. 그렇다 동성국민학교 구동준은 한솔초등학교 할아버지 선생님이로, 지윤은 그의 제자로 둘은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세대가 다른 두 아이의 일기장으로 끝날 수 있던 이야기 구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교차점을 만든다. 또 새로운 이야기의 전개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 책은 첫 학교생활 스킬이나 성적에 관련된 책은 아니지만 초등입학을 앞둔 아이와 부모에게 권하고 싶다. 아이는 독서 후 ‘나만 입학이 떨리는 게 아니구나.’란 공감과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책을 읽어주는 내내 부모는 ‘나도 예전엔 그랬었지’하며 옛 추억에 빠져볼 기회를 갖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림을 보며 마음이 두둥실 떠오르는 신나는 책, ‘이상한 화요일’

조경은
장려상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책이야.” “뭐? 뭐?” “이상한 화요일~ 읽어줄게.”

잠자기 전 적어도 책 3권을 읽어주는 습관을 들인 덕에 4살 된 딸아이는 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오게 하는데 가끔 “엄마가 골라줘.”라며 저에게 책 선택의 기회를 넘기네요. 그 때 어김없이 골라드는 책이 바로 ‘이상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은 글이 없습니다. 섬세한 스케치에 수채화 물감의 맑은 채색이 덧입혀진, 말 그대로 그림책입니다. 아, 서너군 데 즈음 요일과 시간 등을 나타내는 10자 내 외의 글이 있지요.

‘화요일 저녁, 8시쯤’이라는 글귀와 함께 시작된 첫 장은 세 칸으로 나뉘어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평화로워 보이는 저수지의 풍경 속 한 가운데, 자세히 보면 거북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거북은 클로즈업되어 점점 가까워지고, 둥그렇게 뜬 보름달과 놀란 듯 한 거북의 표정을 알게 된 순간, 조금 전 느꼈던 평화로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거북은 연잎을 타고 날아오르는 수천마리의 개구리 떼를 보았으니 놀랄 수밖에요. 개구리들은 하늘 높이 날아 올라 주택가에 다닙니다. 빨래를 헤치는가 하면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무서운 개에게 떼로 달려들어



이상한 화요일

데이비드 위즈너 저.

비룡소, 2002.

통쾌한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이쿠, 자신 있게 날아오르던 개구리들이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합니다. 뭔가 신비한 마법을 부리듯 완벽할 줄 알았던 그들도 실수를 하네요. 그리고 보니 조금 전에는 빨래에 부딪쳐 떨어질 뻔 했는지요.

날이 밝기 전 개구리들은 다시 저수지로 돌아가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들이 남긴 증거물, 연잎을 심각한 얼굴로 살펴봐지만 미궁속일 수밖에요. 어젯밤 그들과 맞닥뜨린 증인, 무서운 개는 그저 연잎에 코를 대로 쿵쿵덜 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58분. 두둥실~ 큰 코와 꼬불거리는 귀여운 꼬리를 가진 핑크빛 통통이들. 맞아요. 이번에는 돼지들이 떠오릅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밌는 상상을 우리에게 맡긴 채 이 책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책은 글이 없기에 오히려 더 많은 상상과 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질문하며 읽기도 좋은 책이지요. 개구리 떼들은 딱 한 명, 간식을 먹던 아저씨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들켰는데, 이 아저씨가 뒷부분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저씨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딸아이는 대변에 “개구리를 봤어

요.”라고 답하네요. 이 외에도 ‘개구리들은 어떻게 날아올랐을까?’, ‘경찰 아저씨들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등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개구리이지만, 중간 중간 외국(아마도 미국이겠지요.)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 흥미롭습니다. 한밤 중 빵과 우유로 야식을 먹다가 개구리들의 모습을 본 아저씨는 부엌에 있습니다. 그 곳에 놓인 믹서기, 토스터기, 냉장고, 커튼 등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이지요. 할머니가 TV를 보다 잠든 소파에 앉은 채로 잠이 든 거실의 모습도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개와 고양이 키우는 모습, 잘 정돈된 주택가, 우리와 좀 다른 복장의 경찰관 모습 등을 통해 우리와 비슷한 듯 다른 외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작가는 굉장히 섬세한 스케치와 채색을 통해 이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 줍니다. 미술전공자가 아니지만 따라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언젠가 아이와 함께 그려보리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봅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이 책에서 완벽한 등장인물은 없다는 것이지요. 개구리들은 날아가다 부딪치기도 하고, 용맹스러워 보이는 개는 개구리떼에 놀라 도망 갑니다.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관의 표정은 진지해보이지만 글썽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다고 소문난 경찰견들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가만히 있네요. 저기 저, 경찰관을 뒤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아저씨의 말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까요? 이런 설정을 통해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또한 마지막에 돼지들이 날아오는 장면을 통해 우리들의 상상력을 극대화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동물들이 날아오를까요?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이처럼 이 책은 그림만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신나고 즐거운 책입니다. 오늘은 딸아이가 스스로 이 책을 골라 읽어달라고 가져오기를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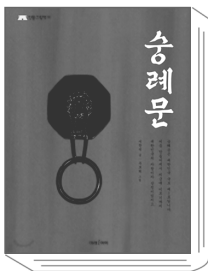
별 좋은 봄날, 송례문을 다시 만날 날

박윤정
장려상

2008년 2월 10일. 이 날은 어쩌면 우리 문화유산 역사에서 가장 슬픈 날일 것입니다. 바로 송례문(崇禮門), 흔히 말하는 남대문이 어처구니없게 불타버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뻔장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심정과 다음 날 아침 드러난 그 처참한 모습,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꼭 5년. 송례문 복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드디어 이번 봄,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조선 초기의 소박하고 강직한 모습 그대로 되살리기 위해 최고의 기술자들이 전통방식으로 깎고 끼우고 맞추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책 「송례문」은 5년 전 화재장면을 시작으로 송례문의 역사와 관련 배경, 이름에 담긴 뜻 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면서 새로 궁궐을 짓고, 도읍을 감싸고 있는 네 산을 연결해 성곽을 쌓았습니다. 송례문은 이 한양 도성의 남쪽에 나 있었기에 도성의 정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송례문은 조선 초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자 한양을 상징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한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는 모두 송례문과 흥인지문, 즉 동대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문이 바로 이 두 대문이었지요. 송례문은 도성의 관문이다 보니 늘 사람들이 북적였고 ‘칠패시장’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선혜청’도 한 몫 거들면서 오늘날의 ‘남대문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송례문
서찬석 글, 주보희 그림.
미래아이, 2012.

태조 때 완공된 송례문은 세종 때 개축되고 이후 성종 때 대규모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등 전쟁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보존되던 송례문은 대한제국 시대에 이르러 큰 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이 두 차례에 걸쳐 송례문의 양쪽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커다란 문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 한국전쟁 때도 큰 상처를 입고 곧 수리를 거쳤지만, 송례문은 도시의 소음과 진동, 공해물질 등으로 인해 차츰 제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면서 마치 외로운 섬처럼 변해갔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담담히 이어가던 책은 거의 끝부분에 2008년 화재를 다시 언급하면서 일종의 일깨움을 줍니다. 그 뒤에는 ‘송례문 꼼꼼히 보기’를 실어 송례문의 각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진각 지붕, 겹처마, 홍예, 용두, 잡상, 여장, 석루조 등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눈높이에 알맞게 쓰였고 삽화도 산뜻하고 화려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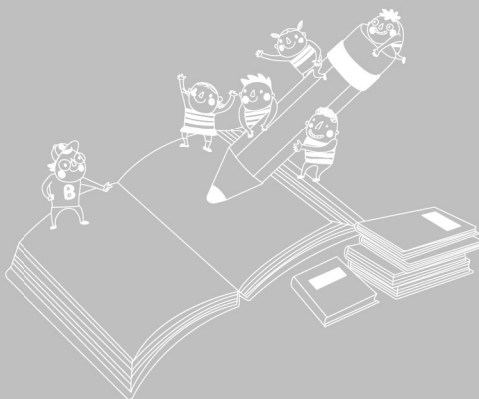
이 책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보 1호 지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훼손됐다가 복원된 문화재는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이 단정지는 것과는 달리 국보 1호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사대문인데 왜 송례문은 ‘국보’이고 흥인지문은 ‘보물’일까?”라는 비교적 가벼운 궁금증은 책을

읽으면 쉽게 풀린답니다. 조금 더 호기심 많은 어린이라면 복원 관련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국보 재지정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승례문이 다시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위해 가설했던 덧 집은 이미 걷어냈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마친 후 ‘어느 좋은 봄날’을 잡아 성대하게 준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우뚝 설 승례문! 아름답게 되살아난 단청과 복원된 양쪽 성벽도 무척 기대됩니다. 그 날, 아직 흰 천에 덮여있는 ‘승례문’ 현판이 공개되면 모두의 마음을 모아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4부 서평 쓰는 사서



서평자 공 정 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jkong@korea.kr

처음 도서관에 근무할 때만해도 사서도 적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무척 낮았어요.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은 도서관은 전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도서관만큼 우리 사서들도 늘어나고 도서관에 좋은 사서가 많은 이야기가 들렸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서평 쓰는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영역을 넓혀가는 한 방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평 쓰는 일은 역시 부담이 됩니다.

도서관에 근무한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항상 바쁘고 어려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의 역할이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가 드문 것처럼, 도서관도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만 아닌 도서관 영역에서 도서관 사서가 주역이 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화이팅!!

서평자 **김 미 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rachel25@korea.kr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좋아 사서가 된 지도 8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것만큼 나를 자신 없게 하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서평이라는 틀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 마음 속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가득해 서평을 쓰는 내내 자유롭지 못한 나를 만나곤 했습니다. 언제쯤이나 책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누군가에게 책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삶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깨닫곤 합니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고, 내 안의 무언가가 울렁거려, 내 마음이 동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 어떤 형태로든 나의 생각을 남겨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게 시작이겠죠?

자연스레, 자유롭게, 나의 글을 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저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생각하기를 계속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어봅니다.

서평자 **김 윤 진**

하남시 신장도서관 indigo23@korea.kr

겨울은 싫어하지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오리온자리를 좋아합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내면서 ‘제발 날 봐 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년 중 제일 더운 날에 태어난 제가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중 하나이지요. 지금은 깜깜한 터널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 인생도 오리온자리처럼 반짝일 때가 오겠죠?

2013년은 이런저런 일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카페에 올라오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서평을 읽으면서 저의 글 쓰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글은 시속 150km로 던지는 돌직구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부담을 느껴서 서평 쓰는 것을 멀리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서평 쓰기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 같이 해 봐요.

서평자 **맹진아**

안성시 공도도서관 libjina@korea.kr

당.당.사서를 꿈꾸는 초보사서 맹진아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사서(당.당.사서)” 제가 사서를 꿈꿀 때부터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던 제 모토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서가 아닌 정보접근의 약자를 배려하는 사서, 지금 이 순간에도 꿈을 꾸고 있는 당신과 또 다른 당신들을 위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서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현실에 안주하는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서평은 안일한 저에게 초심을 상기시키는 윤활유였고, 사서 전문가로서의 나의 자세에 대해 채찍질 하는 회초리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평쓰기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서의 전문성이 책에서 나온다는 것은 대다수 사서가 공감하는 바 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나 각종 행사업무로 가장 소홀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책”,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 이것에서 사서 전문성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서를 책 빌려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만을 탓할 것이 아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평은 이용자와 가장 친밀하고 깊숙하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로가 넓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저의 길을 잘 갈고 닦고 싶습니다.

글을 쓰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지 그 자체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많은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는 서평 자체를 즐기고 글쓰기를 통해 행복해지는 사서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 행복을 주는 사서이고 싶습니다.

서평단 활동을 담당하신 정은영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평자 **박 규 상**

경기도청 365열린도서관 zbtkadl@gg.go.kr

안녕하세요? 저는 365열린도서관에 근무하는 박규상이라고 합니다.

365열린도서관은 원래 경기도청의 행정자료실이었는데 도민에게 자료실을 개방하며 명칭도 365열린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경기도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도청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책이란 ‘건강’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운동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게 되고 또 몸에 안 좋지만 맛있는 음식은 왜 그리도 많은지요. 책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기쁨과 감동을 주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핑계로 책보는 것을 멀리하게 되지요. 요즘같이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책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책을 사랑하고 항상 열심히 읽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네요.

2013년에는 더욱 열심히 책을 읽고 서평을 써야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서란 직업은 정말 잘 맞는 직업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수많은 책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도서관은 마치 저에게 집과 같은 곳이에요. 서가사이를 걸을 때면 책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장 유용하고 안락한 장소가 아닐까요?

서평을 쓰면서 가장 힘든 건 제 서평에 대한 의문입니다. 누군가 제가 쓴 서평을 읽는다면 그 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될지, 제가 쓴 서평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지 이런류의 의문이 생깁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 위안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서서평단의 서평작업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서문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파이팅~!

서평자 **박 정 순**

수원시 영통도서관 pjs888@korea.kr

사춘기 소녀시절. 자기 자신이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그 시절.

친구도 부모도 아닌 도서관에게 위로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까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지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사람, 도서관을 짝사랑하면서 삶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꿈꾸는 공공도서관 사서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도서관 일은 사실 참 많이 분주합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서 조용히 책을 고르고, 읽고, 그 책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서로서 참 뿌듯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늘 시작 때의 각오만큼은 이룰 수 없어 아쉽지만 그래도 2013년 한 해 동안 서평을 쓰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즐거웠습니다.

서평은 사서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한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서평, 사서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우리 같이 힘을 내 봅시다. 2014년에는 더 많은 사서들이 열정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자 **박 지 예**

수원시 영통도서관 pjy880412@korea.kr

나에게 도서관이란, 책이란, 사서란? 점점 그 깊이와 의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삼년 차 사서입니다.

발로 뛰고 싶었고,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크나큰 포부를 가졌었지만, 실천이 없는 사서로써 고민거리를 안고 지내다가 경기도사서서평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사서가 되고 싶어 배우는 자세로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네요. 제출한 서평 수도 얼마 안 되고요. 처음 쓰는 글 보다 그 다음 글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글을 쓰고 지우고, 책을 폈다가 덮기를 몇 번. 그 속에서 좀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와 도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지난 일 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먼 초보사서라고 생각하며 2013년보다는 2014년, 서평단 안에서 더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한다는 것의 기쁨을 자신만만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서평자 손 셋 별

수원시 선경도서관 elisabeth@korea.kr

공직생활을 경기도 사서서평단과 함께 시작한 초임 사서 선경도서관 손셋별입니다.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서평으로나마 증명하고픈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어린이 그림책서평은 생각했던 것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글씨가 많지 않다고 해서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라, 어린이의 시선과 어른의 시선에 따라 같은 그림책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서평쓰기가 새로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그림책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일까? 내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많은 그림책을 들추어 보며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질 때마다 상실해가는 자신감을 부여잡고 한 편, 한 편 조심스러운 서평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서평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림책에 대한 무한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림책은 내 머리 속에 굳었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고, 한편의 명화를 감상하듯 아름다운 그림에 빠져들게 하며 또 다른 그림책의 세계로 자꾸만 빠져드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림책과 함께여서 행복하고픈 마음으로, ‘언젠가는 더 좋은 서평을 쓸 수 있겠지’라는 올해도 내년에도 도전해봅니다.

서평자 신 정 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jashin@library.kr

책 읽기를 배우고 있는 느림보 사서.

어릴 때부터 책 읽기는 좋아했지만 책에 대한 편식도 심하고 글 쓰는 것에는 유난히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보면 함께하고 싶은 좋은 책, 재미난 책, 흥미로운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비판도 하고, 더불어 감동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작년에 하나의 서평으로 참여 한 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꾸준히 서평을 써내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작년보다 좀 더 열심히 책 읽기를 시도했다는 것이 한 걸음 나아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책 읽기를 글로 연결하도록 좀 더 노력해야겠지요? 매우 바쁜 도서관 업무 속에서도 서평 쓰기를 충실히 해내는 2013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책을 보는 눈이 좀 더 총명해져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짚어가는 훈련을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먼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분과 책과 함께 소통하게 되겠지요.

다음엔 정말 더 잘할게요.

서평자 **양 유 진**

수원시 영통도서관 liblover@korea.kr

「안녕! 나마스테」, 「이 작은 책을 펼쳐봐」, 「메리와 생쥐」, 「아텔과 사이먼」,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시리동동 거미동동」, 「넉 점 반」, 「점」, 「장수탕 선녀님」. 딸과 함께 웃으며 즐겨봤던 그림책들입니다. 일하는 엄마로서 많은 책을 읽어 줄 수는 없기에 더욱 좋은 책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좋은 그림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고, 선물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기도사서서평단을 선택했고, 교육을 받으면서 틈틈이 만나는 사서선생님들을 보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발견하는 기쁨이 커질수록, 표현하는 힘이 부족한 저의 서평이 부끄러워지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이 가진 그 매력을 잘 포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할 수 있을까. 늘 고민만 점점 커지고, 발전하는 길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서평집이 한 권 한 권 쌓여 갈수록 우리들의 고민과 노력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듭니다. 서평단에게 늘 격려와 힘을 주신 정은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서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평자 **유 향 숙**

성남시 구미도서관 silbil@korea.kr

지금은 성남시 구미도서관 정보봉사팀에서 문화교실, 독서회를 운영하며 인력 관리, 기타 주요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벌써 도서관 사서로 20년간 일 해 왔네요. 좌충우돌 업무를 배우며 실전에 적용하며 살아가다보면 익숙해지리라 생각했지만 일이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고 낯설어 집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일, 읽을 책을 서평으로 승화하는 일은 재미있고 보람되었습니다. 늘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경기도에서 어린이도서 서평단을 모집하는 공문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잘 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글쓰기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벽 앞에 좌절되고 잊혀져 갔던 글쓰기를 경기도사서서평단을 통해 꿈에 한발 다가가는 행보가 되어 개인적으로는 보람되고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써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지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 하루의 일상에 치이고 힘들 때, 정신을 가다듬고 어린이 도서를 읽다보면 위로받고 재미있고 교훈까지 들어있어 그 어떤 친구보다도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평이란 것을 어렵듯이 알고 시작하여 책으로 내기에는 너무나 미숙하고 부끄

렵기까지 한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이것도 우리의 작은 산물이라고 책으로 엮어 주신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도 서평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린이의 걸음마 배우
듯 좌충우돌 몸으로 부딪혀 배워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더욱 신중하게 서평
을 써갈 것이며 배워갈 것입니다. 많이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힘써 따라
가 보겠습니다.

서평자 **유 현 미**

평택시립도서관 somdari@pyeongtaek.go.kr

내가 처음 도서관학과를 가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대체로 도서관학과를 나오면 무슨 일을 하나냐는 물음이었다. 사서라는 직업조차 생소하던 시절,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주고, 앞으로 이십년 후면 도서관과 사서가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하셨던 분이 옛 은사님이자 (지금은 故人이 되신) 전덕애 선생님이시다.

이십년 후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당시의 문화선진국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들의 경제 문화를 따라가는데 대략 이십년 정도 걸린다는 예측이었다. 그로부터 이십 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도서관은 그야말로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물론 도서관 또한 예외 없이 한국적 특수성 하에 놓여있고, 사서들이 딛고 서 있는 현실은 부박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도서관과 책이 빛을 발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다소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일망정 진심이다).

요즘은 도서관 앞에 산적한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고 책과 사람들로 인해 위로 받는다. 특히 나에게 있어 책임이란 스스로를 긍정하고 살게 하는 힘이자 내 밥벌이의 원천이니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나를 먹여 살리는 힘이다.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네 이웃에 널리 전하라’는 인디언 속담처럼 좋은 책을 함께 나누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사서로서도 보람 있는 일이다.

2008년 처음 ‘경기도 사서서평 교육’을 받고 ‘사서라는 이름’으로 서평을 써 오는 동안 성장하는 나를 만난 경험도 특별했다. 사서 서평쓰기를 기획하고 독려 해준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

서평자 이 명 옥

수원시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click4659@korea.kr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어언 20여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사회도 많이 변했고 또한 도서관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으며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그동안 업무에 매진하여 쉼 없이 달려왔지만, 한계와 좌절을 느낄 때도 있었으며 사서의 사회적 존재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해보았었다. 그렇지만 사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버리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책에 대한 안목과 전문지식을 기르는 것이었다.

어린이 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기르고 어린이전용 도서관에 근무하면서부터다. 많은 책을 만나다 보니 좋은 책을 고르고 추천해주는 안목도 생기고 관련 전문서적도 관심을 두고 보게 되었다.

일반도서관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업무와 직접 멀어지다 보니 어린이 책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소홀하기도 했었지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보에 대한 필터링, 그중에서도 좋은 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이듯이 마음의 양식인 책도 잘 골라 읽혀야 한다는 의무감을 되새기게 되었다.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어린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사회적 환경의 요인도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점점 책 읽기를 소홀히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린이가 책 속에서 지혜를 얻고 책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기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데는 사서가 해야 할 몫이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나 스스로 어린이들의 좋은 독서길잡이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본다.

서평자 이 수 경

평택시립도서관 sukyongj@hanmail.net

그림책, 아이들, 도서관이 있는 내 삶의 풍경

오늘(2014.1.24) 장당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4, 5세 아이들에게 그림 책을 들려주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은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계속 했음에도 떨리는 마음에 잠을 설쳤다. 캐소심 내 가슴! 이번 프로그램명은 ‘서쪽 마녀가 들려주는 램프 속 그림책 이야기’. 암막 커튼이 없어서 LED 램프가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늘씬한 서쪽 마녀 의상에 비해 짧은 다리로 완전 우스워 보인다는 여론으로 서쪽 마녀 의상은 포기했다. 까만 옷에 서쪽 마녀 모자만 ^^ 장작!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만든 빅북 가운데 「토끼 뽕튀기」 등 몇 권을 챙겼다. 모자만 써도 완벽하게 마녀로 보인다는 칭찬에 우쭐대며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20분전 입실, 어린이실 한 켄의 이야기방을 ‘서쪽 마녀 그림책방’으로 만들었다. 드디어 꼬맹이들 입실! 배꼽인사! 작은 토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신들린 연기로 들려주자 아이들은 자지러지는 분위기. (음하하하하 역쉬 난 타고났어. 연에게로 진출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토 쏘리는 건 아니시죠ㅋㅋ I DON'T CARE)

이 두서 없는 이야기의 핵심은 아이들과 그림책 들려주기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천상 사서야’라고 말하긴 민망하지만 책과 아이들, 도서관이 있는 삶의 풍경은 초여름 햇살을 머금은 나뭇잎의 생기와 평온함이 함께 한다는 것.

서평자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hani9874@korea.kr

공공도서관 사서의 정체성에 대해 아직도 고민 중인 “책 읽는 도시 군포”의 21년차 사서 이시영입니다.

하루에도 수 천 권의 책들 속에 묻혀 사는 사서지만 서평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작 10페이지 정도의 그림책이라 할지라도 읽고 또 읽고, 삽화를 보고 또 보고, 작가에 대해, 작가의 나라에 대해, 심지어 출판사에 대해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의 책을 소개하기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서평이란 무엇일까요. 서평이란 책을 읽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책을 일일이 펼치지 않고도 간단한 서평을 통해 독자들에게 맞는 책, 읽고 싶은 책, 읽어야 될 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담준론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발견할 수 있는 서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소박하지만 진실 되고 알찬 서평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평자 **이 연 수**

수원시 선경도서관 nana2su@korea.kr

어린이 책은 볼 때마다 늘 ‘내가 사서임’을 느끼게 해 준다. 하여 일반 책보다 어린이 책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 계기로 서평을 쓰게 되었다. 어린이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궁무진한 어린이 책의 세계에 때로는 너무 알아야 할 게 많아서 부담도 되지만 그래서 더 놓을 수 없는 어린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서이다.

남들은 어린이 책이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내겐 가볍지않았다. 어린이도서 서평을 쓰는 동안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도서 작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활자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림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은 내 느낌을 재미지고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는 심란한 글쓰기였다.

다행이라 생각한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행복이라 생각한다.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어서...

서평자 이 은 주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lucilib@korea.kr

‘도서관’, ‘사서’라는 단어만 봐도 설레는 20년 지기 사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이라는 행복공간을 소개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삶의 행복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가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 백발의 어르신인 햇빛 잘 드는 도서관 자료실에서 책속에 빠져있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나요?

아이들의 책 읽는 모습을 좋아하지만 어린이자료실을 둘러보면 만화책만 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게임에 빠져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보다는 그나마 만화책이라도 보는 아이들이 반갑기도 하지만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능력을 키워 서평을 통해 좋은 책을 추천하고 구입해야 하겠지요.

2013년에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가 ‘서평 쓰는 사서들’에 참여한 것입니다. 서평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고, 우연히 서평집 발간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서평단 명단에 남양주시 사서가 한 명도 없는 것에 놀라 사명감으로 신청서에 이름을 적고 후회도 했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서평을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괴로웠지만, 완성하여 카페에 올려놓으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여 서평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시작을 했고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매월 한 편씩 쓰기로 계획도 세웠답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서들이 서평쓰기에 동참하여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가 권위 있는 서평지가 되고, 계간지, 월간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평자 이 지 연

안성시 공도도서관 jiyunhappy@korea.kr

도서관에 쌓여있는 책만 봐도 배가 부르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독하지 않는다는 평계를 내보는 6년차 사서입니다.

일반도서 위주로 간략하게 서평을 써오던 차에, 어린이 책 대상의 서평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 있게 2013년에 처음 참여하였습니다.

평상시 읽지 않던 어린이 도서를 읽고,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다는 건 정말 어렵고 막막하였습니다. 책을 선정하기 위해 어린이 도서 20여권을 옆에 쌓아놓고 서두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시간은 제 자신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고마운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 덕분에 어린이 도서를 많이 읽게 되고 또 점점 빠져들게 되었으니까요.

어린이 도서의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상상력과 예술성은 이미 상상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심오함까지 느끼게 만듭니다.

반짝거리는 하얀 진주가 모래에 파묻혀 까만 돌맹이로 보이지 않도록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 도서를 열심히 탐독하여 책을 읽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서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기도 각 지방에 있는 사서를 한데 모아 경기도사서서평단을 운영 해 주신 정은영 사서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에도 경기도 사서서평단 파이팅입니다.

서평자 정 영 춘

부천시 북부도서관 turn71@korea.kr

도서관의 서가를 가득 채운 책들을 마주 할 때마다 매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돌이켜보면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일 편안했고, 첫 직장을 떠나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단번에 도서관으로 향했던 마음은 어찌면 돌아 돌아와 결국 찾게 된 내 길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도서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실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시민들의 손에 전해지고 손과 귀를 즐겁게 하는 문화 및 독서 강좌도 도서관의 매력입니다. 그뿐인가요? 정말이지 이런저런 사람들을 무척 많이 만나게도 됩니다.

하지만 제게는 무엇보다도 발랄게 상기된 얼굴을 하고 들어와 책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 아이와 책 읽어주는 아빠의 모습이 제일입니다.

한쪽에 치우친 책 읽기에 빠져있는 아이들 모습이 눈에 띄니다. 어느 쪽을 펴마는 것이 아니라 고루 읽기를 권하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책을 권해보고 싶은 작은 바람이 ‘어린이책 알기’에 대한 공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서 서평단 모임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어린이책 서평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는 배경지식과 글 솜씨를 총 동원해도 머릿속에서 만 땀똥고 표현되지 않거나 방향을 잘못 잡고 어긋나 의도와 달라질 때도 있지만 서평쓰기는 분명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책이 가진 긍정적인 힘에 대한 믿음과 사서로서 느끼는 보람과 긍정에너지를 잘 발휘하여 2014년에도 새롭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10년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되고, 20년을 꾸준히 하면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꾸준히 하면 역사가 된다”

그저 손으로 노력하여 조금씩 나아지기를 스스로에게 기대해봅니다.

서평자 조 수 연

수원시 영통도서관 whtndus87@korea.kr

지금도 아침에 공부가 아닌 내가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출근한다는 것이 꿈같이 느껴지는 새내기 사서입니다.

항상 도서관은 제 꿈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 수 만권씩 책장에 꽂혀있고, 그 책들이 누군가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위대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어린이 자료실을 맡고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가 권유하는 책을 통해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답은 서평.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서평. 생각과 달리 서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고 10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림책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의 그림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아닌 글부터 보는 뜻내기 서평자의 수준에서는 그림 속 이야기를 찾는 일이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만큼의 성장은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글쓰기에 대한 기본기를 쌓고 그 과정을 통해 책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씩 쌓이면 더 멋진, 제가 봐도 읽고 싶을 만큼 근사한 서평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멋진 글 쓰는 사서가 되어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서평자 **최 미 화**

하남시 나룰도서관 haha0304@korea.kr

따스한 봄기운이 부쩍 그리운 한겨울입니다. 이 겨울도 곧 지나가고 또다시 봄이 다가오겠지요? ‘봄’이라고 속삭여보니, 새내기 사서였던 2006년의 봄이 떠오르네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날의 첫 출근.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무엇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게 없었지요. 그때는 모든 게 불안하고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것이 사서로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꽤 축적되어 여유가 묻어나기 시작하다니 새삼 신기합니다.

1996년은 제가 사는 고장에 도서관이 처음 생긴 해입니다. 처음 도서관에 들어 서던 그 날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도서관에 흐르던 정적과 책으로 가득했던 서가는 어린 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바랐지요. ‘사서가 되어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

2009년은 제가 사는 고장의 도서관에서 드디어 사서로서 일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좀 낮간지럽지만 어린 날의 바람이 실현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했지요. ‘이곳에서 일하게 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일이 힘들고 지칠 때면 저는 2009년을 떠올립니다. 그래도 힘이 안 난다면 2006년을, 마지막에는 1996년을 떠올리지요. 그날의 저로 돌아가 보며 다시금 힘을 얻는답니다.

아, 그리고 덧붙일 해가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서평교육에 첫 참가했던 2010년입니다. 사서로서의 역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을 즈음 가다왔던 오아시스 같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어린 날의 동화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말을 꿈꾸며 서평이라는 오아시스를 떠나지 않으렵니다!

서평자 **한 선 영**

군포시 당동도서관 drysun@korea.kr

육아휴직 1년을 보내고 복직하면서 시작한 사서서평단은 저에게 사서로서 다시 도약하자는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서평을 쓰자고 마음먹고 의지를 굳건히 다지던 때는 어디로 갔는지 업무와 일상 속에서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 될 때 하는 일로 점점 미루어지던 서평쓰기. 그 핑계로 1년 동안 쓴 서평이 3개 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었네요. 그래도 마음에서는 놓지 않는 서평이기에 2014년에도 다시 서평을 쓰렵니다. 지금의 반성이 오래 기억되어 좋은 서평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없는 글 솜씨에 서평 쓰는 시간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내 서평이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이 기쁨이 되어 서평을 쓰게 되는 거 같네요. 서평단 선생님들 마음도 저와 같으시겠죠? 솜씨 좋은 선생님들을 보며 다음번엔 더 잘 써야지 하고 다짐하는 마음도요!

다들 멋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며 힘냅니다. 사서서평단 선생님들! 올해도 힘내세요!

서평자 **홍 미 정**

화성삼괴도서관 hmj2320@hanmail.net

안개 자욱한 출근길...

한치 앞 상황이 보이지 않아 거북이걸음 건듯이 조심조심 운전하고 있을 때,
저만치 앞에 다른 자동차 불빛이 보이면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때부터 내 앞의 자동차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 난 내 갈 길을 훨씬 수월
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

길을 잃었을 때 발견한 숲속의 작은 오솔길,

광활한 눈밭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발자국,

깜깜한 밤에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

이 모두 인생의 막막함 속에 만나는 반가운 존재들이 아닐까?

이 존재들이 반가운 이유는 바로 희망과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사서로서 난 도서관 서가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 속에서 이러한 희망과 위안을
본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험난한 길에서 먼저 살아간 이들의 지혜와 교훈을 만
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또 저마다 삶의 고비에서 만나게 될 시기적
절한 조언은 인생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래서 난 자꾸 사명을 가지게 된다.

내가 선별한 이 책이,

내가 소개한 이 책이,

누군가에게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환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서평은, 피가 많이 나지만 결코 멈출 수 없는 작업이다.

우리의 이런 작은 작업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오리무(五里霧)를 순조로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섯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기획자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eyjung@library.kr

“나는 기획자인가 사서인가”라는 물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도서관에서 일할 때나 어린이도서관에서 일할 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물음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근무한지 벌써 10년이 됩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책이 꼽혀있는 도서관 현장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위해 일했고, 책이 가득 담긴 북트럭이 책상 옆에 놓여있지는 않지만 늘 책과 독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었죠. 무척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불현듯 도서관 현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서가읽기를 하고 싶고, 북트럭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도 싶고, 분류와 목록작성을 위해 새로 들어온 책을 들쳐보는 재미도, 책과 도서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는 사람들도 그림습니다. 먼지를 가득 뒤집어 써야 했던 장서점검, 매일 매일 귀찮게 여겨졌던 기사 스크랩이나 초록작성 조차 그림습니다. 좋은 책들이 가득한 도서관. 그 곳이 그림습니다.

물론, 요즘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긴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만나보지도 못했을까요? 도서관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모습인데 왜 도서관에서 보기 힘들어 질까요? 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도서관’이라고 하면 정말 도서관다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지요. 길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도서관’의 이미지를 말해달라고 하면 칸막이가 있는 책상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더 많지 않을까요? ‘사서’의 이미지를 말해달라고 하면 혹시 대출대에 앉아서 개인 책을 보고 있는 한가해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는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을, ‘사서’의 역할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도서관의 모습을 갖춘 도서관이 많아지면 되겠죠. 그런 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서가 많아지면 되겠죠. 경기도 사서들의 서평쓰기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서라는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산사태처럼 쏟아지는 도서관 현장의 수많은 일과 속에서 퇴근 후, 휴관일 등 쉬기에도 부족한 개인 시간을 쪼개서 서평을 써주시고, 목록을 뽑아주신 사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밑거름이 되어 이번 서평집도 무사히 발간이 됩니다. 2009년 사서서평교육으로 부터 시작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그 5년이란 세월이 참 감사합니다. ‘사서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기에 감사하고,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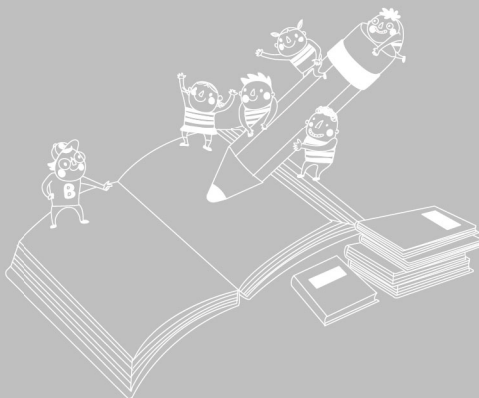
“나는 기획자인가 사서인가?” 어리석은 자문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주신 것처럼 “기획사서”로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니다.

2013년 경기도 사서서평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3

부록 추천도서 목록

- 그림책 목록
 - 동화책 목록
 - 지식정보책 목록
-



그림책 목록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	날아라 현수야	한성옥	한성옥		웅진주니어	2012
2	명태를 찾습니다	주강현	김형근		미래아이	2012
3	빨간 목도리	김영미	윤지희		시공주니어	2012
4	양철곰	이기훈			리젬	2012
5	펭귄 히쿠	니콜 스니젤라	코랄리 소도	김영선	아르볼	2012
6	거꾸로 동물원	사라 다이어	사라 다이어	강효원	푸른숲주니어	2012
7	곰꾸는 우리 아기	아델 에너센	아델 에너센	이상희	다산기획	2012
8	아빠한테 가고 싶어요	유다정	주보희		미래아이	2012
9	허수아비야, 아빠를 부탁해!	남궁원	유지연		푸른숲아이들	2012
10	나의 특별한 장소	페트리샤 맥키삭	제리 핑크니	이향순	북뱅크	2012
11	귀 없는 토끼	클라우스 바움가르트	틸슈바이거	김영진	아이세움	2012
12	곰꾸는 우산	장윤경	장윤경		푸른숲주니어	2012
13	오늘은 설날	이지현	김민영		기탄교육	2012
14	까만토끼	필리파 리더스	필리파 리더스	최지현	주니어파	2013
15	꼬리 하나 생쥐 열마리	첸무청	차오원옌	유엔제이	거북이북스	2013
16	꼭두와 꽃가마 타고	이윤민	이윤민		한림출판사	2013
17	나는 누구일까	박상은			현북스	2013
18	나는 뽀글머리	아마니시 겐이치	아마니시 겐이치	고향옥	비룡소	2013
19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페트리샤 맥키삭	지젤 포터		고래이야기	2013
20	내가 먹어 줄게	후쿠베 아키히로	오노 코헤이	사과나무	크레옹하우스	2013
21	네개의 그릇	이보나흐미엘레 레프스카	이보나흐미엘레 레프스카	이지원	논장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22	누구지?	이범재	이범재		계수나무	2013
23	달님을 빨아버린 우리엄마	사토 와키코	사토 와키코	고향옥	한림	2013
24	머리 쓰는 그림책 : 이상한 동물나라	이소비	임규석		부즈뎀어린이	2013
25	무엇이 무엇이 필요할까	잔니 로다리	실비아 보난니	김현주	아지	2013
26	비밀의 방	미야코시 아키코	미야코시 아키코	양선하	한림출판사	2013
27	새 신이 생겼어요	시바타 아이코	마루야마 아야코	김소연	천개의바람	2013
28	새로운 시작	파울라 카르바예이라	존야 다노프스키	김시형	노란상상	2013
29	아빠가 작아졌어요	박수현	박수현		키다리	2013
30	아주아주 특별한 집	루스 크라우스	모리스 샌닥	홍연미	시공주니어	2013
31	악어가 쿵 작은새가 포르르	이은경			대교북스주니어	2013
32	어이, 친구!	애덤 렉스	이준우	한별	현북스	2013
33	어흥어흥 어름치야	이학영	김재홍		비룡소	2013
34	엄마 언제 와?	김수정	지현경		꿈꾸는 꼬리연	2013
35	우리집에 놀러오세요	정희재	윤봉선		책읽는곰	2013
36	우산과 미꾸라지	김현주	김현주		아르볼	2013
37	꼭매	이기을	신세정		한림출판사	2013
38	첼로, 노래하는 나무	이세 히데코	이세 히데코	김소연	천개의바람	2013
39	추 선생님의 특별한 미술수업	패트리샤 폴라코		천미나	책과 콩나무	2013
40	토끼들의 밤		이수지		책읽는 곰	2013
41	통영동이	김정호	김재홍		장영	2013
42	호랑이굴 떡잔치	한미경	문종훈		현암사	2013
43	내뽀스	박종채	박종채		키다리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44	상우네 텃밭 가꾸기	박소정			길벗어린이	2013
45	난 발표가 정말 싫어	베스 브래컨	제니퍼벨	북드림	노란우산	2013
46	너랑 절대 말 안해	가사이 마리		김숙	북뱅크	2013
47	버스 왔어요	신옥희	이승현		사계절출판사	2013
48	빨래하는 날	홍진숙	원혜영		시공주니어	2013
49	애반딧불이랑 불꽃놀이 했지	곽미영	윤봉선		웅진주니어	2013
50	एं터리 아프리카	필립 코랑텅	최윤정		바람의 아이들	2013
51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오진희	김홍모		웃는돌고래	2013
52	작은 새	제르마노 질로	알베르틴	이준경	리젬	2013
53	혼자 갈 수 있어요	박정선	김중석		시공주니어	2013
54	앞 옆 뒤	스즈키 마모루			뜨인돌어린이	2013
55	보이지 않는다면	치이자오룬		심봉희	웅진주니어	2013
56	색깔이 궁금해	노정임,바람하 늘지기	안경자		웃는돌고래	2013
57	줄하나	김슬기	김슬기		현복스	2013
58	유치원엔 네가 가	지우	지우		어린이작가정신	2013
59	왕할머니는 100살	이규희	신민재		책읽는 곰	2013
60	백살까지 산다고?	야규 겐이치로	야규 겐이치로	이선아	비룡소	2013
61	나 비뚤어질 거야	허은실	조원희		한솔수북	2013
62	나의 형 이야기	모리스 샌닥			시공주니어	2013
63	사과나무	미라로베	안젤리카 카우프만	김경연	푸른숲주니어	2013
64	커다란 당근	도네 사토네			아름다운사람들	2013
65	수영장	이지현			이야기꽃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66	우리길이 없어졌어요	김재홍			스픈북	2013
67	우리 동네에는 코끼리가 살아요	크리스티나 본	칼라 이루스타	장지영	책속물고기	2013
68	너는 어떤 씨앗이니	최속희			책읽는곰	2013
69	1층에 사는 키작은 할머니	샤를로트 벨리에르	이안 드 해스	조정훈	키즈앰	2013
70	쭈, 그림속의 그림		이슈트반 바냐이		보물창고	2013
71	이순구의 웃는 얼굴	신형건 외	이순구		뜨인돌어린이	2013
72	공짜표 셋 주세요!	홍종의	국설희		파란자전거	2013
73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이상교	김재홍		봄봄	2013
74	고양이 싱가푸르	탄손맹	앤저	임은경	걸음동무 그림책	2013
75	허허 할아버지	전지은	전지은		길벗스쿨	2013
76	소원을 그리는 아이	김평	홍선주		책읽는곰	2013
77	네 친구는 어디있니?	노태완	권진희		아지복스	2013
78	도깨비를 빨아 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사토 와키코	고향옥	한림출판사	2013
79	그 사과밭에 생긴 일	선안나	한희란		청개구리	2013
80	할아버지 손	마거릿 H. 메이슨	플로이드 쿠퍼		꿈교출판사	2013
81	삼촌이 왔다	김재희			사계절출판사	2013
82	두 섬 이야기	곽영미	이지은		다섯수레	2013
83	잠귀신	김이연	윤순미		정글짐복스	2013
84	미술관의 초대	수전 베르데	피터 레이놀즈	서애경	문학동네	2013
85	돼지 이야기	유리			이야기꽃	2013

동화책 목록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	욕시험	박선미	장경혜		보리	2009
2	학교가기 싫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송미경			웅진출판사	2010
3	게임 중독자 최일구	한봉지	이승연		리젬	2011
4	아빠! 사랑해요	김옥림			문이당 어린이	2011
5	선생님은 세 번 올었다	위리엘 스작	서영경	이정주	어린이작가정신	2011
6	열세살 내마음이 왜이러지	김민화	성혜연		스콜라	2011
7	최기봉을 찾아라	김선정	이영림		푸른책들	2011
8	대장간골목	바츨라프 르제차치	김중숙	김경옥	한겨레아이들	2012
9	불청객 아빠	가타히라 나오키	윤희동	고향옥	주니어김영사	2012
10	비밀의 숲 - 테라비시아	캐서린 패터슨	도나 다이몬드	김영선	사파리	2012
11	뽀스락 왕자	송연	장호		별숲	2012
12	좋은 꿈 하나 찾았습니다	고마쓰바라 히로코	기타미 요코	김지연	책과공나무	2012
13	우물 파는 아이들	린다 수 박		공경희	개암나무	2012
14	은하철도의 밤	미야자와 겐지			여유당	2012
15	강치가 들려주는 우리 땅 독도이야기	신현배	홍정혜		가문비어린이	2012
16	폭력근절 클럽	윤희경			꿈꾸는 사람들	2012
17	안톤 잠수하다	밀레나 바이쉬	엘케 쿠셰	이주실, 조주현	대원사	2012
18	옛날처럼 살아 봤어요	조은	장경혜		사계절출판사	2012
19	일곱빛깔 독도이야기	황선미			조선북스	2012
20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	유진 열친		김영선	푸른	2012
21	가위바위보를 좋아하는 아이	마쓰오카 교코	오코소레이코	김숙	북뱅크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22	게임 파티	최은영	서현		시공주니어	2013
23	게임왕	선자은	나오미양		문학과 지성사	2013
24	그집에서 생긴 일	박현숙	정경아		아이앤북	2013
25	기호 3 번 안석봉	진형민	한지선		창비	2013
26	내인생이 바뀔날	아네스드자르 트	황가영	조현실	문학과 지성사	2013
27	너 때문에 세상이 폭발할 것 같아	이경화	허구		뜨인돌어린이	2013
28	달의 정원	최선영	유승배		어린이동화	2013
29	달팽이 우주선	정옥	이한솔		샘터	2013
30	도서관에서 3 년	조성자	이영림		아이세움	2013
31	독서전쟁(세종대왕 vs 링컨)	이상배	이주희		처음주니어	2013
32	두근두근 거실텐트	서석영	정현지		창비	2013
33	로봇친구	오세나	오세나		장수하늘소	2013
34	마주 보면 무섭지 않아	질 티보	자니스 나도	이정주	어린이작가정신	2013
35	몇 호에 사세요?	김소연			뜨인돌어린이	2013
36	몇 호에 사세요?	박상재	양후형		청개구리	2013
37	모든것은 장난으로 시작되었다	손호경	이민경		형설아이	2013
38	목욕탕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강정규	손지희		문학동네	2013
39	미스 히코리	캐롤린 베인리	갈현옥	김영옥	한림출판사	2013
40	불사냥꾼 아쿠이카	하비에르 말피카	엑토르 모랄레스	김정하	별숲	2013
41	불사냥꾼 아쿠이카	하비에르 말피카	엑토르 모랄레스	김정하	별숲	2013
42	비밀의 방	미야코시 아키코	미야코시 아키코	양선하	한림	2013
43	새록새록 웃긴 이야기	김경연	홍기한		한겨레아이들	2013
44	새엄마	우봉규	정광주		아름주니어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45	서울방귀쟁이와 시골방귀쟁이	임정자	최용호		별숲	2013
46	설문대할망	임어진 엮음	편형규	최원오 감수	해와나무	2013
47	성을 쌓는 아이	안선모	최정인		청어람주니어	2013
48	세 번째 엄마	이규희	김지안		아이앤북	2013
49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고양이	박상재	양후형		청개구리	2013
50	수박씨 아빠	김진완	강기종		파란정원	2013
51	숫 너만 알고 있어	박현숙			좋은책 어린이	2013
52	스마트폰이 사라졌어요	고정욱	윤희동		맹&앵 동화책	2013
53	스무고개 탐정과 마술사	허교범	고상미		비룡소	2013
54	아빠와 아웅이	강정규	이상윤		알라딘북스	2013
55	으랏차차 똥보 클럽	전현정	박정섭		비룡소	2013
56	일단 뛰어	데비 월드먼		김호정	책속물고기	2013
57	일수의 탄생	유은실	서현		비룡소	2013
58	최부	고정욱	이상권		산하	2013
59	캥캥 우리 형	야마시타 하루오	히로세 겐지	고향옥	주니어김영사	2013
60	컨닝 x 파일	크리스천 부처			미래인	2013
61	회사 괴물	조미영	조현숙		주니어김영사	2013
62	환상정원	류화선	노준구		문학동네어린이	2013
63	강영우, 세상을 밝힌 한국 최초 맹인 박사	성지영	이정현		스콧프	2013
64	꼬마 사서 두보	양연주	김미현		키다리	2013
65	댕기머리 탐정 김영서	정은숙	이영림		뜨인돌어린이	2013
66	마이 잉글리시 티처	박관희	이수영		푸른숲주니어	2013
67	만렙과 슈렉과 스마트폰	서지원	김숙경		스펀북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68	맨날맨날 착하기는 힘들어	안진영			문학동네	2013
69	뽕터지는 뽕집	원유순	김병하		크레용하우스	2013
70	선생님 탐구생활	이봉	백명식		처음주니어	2013
71	슈퍼맘 능력고사	김미희 등			푸른책들	2013
72	회장이 되고 싶어	송아주	배현선		상수리	2013
73	이혼대비 비밀노트	박채란			주니어랜덤	2013
74	점자배우는 아이	고정옥	엄유진		점자	2013
75	화수목금토일 친구를 구합니다	에블린드 플리허	웬디 판티스	정신재	책속물고기	2013
76	과물 쫓는 방구 탐정	고재현	조경규		창비	2013
77	너영나영 구름비에서 놀자	김중미	창작집단도르리		보리	2013
78	금지어 시험	임임근희	정세라		좋은책어린이	2013
79	관을 짜는 아이	한정영	최지은		가교출판	2013
80	검은 후드티 소년	이병승	이담		북켄토	2013
81	나도 예민할거야	유은실	김유대		사계절출판사	2013
82	다문화 친구 민이가 뽕났다	한화주	안경희		팜파스	2013
83	오월의 달리기	김해원	홍정선		푸른숲주니어	2013
84	형, 나를 지켜 줘!	박현숙	김미현		북스토리아이	2013
85	노벨트에서 평범한 건 없어	잭 갠토스		이은숙	찰리북	2013
86	타임 시프트	김혜정	김숙경		푸른숲주니어	2013
87	제비야 날아라	송채찬	강동훈		봄봄	2013
88	어떤 아이가	송미경	서영아		시공주니어	2013
89	외아들 구출 소동	송언	김병하		봄봄	2013
90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햇핑크돌핀스	박주애		두레아이들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91	사이공에서 엘라배마까지	탕하 라이	흘날린	김난령	한림출판사	2013
92	지뢰밭 아이들	앙젤 들로누와	크리스틴 들르젠느	김영신	한울림어린이	2013
93	책 할아버지의 행복 도서관	고정욱	순미		꿈꾸는 달팽이	2013
94	피카이야	권윤덕			창비	2013
95	다린과 쇼린	장텐이	김유대	남혜선	여유당	2013
96	당나귀 도서관	홍은경	김선배		느림보	2013
97	발레하는 수녀님	원유순	장경혜		동아일보사	2013
98	한방을 날려라	에스텔 빌름 스파놀		이주영	책속 물고기	2013
99	시간가게	이나영	윤정주		문학동네	2013
100	도둑맞은 성적표	사토 시로	심윤정	고향옥	주니어김영사	2013
101	돌아온 독도대왕	함영연	최혜정		크레용하우스	2013
102	흑산도 소년 장군 강바우	김해등	이수진		시공주니어	2013
103	오국봉은 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까	임정자	이경석		문학동네어린이	2013
104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병옥	원혜진		도요새	2013
105	자질구레 신문	김현수	홍선주		한겨레아이들	2013
106	제비야 날아라	송채찬	강동훈		봄봄	2013
107	우리 집 개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아요	해리엇 지퍼트	바루	이상희	상상스쿨	2013

지식정보책 목록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기타저자	출판사	년도
1	재미있는 세계 지리 이야기	김영	정경화			가나출판사	2007
2	왜 0 등은 없을까?	이영민	박재현			아르볼	2010
3	열세 살,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김민화	성혜현그림		신혜현 강정환 사진	스콜라(위즈덤 하우스)	2011
4	김점동 조선의 별이 된 최초의 여의사	박혜선	고순정			청어람 미디어	2012
5	나의 첫 인생수업-아빠와 나는 17 가지 공감대화	모리 히로미				휴이념	2012
6	도둑고양이 연구	이자와 마사코	히라이데 마모루	이예린		파랑새	2012
7	명태를 찾습니다	주강현	김형근			미래아이	2012
8	우리 집 김장을 부탁해	신혜은	신민재			시공주니어	2012
9	우리 집을 지어요!	롤프 토이카	페렌크 B. 레고스	박종대	하이케 오센코프 사진	꿈교출판사	2012
10	이선비, 혼례를 치르다	이경민				아이세움	2012
11	1 억년 전 공룡오줌이 빗물로 내려요	강경아	안녕달			와이즈만 영재 교육연구소	2013
12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	정창권	김도연			사계절출판사	2013
13	고물상 할아버지와 쓰레기투공대	김미애	심윤정			스콜라	2013
14	곤충들의 편지	올가 쿠비키나	예카테리나 신코프스카야	문성원		사파리	2013
15	공정무역, 행복한 카카오 농장 이야기	신동경	김은영			사계절출판사	2013
16	구	게리 베일리, 펠리샤로		박상은		미래아이	2013
17	국민의 소리를 들어요! - 국회의원 (일과 사람 15)	이혜란				사계절출판사	2013
18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댄 바커		이윤		지식공간	2013
19	꼬질꼬질 우리 몸의 비밀	폴메이슨	마이크 고든			종이책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기타저자	출판사	년도
20	나도 권리가 있어요	에드 에 악시몽, 헤이디그렘	올리비에 마르보프	천미나		책과콩나무	2013
21	나도 위대한 화가	매리언 듀카스		한지희		아트박스	2013
22	나무는 숲을 기억해요	로시오 마르티네스		김정하		노란상상	2013
23	날마다 전쟁이야	김복미	홍기한			열다	2013
24	내 손으로 키우고 요리하는 꼬마농부의 맛있는 텃밭	DK 편집부		이현정		청어람미디어	2013
25	내 이름은 파리지옥	이지유	김이랑			해그림	2013
26	내 작은 몸속 커다란 세계	이영란	정일문			풀과바람	2013
27	내 친구가 사는 곳이 궁금해	김향금	서현			열린어린이	2013
28	눈은 보기만 할까?	백명식	백명식			내인생의책	2013
29	달리는 기계, 개화차, 자전거	정하섭	조승연			보림	2013
30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33 가지	참여린이독서 연구원				세용	2013
31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	노정임	안경자			현암사	2013
32	똑똑한 수다쟁이 돌고래	김황	이민선			우리교육	2013
33	만화로 보는 우리 동네 자연 관찰	이시모리 요시히코		김해창		사계절출판사	2013
34	명절은 어떤 날일까요?	양태석	김호진			주니어김영사	2013
35	무엇이 무엇이 필요할까	잔니 로다리	실비아 보난니	김현주		아지박스	2013
36	문화재가 살아있다	정혜원	김진원			상수리	2013
37	뭘써요, 뭘쓰라고요?	김용택				한솔수북	2013
38	밥상을 차리다	주영하	서영아			보림	2013
39	빨리빨리 너의 시간 느릿느릿 나의 시간	프란츠 요제프 후아이니크	주잔네 베히도른	김준형		풀빛	2013
40	사람을 살리는 책 동의보감	신동원	조승연			꼬마이실	2013
41	상우네 텃밭 가꾸기	박소정				길벗어린이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기타저자	출판사	년도
42	생물의 방어에 숨은 비밀	최재천, 서수연	이다			리젬	2013
43	성을 쌓는 아이	안선모				청어람주니어	2013
44	세계문화유산답사	서관순	허용선			사계절출판사	2013
45	세계의 시장구경, 다녀오겠습니다	이형준				시공주니어	2013
46	송언 선생님의 신나는 글쓰기 초등학교	송언	유설화			미세기	2013
47	순분 씨네 채소 가게	정지혜				사계절출판사	2013
48	숫자의 발명	안나 체라솔리	데지데리아 귀자아르디니	이현경		봄나무	2013
49	숲에서는 우리 사촌 보노보	크로딘 앙드레외				도토리 숲	2013
50	스마트폰이 먹어치운 하루	서영선	박연옥			팜파스	2013
51	아시아 아홉문자 이야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조민석			한림출판사	2013
52	어떡하지, 난 꿈이 없는데	원재길	김소희			웅진주니어	2013
53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알갱이, 씨앗	서경석	이경국			미래아이	2013
54	연대도의 비밀	천세웅	이다			리젬	2013
55	옛 이야기 들썩, 우리음악 얼썩	이효분	홍선주			웃는 돌고래	2013
56	왜 너희만 먹는 거야	장성익	송하완			플빛미디어	2013
57	우리 역사에 뿌리내린 외국인들	정혜원	김준영			해와나무	2013
58	유네스코가 들려주는 아시아아홉문자이야기	유네스코아시아 태평양국제 이해교육원	조민석			한림	2013
59	인간의 오랜 친구 개	김황	김은주			논장	2013
60	장경판전	김기정	윤봉선			웅진주니어	2013
61	적성과 진로를 짝여 주는 직업 교과서(1~20)	와이즈멘토				주니어 김영사	2013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기타저자	출판사	년도
62	조상님들은 일기에 무얼 썼을까?	이향숙	김지연			예림당	2013
63	조선시대 초상화에 숨은 비밀 찾기	최석조				책과함께어린이	2013
64	지지고 볶고 : 밥상	박남일	김우선			길벗어린이	2013
65	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	홍건국	김진희			글담어린이	2013
66	천년 지혜가 담긴 우리 음식 이야기	김용안	노정아		김숙년	토토북	2013
67	태극기 다는 날	김용란	강지영			한솔수북	2013
68	편지따라 역사여행	조현범	강전희			너머학교	2013
69	피카소가 모나리자를 그린다면?	표트르 바르소니		이수원		내인생의책	2013
70	하늘은 왜 파랗죠?	이영란	노기동			풀과바람	2013